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1월 16일 수요일 (주간) 제 352 호

봉사하는 불교 실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041)734-2680 대전 논산시 연산면 숭정리

법석 조대 **석주 스님** 칠보사 조실



"죽음이란 본래 없어, 우주만물이 다 불생불멸인데 죽음이 어디 있나. 집착을 해서 윤회의 굴레를 벗지 못하여 죽고 나고 하는 것이지."

"부처님 가르침은 문자와 말에 의지해 그 진귀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니 역경불사건 전산화 불사건 사부대중이 한 마음으로 해야지."

☞ 자세한 내용은 12 · 13면

조계종 '군포교 진흥의 해' 지정

포교원 – 군불교위 – 포교사단 – 군불교진흥회 '한마음' … 본 말사 후원회도 구성

군내 종교별 신도수는 불교 15만(28.2%), 개신교 30만3천(56.6%), 천주교 8만(15%). 종교시설은 법당 379곳, 교회 921곳, 성당 268곳이 있다. 공식적인 군지원 예산은 조계종 3억, 기독교 군선교연합회 90억, 천주교 군종교구청 35억원으로 열세에 처한 군 포교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청장년층 거사불교의 향배를 좌우하는 군불교의 이같은 열악한 포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불교계가 나섰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 스님)은 5일 충남 유성 스파피아호텔에서 군불교진흥회 출범 원년인 2002년을 '군 포교 진흥의 해'로 정하고,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포교원은 군 법당(대대급까지 700곳 추산)의 종단 등록사업과 군불자의 신도등록 및 교육, 군 간부 3만명 및 장병 5만명 전산화, 1500여 불자 사관생도 신행지원 등의 사업을 펼친다. 또한 지난해 시도된 군승자원 선발 및 관리, 군종병 교육의 내실화와 함께 교구 본말사의 체계적인 군불교 후원시스템(네트워킹)을 처음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법당 통일설계인 마련, 불교 군종사(40년사)와 군법당 총람 및 통일의례집 발간, 군승단복 및 군종병 단체복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군불교위원회(위원장 성광스님)도 자체적으로 입요법회 및 장교 가족법회 지원, 간부 및 사관생도 불자 확보 주력, 군법사 활동 역영 확대 등을 통해 매년 7만여명에 이르는 군불자 수계인원을 30%이상 늘리는 등 신도수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포교사단(단장 김대중) 군포교특별위원회(위원장 한연수)는 25개팀 2백명의 포교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60개 법당 수를 80개소 이상(30%)으로 확대하고 월4회 일요법회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군포교 기금' 조성, 년2회 군포교 담당 포교사 워크숍 개최, 군포교 지도 교안 제작 등의 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군불교진흥회(회장 정각스님)도 월 2회 부대 위문법회를 실시하고 군포교지 월간 〈법륜〉을 1만부씩 발행하는 한편 수계식 지원을 6만에서 8만명으로, 군법사 해외연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gkim@buddhapa.com



성불도 놀이하는 새싹불자 20일 부처님 성도재일을 맞아 전국 사찰과 단체들이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철야정진, 일일출가, 참회법회, 고승법문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다. 지난 10일 개운사 선무도관에서 성불도 놀이를 하며 부처님 성도의 의미를 배우며 스님과 어린이 불자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종사' 출간

19세기 중엽~2000년 정리 시대별 포교·교육 '한눈에'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능혀)가 10일 펴낸 〈조계종사, 근현대편〉은 근대 교단의 태동기인 1876년부터 130년간의 조계종 역사를 처음으로 정리한 연구 성과물이라는 점 외에도, 현 대한불교조계종을 정체성을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환스님(동국대 명예교수)과 무관스님(조계종 교육원 교재편찬위원장)이 감수하고 김상영(중앙승가대 교수) 김경집(동국대 강사) 김순석(고려대 강사)씨 등 9명의 불교학자가 공동 집필했다.

〈조계종사, 근현대편〉은 '근대교단의 태동(1876~1910)' '시련과 극복(1910~1945)' '자주화와 교단개혁(1945~1962)' '조계종의 성립과 발전(1962~1999)' 등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종단의 교육, 포교, 역경, 수행, 신행활동의 흐름을 자료와 함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허, 용성스님의 선풍진작 운동을 통해 청정가풍을 회복하고 쇄신하는 과정 등을 제시함으로써 조계종이 선의 가풍을 계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불학연구소는 삼국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의 조계종사는 내년쯤 발간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대구 성도절 법회 '따로'

지난 5일 대구시 프린스 호텔 리젠시홀에서 열린 '대구시 임오년 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에는 원로 화산 · 원명 스님, 동화사 주지 성덕 스님, 각 신도단체장 등 5백여 사부대중이 모여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임오년 한해를 시작하고 있었다. 이날 많은 스님들이 신년덕담을 했는데 그중 무공 전 동화사 주지스님의 말이 유독 귀에 들어왔다.



스님은 "올해 부처님 성도절 법회를 동화사 교구와 사원주지연합회가 각각 따로 개최하는데 너년에는 본귀환처하여 화합해 함께 봉행했으면 좋겠다"는 요지의 말씀을 했다. 또 "내것만 챙기자는 데서 불화가 생기고 남험담 하는데서 불화가 생기기 쉽다. 올해는 선거가 많으니 더욱 화합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부처님이 대각을 얻으신 납월 8일 성도절, 6년 고행 끝에 샛별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으신 날을 기념하는 성도절 법회를 사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기념한 곳이 대구 불교계다. 초파일은 어느 불교명절 보다도 다채롭고 행사도 많지만 정작 성도절은 초파일에 비해 기념하는 행사가 미미했는데 대구에서는 21년전부터 성도절 법회를 봉행해 온 것이다. 그런데 그 성도절 법회를 각각 열다니…

뒤에 알아보니 그동안 대구사원주지연합회에서 주관해오던 성도절 기념 연합대법회를 이번에는 동화사에서 주관해 20일 대구체육관에서 봉행하고, 사원주지연에서는 그 전날 전야제 식으로 다른 장소에서 법요식과 봉축 공연을 갖는다고 한다.

전야제와 본 법회로 각각 행사를 갖는 내막이야 있겠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다.

요사이 26개 종단이 모여 있는 종단협도 불협화음의 소리가 새나온다. 큰 종단은 큰 종단대로 장자다운 아량과 포용심있는 모습을 보이고 작은 종단은 작은 종단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협조적인 자세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불교단체가 생기는 것도, 행사를 갖는 것도 모두 불교 일을 좀더 잘 해보기 위해서이다. 불교발전을 위한 한마음이 보다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너무 각각의 이익만 셈하지 말고 명분과 실리를 살리면서 화합된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이경숙(취재 1부 부장)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불교와 선거**

1. 금년 각종 선거와 관련 불교계 종단 대표들이 '중립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①해야 한다 ②할 필요 없다

2.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불교계 행사에 참석하는 빈도가 늘것으로 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참석해선 안 된다 ②참석하되 정치색은 보이지 말아야 한다
③참석해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것도 무방하다

설문 참여: 1월 16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53호 9면에 싣습니다.

혜암종정 사리 86과 수습

6일 해인사서 다비식 … 3만 대중 '애도'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당 성관대종사의 영결 및 다비식이 6일 해인사에서 3만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종단장으로 거행됐다.

전국 본·말사에서 동시에 5번의 타종으로 시작된 영결식은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의 영결법요, 종회부의장 종산스님의 행장소개, 육성법문 청취, 원로회의 의장 법전스님 추도사, 영결사, 조사, 헌화 및 헌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영결사에서 "90년대 종단 변화와 개혁 속에서 스님의 원력과 뜻이 있어 이제 종단은 안정되고 발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니 그 슬픔은 끝이 없다"며 애도를 표했다.

종회의장 지하스님, 김대중 대통령,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한광옥 민주당 대표, 백창기 중앙신도회장도 조사를 통해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법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반듯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 하겠다"고 말했다. 영결식후 사부대중이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는 가운데 연화대에서 다비의식이 거행됐다.

☞ 관련기사 4 - 11면



◇7일 공개된 혜암 스님 사리.

한편, 7일 혜암 스님의 영골 등에서 총 86과의 영롱한 오색사리가 수습됐다. 혜암스님 사리는 13일부터 49재인 2월 17일 까지 원당암 미소굴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a.com

'직지심경' 영인본 특급호텔마다 전시

문광부 "한국문화 상징"

월드컵을 앞두고 이르면 내달부터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이 전국 60여개 특급호텔에 전시된다.

남궁진 문화관광부 장관은 10일 "월드컵 대회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앞선 우리 인쇄문화를 알릴 수 있는 직지심체요절과 팔만대장경 등을 호텔에 전시해 외국인들에게 문화국가로서 강한 이미지를 심겠다"고 말했다.

박양우 관광국장은 "직지심체요절과 팔만대장경 영인본 외에도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전시물을 선정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여수령 기자

태고종 개혁 본격화

17일 종회 종헌종법 개정안 등 심의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운곡)는 17일 오전 11시 신촌 봉원사에서 제84회 임시 중앙종회를 열고 종헌종법 개정안 심의 등 종단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날 처리될 안건은 △종단 화합을 위한 결의안 △종헌종법 개정 △총무원 부원장 선출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 추대 △총무원부장 인준 △각급 기관장 인준 △종단 주요 현안 등이다.

태고종은 이날, △중앙종회를 상 하원으로 이원화 △총무원장 선거자격과 선출 절차 개정 등 종단의 전반적인 제도개혁을 위한 대폭적인 종헌종법 개정에 들어간다.

한편 태고종 총무원은 △총무원출입금지 가처분 △종명(宗名) 사용금지 가처분 등 그동안 제소했던 민 형사상 고소건을 11일부로 모두 취하하고 비상대책회의 측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는 등 태고종 대 화합을 위한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a.com

현대불교 '새 기획' 지면이 바뀝니다 3면

人事말씀

大韓佛敎 曹溪宗 宗正 慧菴堂 性觀大宗師의 永訣式 및 茶毘式을 佛紀 2546年 1月 6日(陰曆 11月 23日) 가야산 해인사에서 宗團의 元老 · 大德스님과 재가불자 등 四部大衆을 모시고 宗團葬으로 嚴肅히 奉行하였습니다.

公私多忙하심에도 參席해 주신데 대해 일일이 찾아 뵙고 人事드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慌忙中 우선 紙面을 통하여 심심한 感謝의 人事를 드리오니 널리 諒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佛紀 2546年 1月 7日

四十九齋案內

慧菴堂 性觀大宗師 四十九齋를 다음과 같이 奉行합니다.

— 다 음 —

	장 소	일 시
초재	해인사 대적광전	1월 6일 오전 10시(음 11.23) 일요일
2재	"	1월 13일 오전 10시(음 12. 1) 일요일
3재	"	1월 20일 오전 10시(음 12. 8) 일요일
4재	"	1월 27일 오전 10시(음 12.15) 일요일
5재	"	2월 3일 오전 10시(음 12.22) 일요일
6재	"	2월 10일 오전 10시(음 12.29) 일요일
49재	"	2월 17일 오전 10시(음 1. 6) 일요일

■문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해인사 ☎(055)931-1001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해인사 원당암 ☎(055)932-7308

大韓佛敎 曹溪宗 宗正 慧菴堂 性觀大宗師 宗團葬 葬儀委員會

護 喪 법 전 葬儀委員長 정 대
執行委員長 세 민 門中代表 지 관
門徒代表 성 법 門徒一同

사 설

수행가풍 진작의 해로

금년은 종단 안팎으로 선거로 시작해 선거로 저무는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적으로는 6월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선거에 이어 국회의원의 재보선 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다. 교육계는 이 달 말의 강원도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경북과 광주 교육감 선거가 있으며, 전국 권역별로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조계종은 2월의 용주사 주지 재선거를 필두로 범어사, 동화사, 화엄사, 불국사, 마곡사, 대둔사 등의 본사주지 선거가 월별로 치러질 예정이며, 연초의 종정 추대, 10월경의 중앙종회 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동국대 총장 선거도 연말로 예정되어 있다.

선거는 그 자체가 민의를 수렴하는 성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크지도 않은 나라, 지역, 단체나 조직을 온통 분열과 대립의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지연, 혈연, 학연, 문중 등에 금권까지 가세하여 전국을 열병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불교계도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의 선거에서 수행자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민주제도란 미명 하에 정치권과 대동소이한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내부의 분열과 대립을 대가로 지불하고 말았다. 내적 역량을 극대화해야 할 선거가 오히려 수행공간과 풍토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는 국가적인 선거도 겹쳐있는 만큼 종단의 선거가 사회의 모범이 될수 있도록 그 어느때보다 출·재가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때일수록 수행종문의 가풍을 지킨다면 빛나는 한해가 될 것이다.

미래불교 비전 '군포교'

조계종 포교원이 2002년을 '군 포교 진흥의 해'로 선포하였다. 남성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씩 거치는 가장 중요한 황금어장을 방치해 왔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너무도 반가운 일이다. 인생에 있어 중요한 고비라 할 수 있는 군대 기간에 받은 종교적 감화는 신앙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러한 군포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그것이 포교원의 핵심 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군포교가 소홀히 되었던 것은 일반 신도들과 일선 사찰, 그리고 종단 차원의 무관심이라는 총체적 인식부족과 무관심 때문이었다. 일반 사찰과 신도들은 군인들이 제대를 하면 자기 사찰의 신도가 될 보장이 없다는 단견으로, 종단차원에서는 미래 불교에 대한 비전 부족으로 이 문제를 뒤로 미루어 놓았던 것이다. 개신교나 천주교의 군 포교 정책과 지원에 비하여 너무도 부족했던 우리 불교의 군 포교는, 포교의 효율성 이전에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하겠다.

이제 포교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군 포교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와 체제의 정비를 통한 지원이 구체적인 단계를 밟으면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종단 차원의 지원과 맞물려 일선 사찰과 신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일선 사찰과 신도들이 미래 불자들과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군포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불교계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명심했으면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조계종 올해는 선거의 해

8개 교구본사 주지·중앙종회 의원 선출 등

올해 조계종단은 선거로 시작해 선거로 저무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중앙종회의원 선거와 각 교구본사주지 선거, 동국대 총장 선거 등이 줄지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회 내 계파모임의 대립 등 선거열풍이 휘몰아칠 경우 자칫 교단의 이미지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일고 있다. 이는 예전의 일부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선거과열로 인한 폭력과 금품수수, 괴문서 배포 등이 발생할 경우 종단의 위상추락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여론이다.

여기에다 국가적으로도 4월 각 당 대선후보경선, 6월 4대 지방선거, 8월 국회의원 재보선, 12월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선거일정이 예정돼 있어 종단 내외적으로 선거열풍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정리한 올해 선거일정 예정표에 의하면 8개 교구본사 주지선거가 2월부터 8월까지 예정돼 있다.

주요 교구본사 주지의 임기가 대부분 올해와 내년에 만료됨에 따라 실시되는 본사별 산중총회는 2월 용주사주지 재선거를 시작으로, 범어사(3월), 동화사(4월), 화엄사 불국사(6월), 마곡사 고운사(7월), 대둔사(8월) 선거가 치러진다.

교구본사 주지선거의 경우 각 말사 주지와 문중스님들 전원이 참가하기 때문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10월 31일로 예정된 제 13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의 경우 9월 공고이후 10월 선거운동(21~30일), 후보자 등록(21~23일), 직능직 종회의원 선거(21~27일), 종회의원 선거(31일)등의 일정이 잡혀 있어 후반기를 후끈 달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직능직 의원을 제외하고는 각 교구본사 별로 2~4명을 뽑는다는 점에서 문중간 대립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립 동국대 총장선거도 12월에 있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국학원 이사장을 새로 뽑는 선거도 올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공금횡령사건으로 종단과 심각한 갈등 현상을 보이고 있어, 동국학원 이사장 선거가 치러 질 경우 이와 맞물린 종단 대표직 자리의 이동에 따른 선거도 예상할 수 있다.

조계종은 올해 선거와 관련 선거관련 자료집을 작성하고, 총무부와 호법부 실무자로 구성된 선거 실무팀 구성, 선거관련 사무장 교육 실시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성태용(건국대) 교수는 "현재 세속적인 선거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안전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며 "문중간 계파간 대결 일변도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스님들의 원만한 합의와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70여 직장직능·신행단체 관계자들이 5일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모여 올해 활동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동국학원 공금부정 조사

조계종 동국학원횡령 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장 영담)는 8일 중앙종회 사무처 회의실에서 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17일 오후 2시에 동국학원 공금부정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영배스님으로부터 조사 내용을 보고받기로 했다. 동국학원횡령 진상조사소위는 17일 횡령사고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18일 열리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 보고한 뒤 향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직장직능·신행·포교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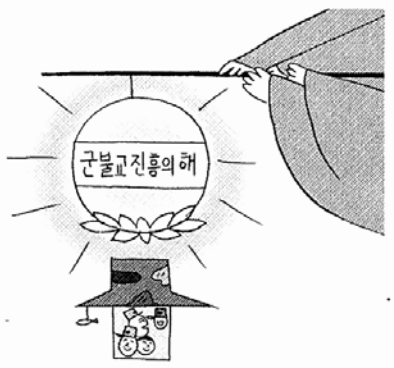
신년하례법회 봉행

직장직능·신행·포교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 해 동안 활발한 신행 활동을 다짐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5일 대전시 유성구 스파피아 호텔에서 '2002년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사)대한불교청년회 등 70여 단체 320여 불자들이 참석, 교리공부와 수련회 등으로 신심을 다지고, 불우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서원했다.

대전=오종욱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장병들을 불자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

올해는 불교방송 가청권이 2배로 확대되는 것을 비롯해 범패 불화 등 중요무형문화재 문하생에게 학점을 부여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계에 새로운 환경변화가 예고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정책 중 중요사항을 소개한다.

●전담직 종무원채용=진각종은 올해부터 업무 전담직 종무원을 채용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스승이 되기 전까지 종무를 보는 교화직 종무원이 주류를 이뤘으나, 올해부터는 업무 전담직과 교화직으로 구분한 종무행정 제도를 마련한다.

●연합 행자교육실시=조계종 교육원이 조계사 봉은사 등 서울지역 사찰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직할행자교육을 올해부터는 서울과 경기도 직할 사찰들을 하나로 묶어 실시한다. 시행 일정 및 횟수도 1일간 연 2회 실시해 오던 것이 2박3일간 연 4회로 늘어난다.

●문화재 지표조사 불이행시 처벌근거 마련=각종 개발 및 건설공사에 앞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문화재지표조사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건설공사의 대상 및 범위를 명백히 하고, 사업면적이 3만㎡미만인 건설공사는 시 도지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인정해제=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비윤리적인 범죄를 범했을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고령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보유자로서의 명예와 정부 지원은 지속되나 이수증을 발급해 주는 권한은 상실하게 된다.

●중요무형문화재 문하생 학력 학점 인정=중요무형문화재 문하생에게 지위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고 학점 은행제를 통해 최소학점 이수 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불교방송 가청권 2배 확대=춘천불교방송이 12월 개국될 예정이어서 경기 강원 지역의 방송포교에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송신소가 남산에서 관악산으로 이전해 올해 초부터 서해 최북단 연평도는 물론 충·남북 일대까지 가청권이 2배로 확대된다.

●불교위성방송 시청=불교TV가 3월부터 위성방송 본방송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에 케이블 선이 들어가기 않았던 깊은 산중의 사찰에서도 위성 안테나만 설치하면 불교 TV를 볼 수 있게 된다.

●만5세 아동 무상보육 확대=농어촌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해당되던 만5세 아동 무상보육이 농어촌 및 도시지역을 포함, 전국 저소득층 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불교계가 운영 중인 일부 '어린이집'의 아동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 자활후견기관 증설=보건복지부는 현재 169곳인 자활후견기관을 242곳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재활프로그램을 지원받던 시설도 22곳에서 48곳으로 대폭 늘린다. 현재 불교계 사회복지법인이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은 상주자활후견기관, 광주 송광복지관 등 10곳이 있다.

불교위성방송 3월부터 서비스
문화재지표조사 대상 범위 규정

제보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기자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신심있는 불자님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모연문

천주산 북장사는 신라 흥덕왕 3년인 833년에 진감국사 혜소스님께서 창건하신 1200여년 고찰입니다.

본래의 법당건물이 오랜세월 비바람에 썩고 기둥이 기울어 현재의 건물로 중수하였습니다.

법당에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이 좌우보처로 봉안되어 있읍니다.

숙종 2년에 모신 북장사 부처님은 경남·북 일원에서 제일크고 거룩한 부처님으로 부처님 생존시에 인도 교상미국의 우진왕(優塡王)이 부처님 형상과 똑같이 조성해 모셨다는 전단향나무로 조성한 높이 2m, 10cm의 영험하신 부처님 입니다.

저희 북장사에서는 아미타 삼존불의 개금불사를 발원하였습니다.

저희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에 전국의 신심있는 불자님의 정성스런 동참으로 복덕구족하신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소원성취 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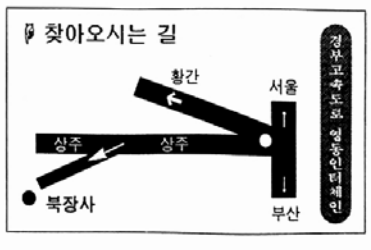
경북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북장사

주지 효담 합장

■문의 : ☎(054)533-5103 ■농협온라인계좌 743058-51-005335 북장사

찾아오시는 길



교 통 편

◇고속버스 : 서울→상주
※택시이용

◇기차편 : 김천→상주
※택시이용

◇자가용
경부고속도로 영동 인터체인지에서 상주쪽으로 오시다 북장사 표시판을 보고 들어시면 됩니다.

사찰 납골시설 '호응'

1년새 10여곳 늘어 총 32곳
"시설 설치 행정 간소화 시급"

문중(門中) 납골묘가 확산되는 등 납골문화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사찰 납골시설이 불자와 일반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공설 납골시설 이용 증가에 따른 사찰 납골당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납골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10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찰 납골시설은 모두 32곳으로, 지난해 초 20여 곳에 비해 1년 새 10여 곳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수용규모 측면에서 예년의 2~3배에 달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음성 한마음광명선원의 영탑은 지난해에만 150여기가 들어서는 등 괄목할만한 신장세를 보였다. 특히 광명선원은 신도와 불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인들의 신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경기 양평 갈월사 납골탑도 지난해에만 150여기가 늘어났으며, 한마음선원 진주지원도 매년 40~50기가 들어서는 등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대전 구암사는 작년부터 분양을 시작했음에도 벌써 300여기를 수용할 정도로 수요가 늘고 있으며, 경북 영천 만불사 역시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립 납골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경기지역의 일부 납골시설들은 운영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90년과 95년에 각각 납골당 운영에 들어갔던 연천 월성사와 오봉사는 오히려 지난해부터 찾는 이가 다소 줄었으며, 파주 상락원과 고양 장안사 납골당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시립 납골당들이 시설을 개선하고, 또 용미리 제3납골당이 들어서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데다, 1기당 1만5천원에 지나지 않는 시립 납골시설과 비교해 최소한 1백만원이나 하는 사찰 납골시설이 가격 경쟁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안사 사무국장 황동렬씨는 "경기지역의 경우, 지난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값이 저렴한 시립납골당을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올해에만도 2곳의 납골당을 건립하는 등 공립 시설이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며 "사찰 납골시설들은 서둘러 시설 개선 및 홍보 확장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사찰 납골시설들의 시설설치에 따른 행정절차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현재 경기 양평에 납골당 건립을 추진 중인 보륜정사 주지 혜공스님은 정부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설 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과 재판만도 몇 차례 벌였다. 혜공스님은 "환경영향평가, 도로법, 수질오염문제 등으로 17번이나 제출서류를 반려 받았지만 결국 지난해 소송에서 이겨 현재 공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경남 양산 천불사는 설립허가를 받기까지 2년 반이나 걸렸다.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농지법이 일반과는 달리 사찰에 엄하게 적용돼 자격요건을 갖추기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사찰의 관계자는 "납골시설 수요가 늘고 있는 마당에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시설건립을 어렵게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 법규정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불교계 납골시설 현황 ●

운영 사찰	종류	연락처
한마음광명선원	영탑	043-877-5000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영탑	055-744-1321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영탑	064-721-4662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영탑	055-345-9900
음성 미타사	영탑	043-872-0522
음성 고심사	영탑	043-878-5408
서울 능인선원	납골당	02-577-5800
시흥 영각사	납골당	031-478-7700
부천 석왕사	납골당	031-655-1044
파주 상락원	납골당	031-941-3416
고양 장안사	납골당	031-901-1954
고양 경은사	납골당	031-963-9254
고양 극락사	납골당	031-963-2678
연천 오봉사	납골당	031-834-2140
양평 보현원	납골당	031-774-5940
파주 악수암	납골당	031-952-4801
대전 구암사	납골당	042-822-2377
음성 용흥사	납골당	043-877-0743
의령 용국사	납골당	055-572-3233
밀양 부은사	납골당	055-353-8033
장성 백양사	납골당	061-392-7502
인천 천지정사	납골당	032-933-1988
연천 월성사	납골탑	02-739-4641
양평 갈월사	납골탑	031-774-7374
양평 벽계사	납골탑	031-771-7704
양주 삼보사	납골탑	031-871-0101
양산 천태사	납골탑	055-382-5515
가평 상락향수도원	납골탑	031-584-0657
포천 다보정사	납골당 · 납골탑	031-531-0560
의왕 오봉정사	납골당 · 납골탑	031-452-4814
영천 만불사	납골당 · 납골탑	054-335-0101
양산 천불사	납골당 · 납골탑	055-382-1463

조계종 종정 추대 어떻게

2월 18일 이후 논의될 듯

승랍 45년 · 연령 65세이상 대종사 '자격'

혜암 스님 49재 끝나야 원로회의서 후보 조율

조계종 10대 종정 혜암 스님의 열반과 함께 차기 종정추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기 종정스님 추대논의는 교단 관례상 49재(2월 17일)가 끝난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종헌 제 6장 '종정' 19~25조에 의하면 종정추대회의는 종정의 임기만료 3개월 전이나 유고시에 원로회의 의장이 소집하여, 원로회의 의원스님(19명)들과 총무원장, 종회의장, 호계원장이 추대하도록 규정돼 있다.

종헌에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종정을 추대토록 돼 있지만 표결로 가는 경우는 드물다. 22명으로 구성된 추대회의에서 후보를 사전 조율하여 만장일치로 추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정스님의 자격으로 '행해(行解)가 원만한 비구로 승랍 45년 이상, 연령 65세 이상, 법계대종사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선방출신으로 산중에 오래 머문 선승(禪僧)으로 한다'는 불문율에 의해 종정스님이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격을 갖춘 원로스님들은 5대 총림 방장과 각 사찰 조실, 원로회의 의원 스님들이다.

현재 고불총림 서옹, 해인총림 법전, 조계총림 보성, 덕숭총림 원담, 방장 스님과 조계종 전계대화상 범룡, 서울 칠보사 조실 석주, 김천 직지사 조실 관응, 서울 화계사 조실 숭산, 대구 팔공산 파계사 조실 고송, 황대선원 조실 성수, 곡성 성륜사 조실 청화, 인천 용화사 송담 스님 등이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원로스님들이다.

백양사 서옹 스님, 성륜사 청화 스님, 용화사 송담 스님은 수좌들로부터 물음에 답해줄 수 있는 선승으로 꼽힌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인 법전 스님은 조계종의 종풍을 확립한 봉암사 결사에 참여했고, 성철 · 혜암 스님으로 이어지는 해인사의 법통을 이었다.

범룡 스님은 오랜 동안 산사에서 수행에만 전념해왔고, 화계사 숭산 스님은 경허 만공 스님의 법맥을 잇고 해외에서도 높은 추앙을 받고 있는 원로이다.

직지사 관응 스님은 무문관 수행을 한 대강백이며, 송광사 보성 스님은 대표적 율사스님이다.

황대선원 성수 스님은 성격이 원만하다는 점, 파계사 고송 스님은 산중에만 살면서 수행해온 원로중의 원로이다.

수덕사 원담 스님 역시 선승으로 수행력이 높으며, 칠보사 석주 스님은 포교에 헌신하면서 불자들의 곁에 가까이 있었다는 점이 돋보인다.

조계종 한 관계자는 "혜암 종정스님의 49재가 끝난 이후에나 원로회의가 소집돼 추대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며 "현 집행부의 출범 후 종단이 평온을 되찾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종정 추대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현대불교 '새 기획' 지면이 바뀝니다

희망찬 2002년을 맞아 현대불교가 새로워졌습니다. '생활속의 불법 구현'으로 독자와 호흡을 같이하기 위한 보다 많은 정보제공과 한층 밀착된 기획으로 다양한 읽을 거리를 준비했으며 지면도 새롭게 배치했습니다.

창간때부터 큰 호응을 받아온 '가까이서 뵌 큰 스님'(12~13면)은 수행에 경책이 되도록 생생한 큰 스님들의 육성을 중점 게재합니다. 직장직능과 신행 단체들의 동향을 집중 소개하고, 해외불교계와 각 지역의 소식들도 심층적으로 보도합니다.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6면
꼭 돈이 많아야,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악화로 주위에는 도움을 받아야 할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 뿐 아니라 시간이나 봉사로도 자비행을 펼수 있습니다. 십시일반 마음과 물질을 나눈다면 우리 사회는 한층 밝고 살기 좋아질 것입니다.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나부터' 해봅시다. 도움을 받아야 할 곳, 후원하는 단체,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현대불교가 연결시켜 드립니다.

우리 절 우리 신도 6면
지역에서 활발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펴는 절을 한번 들여다보면 '내집처럼' 절을 돌보며 헌신적이고 신심이 장한 불자들이 꼭 있습니다.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는 '우리 절 신도'를 동행취재, 그들의 삶과 신행을 조명합니다. 주지 스님이나 신도회장 등의 '추천의 말'도 곁들입니다.

수행프로그램 엿보기 7면
최근 '제3 수행법'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실체 체험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다양한 수행법을 통해 깨달음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불자들이 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불자들의 관심을 끄는 다양한 수행법들의 속내를 살피고 그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실제 체험을 한 전문가와 본지 기자들의 생생한 수행체험기를 소개해 불자들의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행 365일…이제는 실천이다 7면
이론으로 아무리 해박하더라도 한번 실천함만 못합니다.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부처님가르침을 실생활에서 하나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1년 12달을 각각 '발심의 달' '하심의 달' 등 주제를 잡아 한주 한주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덕목을 제시하고 몸소 실천하고 있는 불자들의 현장을 중계합니다.

불자의 생각-네티즌 여론조사 1·9면
불교계 핫 이슈나 쟁점 사항에 대해 불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네티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미니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매주 공개합니다. 참가자들을 추첨해 선물도 증정합니다.

해외불교 10면
교통과 정보의 눈부신 발전으로 이제 세계는 하나의 마을과 같습니다. 한국에 불교를 전해준 중국과 인도 등 대륙에서 불교가 새롭게 도약의 기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 통신원과 현지거주 불자들을 통해 지구촌 불교동향을 신속하게 보도합니다. 또 해외신간불서와 해외 불교지도자의 동정도 소개합니다.

여성, 생활 19면
불교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불자들, 주부불자들의 관심사항을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자녀 불자만들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가정법회를 봉행하는 가정 탐방, 여성불자들의 활약상 등도 알려드리는 우바이들 전용난입니다.

건강, 레저 20면
고령화사회를 맞아 한층 건강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행은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른 건강상식과 생활 건강정보, 다이어트법 등을 소개합니다. 또 주5일 근무제가 다가옴에 따라 한층 늘어날 여가에 가족과 함께 도반과 함께 가볼만한 여행지와 기도처도 알려드리고 여행사가 추천하는 여행상품도 소개합니다.

네티즌, 청소년 21면
절에는 할머니 어머니들만 다니는 걸까요? 아닙니다. 유명한 탤런트, 가수, 영화배우, 축구선수, 농구선수, 골퍼, 중고등학생들도 즐겨 절에 다니며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이래서 불교가 참 좋다.". 또 네티즌들의 동아리도 순례하고, 암 등 만병의 근원으로 알려진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다양한 금연방법도 소개합니다.

장지현의 '잊혀진 가람 탐험' 24면(격주)
1600년 불교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에는 현존하는 유명한 절뿐 아니라 2000여곳의 폐사지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잊혀지고 방치됐지만 차츰 폐사지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금강산 신계사부터 제주의 존자암까지, 장지현 시인의 유려한 필치를 따라 폐사지 역사 탐험을 떠나봅니다.

그 절에 가면 24면(격주)
한국의 사찰에는 일본이나 중국, 티베트의 사찰과는 다른 독특한 아늑함과 멋, 맛, 법향이 감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국보급 문화재들의 아름다움에 더하여 그 사찰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멋과 맛을 캐내어 굳이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독자 여러분을 법향속에 담뿍 잠겨들게 할 것입니다. 사진가 박보하씨의 생생한 사진이 더욱 눈길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2002학년도 삼화불교대 학생모집

1.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개호복지사과	2년	■주간30명 ■통신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각 종단 승려 포교사 · 30세이상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신 이력서 전형 가능
불교학과	2년	■주간30명 ■야간30명 ■통신80명		
	4년	■통신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주간30명 ■야간30명		
	4년	■주간30명 ■야간30명		
포교사과정	2년	■야간30명		

2.학교연혁
1989.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 ·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사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본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0. 2. 제9회 졸업생배출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2. 2. 제11회 졸업생 배출(예정)

3.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개호복지사과 2급 자격취득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한의대) 본과 입학가능

4.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2002년 1월 25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우편당일 소인 유효)

5.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02)511-2026~8 FAX.02)511-2028
인터넷 홈페이지 : www.samhwade.com
E-mail : samhwadea@hanmail.net
· 일본동경분교 : TEL. 047-376-1321, 132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 화 불 교 대

한 의 과 대 학

1 남경중의약대학 ■석사 · 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 년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건강진단서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유학생 입학신청서 1통(소정양식) ◇여권용사진 3매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2년 1월 18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문의처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주소: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 화:25-6798167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
전화 : 02-511-2026~8 팩스: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문의처
135-887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화불교대

일주문



성도절 기념법회 법문

청화 곡성 성륜사 조실은 15일 광주 증심사에 초청돼 임오년 성도절 기념 법회에서 법문했다.



동광사 개원법회서 설법

정무 대구 법왕사 회주는 10일 개원한 법왕사 서울 분원 동광사 개원법회에 참석해 설법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일철 생명나눔 광주지부장은 17일 2시 전남대 병원에서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치료 성금 500만원을 전달한다.



제주교구 종무원장에

도성 제주 백우정사 주지는 27일 11시 취임식을 갖고,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장에 취임한다.



독거노인돕기 성금

성덕 불교자원봉사자연합회장은 17일 오후 2시 연합회 강북법당에서 독거노인돕기를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한다.



여성부 1주년 기념식 참석

능광 나눔의집 원장은 29일 삼성코엑스홀에서 열리는 여성부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다.



조계사 불교대서 강의

이근후 불교상담개발원장은 14일 오후 2시 조계사 불교대학 에서 '역전이를 극복해야 상담원이 된다' 주제로 강의한다.



조영호 국장 정년퇴임식

조영호 前 불교신문사 업무국장은 15일 오후 6시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정년퇴임식을 갖는다.

前 불교방송 상무 김병윤 씨



불교방송 상무와 불교텔레비전 이사를 지냈던 김병윤씨의 49재가 8일 수국사에서 봉행됐다. 지난해 11월 21일 향년 73세로 별세한 김씨는 조계종 재정과장, 교구본사연합회 사무국장, 불교신문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외국 노동자 인권 찾아주자"

임오년을 뛰는 불자 ② 경불련 외국인노동자센터 정진우 간사



"깜짝 놀랐습니다. 폭언, 폭행 및 인권유린, 임금체불 등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몽고 등지에서 온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처우는 차마 인간으로서 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사실을 알자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되찾아주자는 서원을 하게 됐습니다."

낯설고 물선 한국 땅, 열악한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정진우 간사(32). 정 간사는 오늘도 재생불량성 빈혈로 고통받는 베트남 출신 노동자를 돕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다.

"올 한해는 최근 김포에 개소한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를 정상화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인권상담, 열악한 산업현장의 과도한 노동 때문에 생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상담, 이밖에도 한글교실, 컴퓨터 교실, 문화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 간사는 "한국인들의 각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외국인 노동자 돕기는 일회성 행사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외국인 노동자와 김포지역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간사가 경불련에서 외국인 돕기에 나선 것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다. 학점이나 받으려던 수업에서 불교의 강한 흡입력을 느끼던 차에, 우연히 경실련을 방문했다가 시민운동을 하는 경불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때 마침 경불련은 외국인 노동자를 도울 운동가를 모집하고 있었고, 이때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일을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그는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쉽게 발견할 수 없었다. 정 간사는 외국인 노동자 상담을 하면서 함께 했던 불교 경전 공부를 통해서야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96년 네팔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한국에서 산재를 당해 오른손을 잃은 네팔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가 스스럼없이 저에게 오른손으로 악수를 청하더군요. 피해자인 그가 가해자의 나라에서 온 저를 그렇게 따듯하게 대할 수 있다니. 아, 이런 것이 바로 불교의 힘이고 원효스님이 말한 무애사상이구나. 마음의 수행, 관점에 따라 얼마나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가를 그의 태도가 가르쳐주었습니다."

김포에 문 연 '상담소' 정상화 힘쓸 것

그 때 정 간사는 "불교가 세상의 분열과 투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인권 노동문제를 해결할 길이 불교의 가르침 속에 있다"고 굳게 믿게 됐다고 말했다.

"불법에는 너와 내가 없다"는 정 간사는 '종교적, 민족적 차이를 넘어서 모두 함께 평화롭게 사는 세상'과 '한국을 찾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리안 드림 성취'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진각종 이미지 심는데 혼신"

신임 부산 경남교구청장 일헌 대정사



"부산 경남내의 젊은 스승님들과 뜻을 모아 부산 교계에 진각종의 이미지를 심는데 주력하고 싶습니다."

12월 20일 부산경남교구청장으로 발령을 받았으나 사실상 2002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일헌 대정사(49)는 '진각종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를 올해의 목표이자 과제로 정해 놓았다. 물론 내부적인 역량 키우기에도 소홀하지 않을 계획이다. 6살때부터 심인당을 다니며 진각종의 교리를 익혀 온 일헌 대정사는 "심인당안에만 머무는 교리에서 탈피, 적극적으로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행과 생활의 일치를 강조했다.

"진각종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을 연구 실행해 보고 싶다"는 일헌 대정사는 앞으로 4.8봉축 행사 참여, 시민대상 봉사활동 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부산교계의 각종 행사에서 진각종의 활발한 움직임이 느껴지고 그것이 곧바로 진각종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일헌 대정사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진각종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템플스테이 잘 운영됐으면…"

사법고시 준비생 정우종 군



자신이 공부했던 사찰의 불사에 참여하는 등 사찰과의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한 대학생 이야기가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다.

서울대 법대 3년 정우종(28) 학생은 경북 청송 대전사가 최근 탱화불사를 추진하자,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푼푼이 모은 돈을 보시했다. 정우종 학생이 대전사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해 3개월동안 대전사 암자인 백련암에서 공부하면서부터.

"주지스님께서 숙식은 물론 거쳐까지 아무 조건없이 제공해 주셨으니 보답을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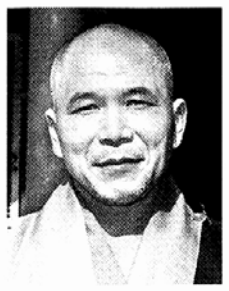
정우종 학생은 올해 3월에 있는 사법고시 준비에 한창이다. "합격하면 스님들께서 플래카드를 걸어주신다고 했어요. 대신 저는 겨울만 되면 추워서 앉아 있기 힘든 대전사 대웅전에 보일러를 놓아드릴 겁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것 외에 정우종 학생은 올해 또다른 소망이 하나 있다. "템플스테이가 잘 운영돼서 우리 불교가 세계에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바에 다시 오시어 나침반이 돼 주소서"

■ 혜암 큰스님을 추모하며

석지명 법주사 주지



혜암 큰스님, 해인사 영결식장에 마련되었던 스님의 영전에서 통곡하는 신도들을 보았습니다. 넋이 나간 듯이 먼 곳만 바라보는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보는 이들도 같이 울고 같이 넋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왜 그런 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종도들과 함께 소승은 스님을 존경하고 흠모해 왔습니다. 신문, 잡지사에서 수 차례 스님에 관한 특집을 꾸밀 때, 소승이 대담자의 역할을 띄고 장시간 묻고 답하면서 실제 참구와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싱싱한 법문을 듣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94년 이후 조계종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스님께서 어느 쪽으로 향하는 지를 먼발치에서 또는 가까이에서 유심히 관찰해 왔습니다.

스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든지 "적게 먹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은, 스님의 일거수 일투족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혈저하다 못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수행자의 모습을 지키셨지요. 장좌불와와 일종식을 실천하시면서, 깡마르고 꼿꼿한 형상과 짜랑짜랑한 음성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종단적으로 해인총림 방장, 원로회의 의장, 종정 등의 직함을 갖게 되셨지만, 모두 다 임기를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투시는 입적이 종정직을 빨리 버리려는 방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님의 化身 찾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스님께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적게 먹으면서 수행하며 가르치다 보니, 우리는 너 나 없이 스님께 크게 의지하고 있었지요. 수행 분상에서 난관이 있거나 종단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스님은 우리 모두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스님이 향하는 쪽으로 종도들이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이 바른 길,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길이라는 것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스님을 한국불교의 큰 등불, 별, 산, 기둥 등으로 비유해도 양이 차지 않습니다. 그 말들은 뭔가 찬탄하기로 작정하고 만들어낸 상투어 같이 들립니다. 스님의 불타는 구도심과 부득히 좌우를 선택해야 할 때에 보여주신 불가사의한 방향감각을 저 화려한 말들이 오히려 손상을 입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소승은 스님을 나침반으로 비유합니다만, 이 또한 스님에게 누를 끼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별을 하고 입을 연, 즉 상이 따르고, 그것은 모든 면에서 적게 먹고 살자는 스님의 가르침과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의 입적 소식을 듣고 산중 대중이 모여 문상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가풍을 잘 아는 많은 스님들이, 문상을 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욱 열심히 정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님이 고요를 보인 이 마당에, 스님을 가장 잘 추모하는 길은, 스님의 가르침과 바른 방향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스님, 도솔천이거나 서방 정토거나 아니면 다른 해탈 세계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옵소서. 어서 빨리 사바로 오셔서 우리의 또 다른 나침반이 되어 주소서. 스님께서 변장을 하고 오실 때, 우리는 얼른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걱정하지 마소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스님을 잊지 못하고, 스님의 또 다른 화신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소서.

스님은 영원히 우리의 나침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소서.

2002학년도 대원불교대학 입학안내

- 30년 전통 2000여 동문의 교계 최초의 불교 교양 대학 -



대원불교대학 전경



▷ 대중불교 운동의 실천



▷ 넉넉한 교육환경



▷ 불교전문 도서관 운영



▷ 30여 년의 전통과 2,000여 동문

■ 강의시간 3월 4일 개강 주 3일 출석, 5과목 강의 야간수업
■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휘옥(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사업(동국대), 김종욱(동국대)
■ 특별초빙교수 마일운스님(범패전승자)
■ 교육과목

1학년	1학기(14주)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불교문화특강
	2학기(14주)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4주)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현대불교윤리
	2학기(14주)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선사상 우리말불교의식

■ 모집 및 전형(2년제 야간 – 출강 · 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 서류전형
· 불교학 통신 00명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주민등록등본 1부(사진3매)	- 합격자 개별통지

■ 원서교부 및 접수 2002년 2월 20일까지(금) 본 대학 교무과
■ 입학식 2002년 3월 3일 오전 10시
■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성적우수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 大圓佛教大學 학장 혜거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756-7258

불기 2546년 성도절 기념
대원불교대학 동계 수련대회

○ 일 시 : 2002년 1월 18일 ~ 20일 (2박 3일간)
○ 대 상 : 대원불교대학생 및 일반 불자
○ 참가비 : 30,000원
○ 장 소 : 대원불교대학(서울 용산구 후암동 소재)
○ 초빙교수 및 강의 내용
* 장휘옥 교수 : 관세음보살 보문품강독
* 최봉수 교수 : 인도불교의 이해
* 김사업 교수 : 중관사상의 이해
* 허경구 교수 : 부파불교의 이해
* 마일운 스님 : 삼보통청 실수
* 민법현 스님 : 불교와 레크레이션
* 김종욱 교수 : 불교와 도
○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구, 간편한 운동복, 간단한 침구
* 수련일정 중 식사는 발우 공양을 합니다.
* 성도절을 맞이하여 철야용맹정진을 합니다.
* 수련 규칙 위반시 퇴방조치 합니다.

대원불교대학에서 일할 사무직원을 모집합니다

● 대 상 : 여사무원 1명
● 자 격 : 초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OA 사무가 가능한 자 [불교전공자 우대]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
● 제출기한 : 2002년 1월 31일까지

석불선양회 새해 첫 순례법회

한국석불선양회(회장 이귀인)는 6일 충남 서산 일대에서 새해 첫 순례법회를 봉행(사진)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92명 회원은 백제의 미소로 널리 알려진 서산 마애삼존불(국보 제 84호)과 보원사지(사적 제316호)를 비롯해 5층 석탑, 법인국사 부도, 당간지주 등을 보며 신심을 다졌다. 특히 한국석불선양회는 서산 마애삼존불 앞에서 '월드컵 성공 개최와 경제회복' 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이어 오후에는 아미타삼존불이 봉안된 개심사를 방문해, 도광스님의 법문을 청해 들었다.

한편 한국석불선양회는 2월 3일 충북 옥천 용암사에서 마애불 친견법회를 실시한다. (016)267-7945



금강메아리 북한산 환경감시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회장 공형수)는 6일 북한산 일대에서 '사찰 환경 감시' 산행을 실시했다.

이날 산행에서 30여 회원들은 회룡사와 원각사를 참배하고, 산악인 불자들이 올해 추진하는 '사찰 환경 및 문화재 보호' 캠페인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서원했다. 이어 회원들은 북한산 관통도로를 반대하는 농성현장을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했다.

금강메아리 허의섭 총무는 "산과 불교는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게 산악인 불자들의 생각"이라며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와 같이, 산과 불교를 지키려는 일련의 움직임 하나 하나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02)730-1080



운불련 대구지부 신년하례법회

한국운전자불자연합회 대구지부(회장 김주본)는 7일 오후 4시 운불련 대구지부 자체법당 혜림원에서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80여 회원 및 가족들은 '모든 이를 부처로 보는 하심' 을 주제로 한 대승원 주지 설호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올 한 해 동안의 활발한 신행 활동을 서원했다.

대구지부는 이어 운영회의를 열고, △홈페이지 개편 △전국 단위 수련대회 및 체육대회 참여 등을 올 주요 사업으로 결의했다. 이중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 대구지부는 현재 지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www.unbullyun.co.kr)를 2월까지 개편해 연합회 차원의 사이버 신행 공간으로 이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사 불자는 청소년 포교사"

엄범순 전국교사불자聯 홍보부장



교사불자회관 건립에 최선 다할것

"교사 불자는 청소년 포교사입니다. 청소년들의 초발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 불자들은 일반 불자보다 더 전문화 된 불교 소양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전국교사불자연합회가 결성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합회 홍보부장 엄범순(41 · 경기도 광주 한사랑학교 교사 · 사진) 씨. 그는 우선 청소년 포교를 책임져야 할 교사 불자들이 불교 공부에 열의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19일부터 21일까지 통도사에서 열리는 연합회의 겨울수련회에 보다 많은 교사 불자들이 참여해 마음공부 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엄 씨의 독려는, 그가 5일 조계종 포교원 신년하례법회에서 '청소년 포교' 의 공로패를 받은 점에서도 그렇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교사 불자들의 모임을 이끌며 남다른 신행활동을 펴 왔다는 점에서 힘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는 93년 충북 제천에서 장애인 특수학교인 청암학교에 재직하면서 '제천교사불자회' 를 결성했는가 하면, 96년과 97년에는 조계종 포교원이 직지사에서 개최한 교사 불자 연수에 참여했고, 그 인연으로 지금의 전국교사불자연합회의 전신인 서울 경인교사불자회 창립 멤버이자, 현재 연합회 홍보부장으로 대외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인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에서 10년간 단주를 차고 교단에 섰는데, 한번은 수학여행 때 반 아이들 모두 단주를 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청소년 포교를 진지하게 생각했고, 교사 불자들이 학생들에게 불제자다운 말과 행동을 보여주면 청소년 포교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얻었지요."

엄 씨가 지난 10년간 읽은 불서의 수는 헤아리기 어렵다. 불교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서를 손에 놓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염불에 적잖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엄 씨는 항상 목탁을 들고 다니며 화암 · 영인 · 성공스님 등 염불로 유명한 스님들의 염불 테이프를 듣는다. 사찰에 가지 않은 일요일 오전 내내 염불하는 것은 물론이다.

엄 씨는 "교사 불자들은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며 "연합회의 매 행사는 불교 소양을 더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교사 불자들의 좋은 교육의 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엄범순 씨는 "교사 불자들이 법회를 봉하고 참선을 할 수 있는 공간 가칭 '교사불자회관' 을 짓는 게 꿈"이라며 "연합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신행단체 담당=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연꽃심기 춘천 축제로

시청도반회 2002캠페인 전개

"호반의 도시 춘천에 연꽃 군락지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 곳의 불심 또한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18일로 창립 첫 돌을 맞는 새내기 불자회 춘천시청 도반회(회장 정상형 · 지적과장)가 '2002 연꽃심기 캠페인' 을 전개한다. 이 캠페인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활동이 부족한 춘천 불교계가 연꽃심기 축제를 계기로 신행의 활로를 찾을 수 있게 하자는 도반회의 계획에 따라 마련됐다.

"춘천에는 사찰도 불자도 많은데, 두드러진 신행 활동을 찾아보기 힘들어 안타까웠다"며 캠페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정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춘천지역 불자들의 신행 활동에 탄력이 붙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도반회는 캠페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삼운사, 부흥사, 정토사, 보타사, 무문사 등 춘천지역 15개 사찰 및 신행단체들과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연꽃심기' 를 춘천의 대표적인 불교축제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꽃심기 캠페인' 은 18일 춘천지역 사부대중의 참여를 권유하는 도반회의 '권선문' 배포로 시작된다. 권선문은 사찰과 신행단체 등에 배포되는데, 도반회는 이미 사찰과 신행단체로부터 '연꽃심기 캠페인을 적극 돕겠다' 는 협조를 얻었다.

도반회는 3월 말까지 연꽃심기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스님과 불자들의 접수를 받아, 4월 중 시 · 서예 · 다도 · 국악공연 등 문화행사가 곁들여진 대규모 법회와 함께 공지천 팔각정 및 수변공원 일대에 연근을 뿌릴 계획이다.

15개 사찰·신행단체 공조
공지천 일대등 연근 파종



이를 위해 도반회는 관할 행정당국으로부터 연꽃 파종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고, 연꽃 식생 가능성 또한 무안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 확인했다.

연꽃을 파종키로 한 공지천과 수변공원은 춘천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민 휴식처로,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이 춘천 곳곳에 피어있으면 일반 시민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효과도 클 것"이라는 기대도 모으고 있다.

"캠페인 참가자들에게 나눠줄 연꽃의 모종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 무안군청, 성남 정토사, 아산 인취사 등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정상형 회장은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도반회의 연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춘천 불교계가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돌돌 뭉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011)365-9591


◇정동진


◇이호식


◇고광선


◇오희창


◇장미화

1천원 보시등 이웃돕기 생활화

직장 직능단체들 새해사업 활기

불우이웃돕기의 생활화를 서원하며 임오년 새해를 시작한 직장직능단체들이 화제다.

매월 1천원 보시를 약속한 철도청불교협의회와 성북구청불자회, 지회마다 재소자 가정이나 복지시설 한 곳을 선정해 결연을 맺기로 한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매달 자신의 시간과 돈 5%를 봉사기금으로 적립하는 도봉경찰서 경찰불교회 등이 그들이다.

지난해 송년모임에서 신행하는 철도인 불자들의 연합회로 거듭나자는 데 공의를 모은 철불협(의장 정동진)은 올해부터 '2002 철마는 자비를 싣고' 라는 보시 캠페인을 전개한다. 매월 월급에서 1천원을 봉사기금으로 자동 적립하는 이 캠페인에는 철불협 회원 5백여 명 외에도 가족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성북구청불자회(회장 이호식)와 도봉경찰서 경찰불교회(회장 고광선) 역시 매월 후원금을 적립한다. 올해 처음 '매달 1천원 보시' 프로그램을 시작한 성북구청불자회 40여 회원들은 적은 돈이지만 보시 프로그램이 정착되는 대로 후원금을 늘린다는 방침도 세웠다. 지난해부터 'Give 5%'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도봉경찰서 경불회는 올해부터 회원들의 정기적인 보시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회장 오희창)는 올해부터 '1지회 1복지시설 및 1재소자가정 결연 맺기' 캠페인을 펼친다. 신행하는 불자 교정인상을 세우자는 취지에서 시작되는 이번 캠페인에는 연합회 산하 40여 지회에서 참여한다. 캠페인은 분기별로 봉사하는 게 아닌 매달 관할 지역의 특정 복지시설이나 재소자 가정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연합회는 교도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포교에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대한불자가수회(회장 장미화) 역시 봉사의 생활화를 서원했다. 소년소녀가장이나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자선콘서트를 개최해 온 대한불자가수회의 경우, 올해 전국 단위의 지부를 신설해 사단법인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매달 무료 콘서트를 여는 것은 물론 12월 한 달 동안 거리모금을 할 계획이다.

은평구립도서관 직원모집

삼천사 ·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은 은평구립도서관에서 불심을 갖고 근무할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인원	자격요건
행정(일반직)	7급	0명	회계, 재무, 인사, 서무 유경력자(공무원 7급 상당)
행정(사서직)	7급	0명	2급 정사서 - 도서관 관련분야 정규직 8년이상 (공공도서관 경력자 우대) - 공무원 8급이상에 준하는 직급에서 5년이상

▶제출서류
① 이력서 (사진첨부, 2002년 1월까지 이력사항 자세히 기입요망)
② 자기소개서(A4규격 2매 이내)
③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④ 성적증명서 1통
⑤ 경력증명서 1통(해당기관 발행, 직위/직급 기재)
⑥ 자격증사본 1매(사서 및 전산관련 등)
⑦ 주민등록등본 · 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력사항 기재)

▶급 여 :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수준에 준함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전형방법
① 1차 서류심사후 2차 면접시험 (2차 면접해당자는 면접일자를 개별 통보함)
②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방법 : 내방접수 및 우편접수

▶접수기간 : 2002. 1. 9.(수) ~ 2002. 1. 26.(토) 오후 2시까지 (우편접수시 마감 당일 오후 5시 도착분에 한함)

▶임용예정 : 2002년 2월중

▶근 무 처 : 서울 은평구 불광동 산59-32 은평구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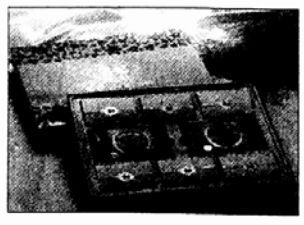
▶접 수 처 및 문의처 은평구립도서관 총무과
서울 은평구 불광 2동 산59-32 담당자 : 심정희 과장
☎ : (02) 385-1671(구내 202)
홈페이지 : www.eunpyeonglib.seoul.kr

삼천사 ·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서 성 운 합장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제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전국 대리점 모집 중

CUMIN·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김기혜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화엄동산 식구들에게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여성노숙자 쉼터 '화엄동산'

정신질환·신체장애로 고통

남편과 사별하고 시댁에서 버림 받아 가출한 박미정씨(가명, 45)는 공공근로일 마저 끊겼다며 고개를 떨군다. 그런 그녀를, 이수진씨(가명, 38)가 끌어안아 준다. 정신지체자인 이씨 역시 시어머니에게 쫓겨나고는 서울역을 전전하다 이곳에 들어 왔다.

겨울철 공공근로 끊겨

이렇게 가정과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모여 사는 서울 목동 여성노숙자 쉼터 화엄동산(소장 김기혜)에는 여성 39명이 살고 있다. 연령층도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다. 이들 거의 모두는 아픈 기억을 지니고 산다. 가족에게서 버림 받거나 남편과 아들의 폭력, 생활고 등으로 가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곳 사람들의 고통이 남다른 것은 대부분이 온갖 병을 한꺼번에 겪는 중복장애인들이라는 사실이다. 선천적인 정신지체는 물론 과대망상, 정신분열증, 정신질환과 알콜중독, 위장병 등 각종 정신질환 및 신체질환을 앓고 있다. 이들을 위해 서울시는 잠실시립병원과 보라매 병원 등 2곳을 지정해줬지만, 화엄동산과 거리가 너무 멀어 이용할 수 없다.

칼바람이 부는 겨울은 이들에게 있어 더욱 잔인하다. 여름철에는 공공근로 등의 일자리라도 있어 그럭저럭 '사람' 처럼 산다지만, 겨울에는 그렇지 못하다. 공공근로 마저 끊기는데다, 일반 기업이나 공장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딘 작업속도와 현저히 떨어지는 작업능률을 이유로 이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엄동산 김기혜 소장은 "매월 모자라는 운영비도 문제지만, 정신지체와 정신질환 · 신체질환 등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의약품 및 의료 후원과 함께 자활의 디딤돌을 마련해 줄 후견기업체가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화엄동산은 사글세 120만원으로 살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금 6백만원을 받고 있지만, 1천만원 넘는 한달 운영비엔 턱없이 부족하다. 부족분을 후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탓에 매달 들어오는 후원금은 몇 십만원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잘 먹고 따뜻하게 자는 것은 둘째치고, 생리대, 비누 등 생필품조차도 여유가 없다.

생활비 턱없이 부족

이들은 희망을 말하지 않는다. 그만큼 지쳐있기 때문이다. '사람' 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마저도 외면당하고 사는 사람들. 후원도 필요하지만 이들에게 더욱 절실한 것은 '자활의지' 를 북돋울 수 있는 일자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후원방법 : 전화 (02)2642-1363(화엄동산), 계좌 국민은행 068-25-0009-689(예금주 사단법인 우리는선우)

김철우 기자

신행 캘린더

1월 17일 (목)

■한국불교연구회 '교사불교연수회'=올 한해 동안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한국불교연구원은 오후 3시 경기도 광주 유마정사에서 입제식을 갖고 제24회 전국 초중등고교 교사 불교연수회를 연다. 이 연수회에는 불교연구원장 정병조 교수의 강연, 사경법회 등이 준비돼 있다.(02)3411-6167

1월 18일 (금)

■법장사 중고생 동계수련회=겨울방학도 어느새 반쯤 지나가버렸다. 이제 서서히 올 한해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확고히 해야 할 때다.

서울 법장사는 18일부터 통도사 반야사에서 동계 수련회를 연다. 이 행사에는 참선, 발우공양, 다도 체험 등이 준비돼 있다.(02)948-3111

■양정청소년수련관 '무료영화상영'=방학이 심심하기만 한 청소년 모여라! 부산 양정청소년 수련관은 지난 4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수련관 7층 소극장에서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18일에는 '빌리 엘리어트', 25일에는 '킬러들의 수다' 가 방영될 계획이다.(051)868-0750

■터사랑 '공주 · 부여 답사'=한국 불교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백제. 터사랑이 '백제의 고도 공주, 부여 찾기' 여행을 떠난다. 공주박물관, 무령왕릉, 부소산성, 낙화암, 영일루, 부여박물관, 능산리고분… 이정도만 봐도 백제문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출발은 아침 7시 30분. 안국역 4번 출구. (02)722-9747

1월 20일 (일)

■광주사암련 '생명나눔 강연'=진정한 자비란 무엇일까. 헌혈 캠페인, 장기기증 운동, 화장문화 장려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회' 법장스님의 법문을 들어보자.

광주사암연합(회장 벽상)은 오후 4시 광주 실내체육관에서 생명나눔 운동에 대한 법장스님의 강연과 청소년들을 위한 콘서트, 장학금 전달식을 준비했다.(062)376-3223

■맑고향기롭게 '알뜰시장'=재활용 의류, 무공해 세제류, 우리 먹거리 등을 팔아 수익금 전액으로 불우 이웃을 돕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환경도 지키고 이웃도 돕고 필요없는 낭비도 줄이고…

'맑고 향기롭게' 는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서울 성북 길상사 앞 마당에서 알뜰시장을 개설한다.(02)3672-5945

1월 21일 (월)

■봉축위 '2차 봉축등 강습회'=성도재일, 열반재일, 출가재일, 부처님 오신날. 가정마다 부처님을 기리는 봉축등을 달아 보는 것은 어떨까. 흔히 볼 수 있는 연꽃등부터, 올해에는 월드컵도 있으니 축구공 모양 등까지 만들어 보면 더욱 좋겠다.



◇봉축위가 연 1차 강습회에서 월드컵을 기념한 동자승등을 만드는 모습.

조계종 봉축위원회는 25일까지 서울 불교회관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2차 봉축장엄등 제작 강습회를 연다. 이 행사에는 참가자들이 법륜등, 동자승등, 왕범등, 법고등, 원하는 모양의 등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다.(02)725-66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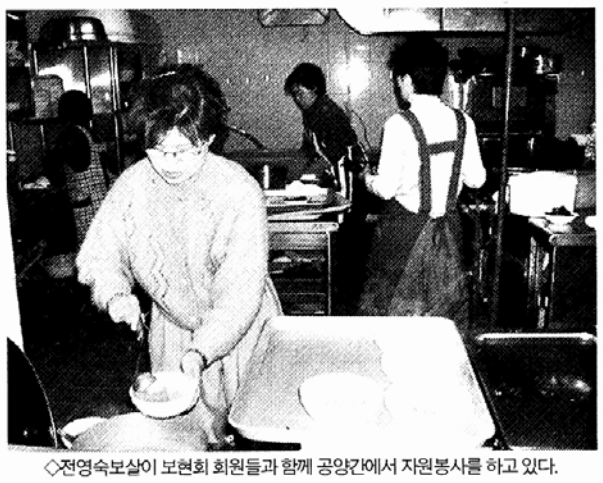
회장임에도 궂은일 도맡아 처리

우리 절 우리 신도 — 길상사 보현회 전영숙 회장

10일 밤 11시. 하루 종일 길상사 절 살림을 꾸리느라 옷을 벗기도 귀찮을 만큼 피곤하지만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탐색창을 연다. 혹시 내일 보현회 회원들에게 해줄 좋은 말이 없을까, 내일 만나는 불자들에게는 어떤 법구를 말해주면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 해탈심 전영숙 보살(55)은 졸음을 참아가며 화면을 바라본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남편도 이젠 후원

전 보살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다. 새벽 5시 일어나 9시까지 남편과 아들을 직장으로 보내고 집안살림을 정리한 후, 곧바로 서울 성북구 길상사에 가서 점심공양을 준비한다.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공양간에서 바쁘게 일한 후 자신은 오후 3시가 돼야 간신히 점심을 먹는다. 4시부터는 길상사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저녁 공양과 내일 쓸 음식을 미리 준비한다. 그런 후 경조사가 있는 회원들을 일일이 챙기고 나면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빨라야 7시. 저녁 준비와 함께 이런저런 잔일을 하다 보면 10시가 훌쩍 넘는다.



◇전영숙보살이 보현회 회원들과 함께 공양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이러기를 4년째. 당연히 길상사 여기저기 전 보살의 손때가 묻지 않는 곳이 없다. 김치와 된장에 전 보살의 손맛이 들어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설법전 문지방이며, 극락전 창호지며, 어느 하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작년부터 길상사 자원봉사자 모임인 보현회 회장 소임을 맡은 이래 전 보살은 공양간 봉사활동에서부터 수천 명이 참석하는 대중법회나 수련회의 뒷일을 도맡아 처리해왔다.

보현회 회원 대덕화 보살은 "전 보살은 회원들에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죠. 가족이나 어려운 일을 하는 회원들에게 찡그린 표정을 안 보여줘야 한다고 그래요. 또 궂은 일이나 힘든 일은 자기가 해야 한다고 나서죠. 회원들은 전보살의 그런 모습을 보고 더욱 신이 나서 일을 해요"라며 전보살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그러나 전 보살이 이렇게 도반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기까지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처음에는 평생 교회를 다니신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마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남을 위해 봉사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차츰 이해해주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남편이 먼저 공양 때 합장을 할 정도죠"라며 웃음짓는 전 보살은 오늘의 길상사를 있게 한 일등공신이다.

전 보살이 길상사 신도가 된 것은 97년 길상사 개원법회에 참석하면서부터. 여고시절 학내 불교동아리에 들어가면서 불교에 입문한 뒤 참선과 수련회 등 다양한 신행활동으로 불심을 키워온 전 보살은, 지금은 보현회의 왕언니로 통할 만큼 신심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백 명씩 드나드는 길상사의 살림을 도맡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 게다가 보현회 회원들 간의 단합에도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몸이 두개라면 좋을텐데…'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다.

올핸 꼭 선방가서 참선수행 할 터

보현회 활동에 시간을 많이 빼앗긴 나머지 경전 한 구절 보기 힘든 날이 많아지면서 요즘들어 전 보살은 부처님을 멀리하며 사는 것 같다는 생각에 슬그머니 걱정도 된다고 한다.

"회장 소임은 맡고 있는 이상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겁니다.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선방에서 참선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전 보살은 올해 이런 서원을 세웠다. 이제부터는 바쁘다는 핑계로 불교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추천의 말

덕조 스님 길상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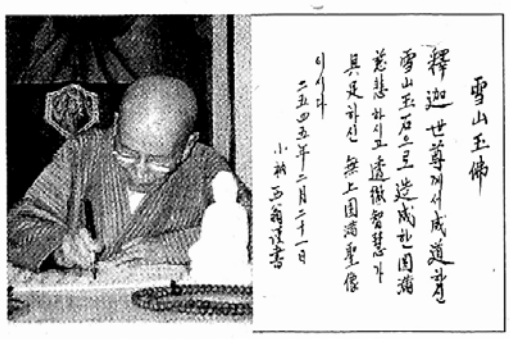


전영숙 보살은 어떤 일을 해도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다. 회장을 맡기 이전부터 길상사의 대소사를 책임지는 한편, 자원봉사자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길상사 보현회 회장으로서 능수능란하게 회원들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있다.

자원봉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살심, 자비심이 넘치고 자기희생이 가능해야 할 수 있다. 길상사가 처음 개원했을 때부터 법회는 물론 새벽기도, 수련회에 꼬박꼬박 참석하며 길러온 신심을 바탕으로, 전 보살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궂은 일을 먼저 나서서 하려고 한다. 이것은 전 보살의 돈독한 신행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길상사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맑고 향기로운 분위기는 바로 전 보살과 같은 훌륭한 신도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 www.korea buddha.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서울(02) 864-8834 부산(051) 637-2333
Fax 서울(02) 839-2185 부산(051) 637-6888



고불총림방장 서옹 큰 스님 /추천서

野外法壇 16羅漢像

다시 떠오르기→마음 되찾기→깨어남

수행프로그램 엿보기

고준환 교수의 아봐타 체험기

1. 아봐타란 무엇인가
2. 수련과정
3. 아봐타의 메시지





◇불교 전통 수행법인 '위빠사나의 현대적 응용프로그램'으로 평가되는 아봐타는 수련자의 의식수준에 맞는 자발적인 의식개발을 중요시한다. 사진은 남양주시 봉인사 한길정진원에서 5일부터 8박9일간 진행된 아봐타 합동코스에서 상담중인 수련생들.

현대불교신문이 필자에게 원고를 청탁하면서 담당 김재경 기자는 먼저 물어보기를 "아봐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수행법이 불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불교와 다르거나 위험성도 있을 수 있다는 불교계의 염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답변을 하였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류 최고의 성자이고, 그 가르침은 완전하다. 그러므로 그 가르침에 문제는 없다. 다만 수천년이 흐른 지금 여기의 불자들이 붓다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여 붓다의 길을 가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자기에 맞는 수행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붓다의 가르침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에게 맞는 새로운 수행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배운 뒤의 창조적 적용 여부는 각자에게 달린 일이다."

인간은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기를 원한다.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 인간에게는 낙(樂)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세간락과 열반락이 있다. 내가 즐겁게 살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Who am I?)를 알고, 우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여기에 이 뭐꼬?(是甚麽? What is this?) 화두가 갖는 의미가 크다. '생사를 넘어 자유자재로운 존재를 깨달음-한 순간의 진아 발견',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아봐타 수행프로그램은 무한을 향한 실험정신으로 충만해 있다. 무한에서 나온 유한자가 하나 하나 한계를 넘어 무한자에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공부로 치면, 마음 알기(깨어있기), 마음 다루기(기쁜 마음 되기), 마음 나누기(마음 교류로 더불어 삶, 相生)라고 할 수 있다.

아봐타 프로그램의 처음은 '아봐타 코스'다. 1, 2, 3부로 짜여진 아봐타 코스는 보통 7-9일간 수련하는데, 1부는 다시 떠오르기(resurfacing, 무한자에서 나온 유한자가 무한자로 떠오름), 2부는 마음통제 되찾기, 3부는 깨어남의 코스이다. 참가자 자신이 의식을 탐색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는 현실을 낳게 한 스스로의 신념을 지우거나, 수정하고 바꾸어, 새로운 현실을 뜻대로 창조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데, 많은 참가자들이 놀라운 변성체험(變性體驗)을 고백하고 있다. 아봐타 코스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자격 있는 아봐타 마스터에게 연락하여 안내 받으면 된다.

참가자 스스로 의식 탐색
원하지 않는 현실 수정
'뜻대로 사는 길' 터득

한국엔 아봐타 3천여명
마스터 500여명 활동

마스터 코스에는 A코스와 B코스가 있는데, B코스는 전업(專業) 아봐타 마스터 코스이다. 아봐타 마스터가 되면 '뜻대로 사는 길'을 가면서 아봐타 안내비로 생활문제도 해결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위저드(Wizard) A코스는 궁극적 과정이나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며, 그 B코스는 트레이너(Trainer)코스이다.

개인적 주체적 체험에 가치를 부여하는 아봐타 수련생들이 수련을 마치고 밝힌 소감들을 몇 개 추려보면 활기 있고 생동감 넘치는 신선한 체험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게 될 것이다.

▲필자
아하, 그것!

모든 아봐타들에게 감사한다. 우리는 유일자, 즐기자.

▲희광 스님
아봐타는 구도자나 모든 종교지도자들이 필요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회지도자들이 아봐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공동의식이 변화될 수 있을 테니까요. 나는 나의 비판적 에고를 아봐타를 하고 나서야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에고의 흙탕물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취산
미국으로 가서 산지 5년만에 아봐타를 만났다. 또 그저 그렇겠지 하는 심정으로 대외비 교재 몇 줄을 읽다가 나는 그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아아 부처가 미국에 와있었구나!' 저만치서 지키고 있던 선생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때의 그 치기어린 탄성을 나는 지금도 잊을 생각이 없다. 어설프기는 했으나 꽤 길었던 나의 구도(?)는 거기가 끝이었다. 더 찾을 것은 없는 것이다. 이제는 그저 갈 뿐, 신나게 끊임없는 변화만이 절대의 항상인 것을 다 알면서…, 내가 금생에 내 나라 내 형제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줄 수 있다니, 이건 그야말로 부처의 자비, 하느님의 은총이다. 고맙습니다. 이미 해탈에 있는 나, 너, 그를 일깨워주는 당신은 누구? 있는 것은 누구인가?

▲박함월
업은 아기 찾아 헤맨 지 몇 생인가? 눈을 얻었으니, 즐기기만 남았네. 하릴 없는 사람이여! 하늘에는 기러기 날고 바다 밑엔 물고기 뛰네.

▲Michel Langnieux, Paris
자기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싶은 뜻이 있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다! 50년씩 수도원에 들어가 있을 필요도 없다! 앞으로 1만년을 윤회하며 다시 태어날 필요도 없다! 아봐타를 하라! 깨달음은 하나의 선물. 그것은 가능하다. 바로 지금!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놀랍게도 바로 지금 가능한 것이다. 그것을 붙들라. 그것은 당신을 위해 서있다.

한국에 처음으로 아봐타를 소개한 책자 〈창조학〉(금비문화사 刊)을 번역하여 출판하고, 한국인으로서 첫 아봐타가 된 분은 취산(翠山) 박영철 선생이다.

취산 선생은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생명의 실상〉 〈갈매기 조나단〉 등을 번역, 소개하고 〈화엄경〉을 해설하며, 〈밝은 생활사〉를 세워 구도자를 안내한 불자이고 도인이다. 그는 서기 1992년 3월 24일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미국인 마스터 웨스트레이크(Richard Westlake)씨로부터 아봐타를 전수받았다. 한국인 아봐타 마스터가 처음 탄생한 것은 1992년 12월 13일 플로리다 주 올랜드 마스터 코스인 바, 모두 세 명인데 박영철(취산 마스터), 필자(아하 마스터), 승금철(대범 마스터, 취산의 사위) 씨 등이다.

한국인으로 처음 위쟈드 코스를 마친 사람은 1994년 1월 29일 플로리다 주 올랜드에서 박취산, 김용성(전 한미친선협회 사무총장), 필자, 고병민(금비문화사 사장) 씨 등 네 명이다.

그 뒤로 아봐타는 한국에서 붐이 일었고, 불교계에서는 동준 스님, 전 대중불교 편집장 김희균 씨 등이 잇따라 아봐타 코스에 참가했으며, 1996년 5월엔 신라 고도 경주에서 아봐타 마스터 코스가 열려 미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이태리, 브라질 등에서 온 외국인 30여 명을 비롯하여 모두 150명이 참가하였다. 현재 한국에는 약 3000여 명의 아봐타가 있고, 아봐타 마스터는 약 500여 명이 있다.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나의 초발심 시절

서돈각 불교진흥원이사장

1월-발심의 달
- 원(願)을 세우자
- 봉은사 새신자전법회
- 나의 초발심 시절
- 초발심자경문 공부현장
- 매일 발심하는 불자들

"9살때 부처님과 만난 후 신문서 사진오려놓고 절해"



"부처님이 그렇게도 좋았었나봐. 내가 9살 때, 당시 일본에서 나온 신문에 부처님 사진이 실려 있더라구. 그래서 그걸 오려 뒷면에다 두꺼운 마분지를 덧붙이고서 안방 벽장에 모셨지. 먹을 게라도 생기면 부처님 사진 앞에다 갖다 놓고는 절을 했었지."

대표적 재가원로로 평생을 불교발전에 헌신해 온 대한불교진흥원 서돈각 이사장(82세)은 초발심을 일으키게 된 동기를 말하며 빙그레 웃었다.

도반 있어야 수행가속

서 이사장의 발심은 약관의 나이인 10살(1930년) 무렵이었다. 그는 대구시 덕산동에 있는 덕산정(현 관음사) 불교청년회에 나가 청년들 틈에 끼어 법회를 보았다. 그러던 중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목련존자의 얘기를 다룬 '불교연극'에 참여하면서 발심이 신심으로 굳어졌다.

1946년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교 전신) 법학과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 생활을 할 때도 그의 신행은 한국 유학생 불교학생회 활동으로 계속 이어졌다.

"처음 발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끌어 주고, 밀어 줄 도반이 있어야 돼. 참선도, 절도, 염불도 함께 해야 신심 나는 법이거든. 내가 서울대학교 법대생 불교모임인 '법불회(法佛會)' 지도교수를 맡았을 때, 먼저 몸으로 신행하는 모습을 보이고서 학생들에게 불교 얘기를 해줬지."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재직시절, 불교에 관심은 있지만, 잘 몰라 기웃대는 법불회 학생들에게 서 이사장은 특별히 불교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가 선택한 지도방법은 항상 108배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

서 이사장은 또 일요일 아침이면 자신의 집 2층 다락방에서 학생들과 참선을 했다. 이 때 모임이 대불련 태동의 시원이 됐다.

"불교는 실천이 가장 중요해. 입으로 말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먼저 실천한 다음에야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스님들의 법문이 마음으로 다가 올 수 있거든. 부처님 가르침이 온 중생을 구제할 영원한 종교임을 확신할 때 불자로서 참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야. 그럴려면 실천하는 불교인이 돼야해."

초발심 그대로

서 이사장은 또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그 가치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못하면 죽은 가르침이 된다"며 "항상 개개인의 수행과 공부가 올바른지 돌아보고 삼보공경의 자세, 재가불자의 계율과 덕목, 생활가례의 확립 등 참불자로 살아가는 데는 발심했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김철우 기자

이것이 궁극의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

붓다의 길 오쇼 법구경 시리즈 1~12

The Dhammapada

붓다의 법구경은 'dhammapada(담마파다)'라고 불리워진다.
이 이름은 이해해되어야만 한다.
'dhamma'는 전 우주가 맞물려 돌아가게 하는 궁극의 법, 로고스를 의미하며,
'pada'는 길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구경은 궁극의 법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는 귀중한 경전을 뜻한다.
붓다는 이것을 이렇게 말한다,
아에스 담모 사난타노 (Aes dhammo sanantano)
- 이것이 그 법(法)이다, 영원한, 오랜 그리고 다함이 없는.

현재 1~6권까지 출간되었으며,
7권~12권은 매달 계속 출간됩니다.



신간!!!



부록 : '이것! 대나무가 전하는 말' CD(60분)
이 시리즈 1권에는 마치 대나무 숲 한가운데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아름다운 연주곡 CD가 들어 있습니다.

오쇼 | 신국판 | 각 권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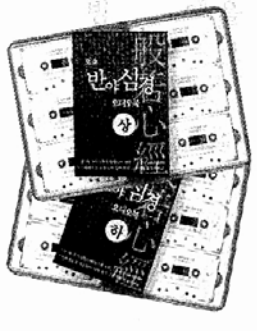
깨달은 이의 목소리로 듣는

반야심경 오디오북 상 하 출시!!!

총 16시간!

이 오디오북은 한국 최초로, 인도의 깨달은 스승 오쇼의 반야심경 강의를 한국어로 더빙, 스테레오로 녹음되었으며, 좌우 스피커를 조절하여 영어, 한국어, 그리고 동시에 들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신간!!!



.....
그러므로 사람은 프라즈나파라미타를 알아야 한다,
그 위대한 주문(呪文)으로, 위대한 지식의 주문으로,
최고의 주문으로, 필적할 것이 없는 주문으로,
모든 괴로움을 진정시켜 주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진리 속에서 -
무엇 때문에 잘못될 수 있겠는가?
프라즈나파라미타로 인해 이 주문이 전해져 왔다.
그것은 이러하다:
가 버렸다, 가 버렸다, 저 너머로 가 버렸다, 저 너머로 완전히 가 버렸다,
오, 무슨 깨어남인가, 알-하일(all-hail)!
이것은 완벽한 지혜의 심장부를 완성시킨다. - 경전 중에서 -

* 각각 6개의 테잎(5개 90분, 1개 40분)과 1권의 해설서가 들어 있다(각 30,000원).

"깨달은 스승, 오쇼의 부드럽고 핵심을 꿰뚫는 목소리는
책으로 전해질 수 없는 강의 당시의 생생한 현장감을 한층 더해 준다."

般若心經

전화 02) 711-4227,8 | 팩스 02)711-4229 | www.goldenflower.co.kr | 도서출판 황금꽃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⑩약초유품 ❷약초유

약초유품에는 쿠마라지바(鳩摩羅什)가 번역한 〈묘법화〉에 누락되고 없는 비유가 있다. 해와 달의 비유(日月喩)와 작병자의 비유(作甁者喩), 생맹인의 비유(生盲人喩)가 그것인데, 산스크리트 본(梵本)과 〈첨품법화경(添品法華經)〉에는 있다.

이 누락되어 알려지지 않은 세 가지의 비유 가운데, 해와 달 비유와 특히 병(甁) 만드는 사람의 비유를 소개할까 한다.

"카샤파(迦葉)여, 여래는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불공평하지 않다. 마치 해와 달빛이 모든 세간을 비춰,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또는 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방향(芳香)을 내뿜는 사람이나 악취를 내뿜는 사람을 불문하고, 어떠한 곳에서나 한결같이 비춰 얼룩이 없는 것과 같다. 참으로 이와 같이 완전히 깨달음에 도달한 여래가 놓는 부처님의 지혜와 의지의 광명은 다섯 갈래의 운명을 더듬어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빛나고, 바른 가르침은 각각의 의향(意向)에 따라서 위대한 탈 것(菩薩乘)이나 독각의 탈 것(獨覺乘) 이나 성문의 탈 것(聲聞乘) 등을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공평하게 가르쳐 준다. 또 여래의 지혜 광명은 과부족이 없어 그 결과 모든 사람은 복덕과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런 경우 카샤파여, 세 가지 탈 것 즉 세 가지의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사람이 따로따로 행동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까닭에 세 가지의 가르침(三乘)이 설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자 장로 마하 카샤파는 세존에게 다음과 같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세 가지의 탈 것이 없다면 어찌하여 현재 성문이라든가, 독각이라든가, 보살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까."

이에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카샤파여, 마치 도공이 같은 점토로 여러 가지의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경우, 어떤 것은 설탕 그릇이 되고, 어떤 것은 요구르트 그릇이 되며, 어떤 것은 버터(乳酪) 혹은 우유의 그릇으로 되고, 또 조악한 것은 오물을 담는 그릇이 된다. 이와 같이 사용되는 점토에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담는 물건에 따라서 그릇의 종류가 구별될 따름이다. 참으로 이와 같이 오직 하나의 탈것인 부처님의 탈 것만이 있을 뿐, 제2의 탈것도, 제3의 탈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들은 장로 마하 카샤파는 세존에게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만일 여러 가지의 의향을 가진 사람들이 3계에서 벗어났다고 하면 그들에게 오직 하나인 깨달음의 경지가 있는 것입니까, 둘 혹은 세 가지의 깨달음의 경지가 있는 것입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가르침이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깨달음의 경지는 열리는 것이다. 따라서 오직 하나인 깨달음의 경지가 있을 뿐, 둘 혹은 셋은 없다."

이에 대한 게송이 있다.

도공이 도기를 만들 적에 똑같은 흙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설탕이나 우유나 요구르트나 물 등의 그릇이 되는 것같이,
어떤 것은 오물의 그릇이 되고, 어떤 것은 버터 그릇이 되지만,
도공은 똑같은 점토를 가지고 갖가지 그릇을 만든다.
어떤 물건의 그릇이 되는가는 담는 물건에 따라 정해진다.
이와 같이 세상의 인간에게는 차별이 없지만, 여래는 그들의 의욕에 따라 인간을 구별하는 것이다.

▩무설정사 조실

깨달음의 경지는 오직 '하나'

용도 따르는 그릇처럼 의욕이 인간 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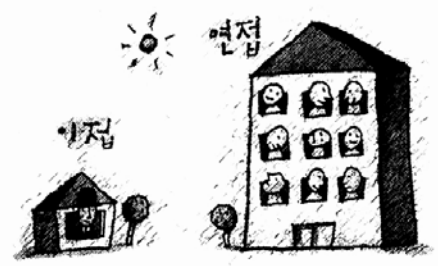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부분과 전체는 유기적 순환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우주 ⑫

이접과 연접

우주 내에 한 물체를 가져다 놓는다 하자. 그러면 이 물체가 다른 물체에 미치는 인력의 범위는 우주 공간 전체에 걸치게 된다. 이를 중력장(重力場)이라 하며, 가까이 있는 물체는 큰 인력을 받고, 멀리 있는 물체는 인력이 약한 인력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주 내에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간에 인력을 미치는 중력장 내에 존재하고, 물체들이 움직임에 따라 중력장 내에서 힘의 분포가 바뀐다.

수많은 별들이 모인 성단이나 은하는 별들 사이의 인력으로 형성되는 일반 중력장을 가진다. 이것은 마치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마련되는 제도적 장치와 같은 것이다. 개인이 사회제도에 따라 생활을 영위하는 것처럼 별들도 일반 중력장의 영향 하에서 개별적인 역학적 진화를 이어간다. 이때 별들이 서로 가까이 지나면서 미치는 국지적 인력의 섭동이 별의 실질적인 진화를 이끌어 간다. 두 별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들 사이에 미치는 인력의 영향이 매우 적어 서로 독립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 이들은 떨어져 있는 이접(離接)관계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서로 큰 인력의 섭동을 미쳐 원래 운동 방향과 속력을 변화시키는 상호 연관된 연접(連接)관계가 된다. 이처럼 성단 내에서 별들이 서로 간에 인력을 주고받는 연접관계를 지나면서 별들이 초기에 지니고 있던 운동학적 고유 특성이 사라지고 대신에 성단 전체의 특성이 형성된다. 그러면 각 별의 특성은 성단의 특성에 의해 규정된다. 다시 말하면 유기적인 부분들(다자)이 전체의 특성(일자)을 규정하고 전체는 부분의 특성을 규정하며, 동시에 부분의 변화는 연접관계를 통해 새로운 전체적 특성을 형성해 간다. 이처럼 부분과 전체는 상호간에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순환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안정된 상태로 이행해 가는 것이 자연의 조화이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자. 지구를 비롯해 모든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태양 주위를 돈다. 이러한 주기적 운동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하는 태양의 강한 인력에 의해 규정되는 일반 중력장에 기인한다. 지구는 이러한 일반 중력장 내에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지만 가까이 있는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등의 여러 행성들로부터 계속 섭동을 받는 연접관계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지구의 운동학적 특성이 조금씩 변하게 되어 10만년 주기로 태양 주위를 도는 타원궤도의 모양이 원에 가깝게 둥글다가 또 럭비공처럼 길쭉하게 변한다. 궤도가 길쭉해질수록 지구-태양이 가장 가까워지는 근일점 거리는 더 줄어들고, 반면에 지구-태양이 가장 멀리 떨어지는 원일점 거리는 더욱 늘어난다. 지구 북반구의 겨울철은 지구가 태양에 가장 가까운 근일점 부근을 지날 때며, 여름철은 태양에서 가장 먼 원일점 부근을 지날 때다. 만약 지구궤도가 아주 길쭉한 타원궤도가 되면 북반구의 겨울철은 좀더 따뜻해지지만 반대로 여름철은 덜 덥게 된다. 그래서 겨울철에 눈이 많이 쌓이고 땅이나 강이 얼게 되면 이들이 여름철에 잘 녹지 않게 되며, 동시에 얼음과 눈에 햇빛이 많이 반사되어 지구 밖으로 나가므로 지상의 온도는 더욱 떨어지게 되고 이 결과 빙하기가 닥치게 된다. 결국 10만년 주기로 지상에 빙하기가 닥치는 원인은 곧 외부 행성들의 연접적 섭동에 기인한다. 이 예에서 보듯이 지구는 일반 중력장에 묶여 태양 주위를 돌고 있지만 지구의 실질적인 운동학적 진화는 외부 행성들의 섭동에 의한 연접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집밖 나서면 가족과 이접상태
> 외부와 바로 연접관계 갖게 돼
> 12연기는 상의적 인연관계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각자의 행동과 사고방식은 기본적인 가정이라는 일반 중력장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나 집밖에 나오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며 또 물질적인 주고받음의 연접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실질적인 행동 양식이나 사유 방식은 외부와의 유기적인 연접관계에 의해 점차 변해가며, 이것의 누적된 효과가 가정이란 규범에 의해 규정되는 것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것은 가정의 틀을 벗어나 가정의 다른 구성원들과 이접관계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연접관계가 불법에서는 인연관계이다. 이것을 인간관계에서 잘 나타내 주는 것이 12연기 사상이며, 그 시발점은 무명이다. 무명은 지혜를 뜻하는 명(明)이 없음이다. 황벽단제 선사는 "무명이란 바로 모든 부처들께서 도를 얻으신 자리이다. 그러므로 연기법이 바로 도량이다"라고 했는데, 이 연기법이 곧 유기적이고 연접적인 상의적 수수관계이다.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국토 · 중생은 평등하다

외국인 근로자제도

노동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칭)'를 도입키로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새 제도에 의해 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수를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1~1.5%(20만~30만명) 수준에서 억제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와 별도로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직접 뽑아 쓸 수 있게 돼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신분이 연수생이 아닌 근로자로 바뀌어 임금, 복지 면에서 국내인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고, 불법체류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은 당국의 불합리한 제도와 인권정책 부재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아왔다. 이 제도 도입을 계기로 정부와 고용주는 경제적 득실과 함께 선진 인권의식을 높여, 나라와 피부에 따라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야만적인 모습에서 탈피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토의 평등이 중생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으며, 중생의 평등이 국토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 <화엄경>

▩마땅히 법으로써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또 마땅히 법으로써 보호해 살펴라. 그리고 모든 관리 및 모든 백성, 사문, 바라문을 가르쳐 경계하라. 밑으로는 금수에 이르기까지 다 마땅히 보호해 보살펴야 한다. <전륜성왕수행경>

▩일체의 국토가 허공과 같으므로…, 나는 이렇게 일체의 세계가 같고, 일체의 중생이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청정비니방광경>

▩네 가지 계급(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으로 그 사람의 우열을 규정할 수 없다.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이다. 무릇 네 종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지 비구가 되고 아라한이 되어 모든 번뇌가 없어진 사람을 가장 뛰어난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함경>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부도(Pudo), 탑(Pagoda), 재가불자(Lay People)

Within the confines of the temple compound there are many different buildings. But in between there are Pudo, Pagoda regarding as special objects to that temple. Lay people must stop in on their way to Pudo and Pagoda to pay respects. 사찰 경내에는 다양한 건축물들이 있다. 이 중에서 그 사찰의 특징적인 것으로 부도와 탑을 들 수 있다. 재가불자들은 부도와 탑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예를 올려야 한다.

부도는 고승의 사리를 안치한 묘탑이다(pudo, stone monuments to famous monks, sometimes have the san of the monk). 부도는 사찰 경내 어느 곳에서나 찾을 수 있는데, 사찰의 앞이나 뒤 어느 곳에나 설치할 수 있다(pudo can be bult in front, behind, or to the side of a temple complex).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만든 기념물이다(pagoda is usually monuments to great buddha and enshrine their ashes or calcified remains). 사리는 화장 후 석회화 된 유골 조각으로, 불자들의 경배 대상이다.(the san is small stone-like calcified relics left after cremation. It's much respected by Buddhist).

사찰은 불자들이 수행을 위해 찾는 곳(the main place that most buddhist go in order to do some serious practice)이다. 이때 불자를 'buddhist'라고 했는데, 'lay people' 즉 재가불자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㊺

영시랑(榮侍郎)에 대한 답서 (2)

인연의 경계엔 좋고 나쁨이 없다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평소에 도(道)를 배우려면 거슬리고 순조로운 경계를 모두 받아들여 이용해야 합니다. 거슬리고 순조로운 경계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고뇌를 일으킨다면 평소에 이 도 가운데에서 마음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과 꼭 같습니다. 조사(祖師)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되는 경계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좋고 나쁨은 마음에서 일어나니, 만약 마음이 억지로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면 허망한 정(情)이 어디에서 일어나리요? 허망한 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참마음이 자재하게 두루 깨달아 알 것이다.'

청컨대 거슬리고 순조로운 경계 속에서 늘 이렇게 관찰하십시오. 오래 오래 하다보면 저절로 고뇌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고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마왕을 몰아붙여서 법을 지키는 착한 신(神)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순간 마주치는 경계는 내 뜻에 착착 들어맞아서 아무런 힘이 들지 않는 순조로운 경계가 있는가 하면, 내 뜻과는 맞지 않아서 대하기가 매우 힘이 드는 거슬리는 경계가 있다. 우리는 순조로운 경계에는 쉽사리 적응하여 저항 없이 받아들여 사용하지만, 거슬리는 경계에는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거부하거나 여러 가지로 헤아려서 적응할 길도 없고 완벽하게 버릴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순조롭고 거슬림이 경계에 있는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경계에는 순조롭고 거슬림이 없다. 순조롭고 거슬림은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선택하는 마음에 있다.

그래서 동일한 경계가 때로는 순조롭기도 하고 때로는 거슬리기도 하는 것이다. 허망함과 올바름은 늘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올바르면 경계도 올바르고 마음이 허망하면 경계도 허망하게 된다. 속아도 마음이 스스로 속는 것이요, 바른 지견(知見)을 가져도 마음이 스스로 가지는 것이다.

> "
> 각기 달리 나타나도
> 다르지 않은 자리서
> 반응할수 있는 것은
> 바로 도를 배운 공덕
> "

도에서 바른 견처를 얻으면 거슬리는 경계든 순조로운 경계든 모두 받아서 사용한다.

그러나 이 말은 거슬리는 경계든 순조로운 경계든 무차별하게 수용한다는 말은 아니다. 무차별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미 모양을 따라 분별하고 차별한 경계이다. 순조로운 경계와 거슬리는 경계에 반응함이 모양으로는 반드시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반응이란 늘 상대적이어서 인연에 알맞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다양한 인연과 다양한 경계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반응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양에만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면, 그 다양한 반응은 한결같아서 다름이 없다. 순조로운 경계에 순조롭게 반응하는 것과 거슬리는 경계에 거슬리게 반응하는 것이 모양으로 보면 다르게 분별되지만, 반응하는 그 행위는 동일한 것이다. 그 동일한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올바른 견처요 올바른 지견이다. 제상(諸相=色)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르지만, 비상(非相=空)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르지 않은 것이다.

어떤 인연이나 어떤 경계를 대하여 반응하더라도, 이 다르지 않은 자리에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를 배운 공덕이다. 지금 모든 경계가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모든 인연이 제각기 달리 대응해 온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나타남과 대응함이 바로 차별 없는 도의 존재를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왜 그러할까? 손바닥으로 반응하든 손등으로 반응하든 모두가 손의 반응이다.

http://www.mindfree.net/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목어 나무와 큰스님



화엄종찰 부석사 조사당 처마 밑에는 철망으로 보호되고 있는 나무 한그루가 있다. 골담초, 또는 선비화(禪扉花)라고도 불리는 이 나무는 신라시대 의상 스님이 쓰시던 지팡이를 꽂은 곳에서 싹이 티 자라나게 되었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처마 밑이라 비도 이슬도 맞지 않고 1천5백여 년을 그 크기로 버티고 있다니, 식물학적으로도 신비스러움이 더해진다.

승보종찰 송광사에는 고향수(枯香樹)라는 멋쟁이 향나무 한 그루가 일주문을 지나온 불자들을 맞는다. 이 역시 고려시대 보조 국사가 쓰시던 지팡이가 그 곳에 뿌리내려 자란 것으로 전한다.

한국의 유서 깊은 고찰들에는 고만한 전설을 간직한 고목들이 적지 않으며 대부분 고승들의 위신력을 증거 해 준다.

나무라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과 열반, 정각을 지켜본 사라수와 보리수를 빼놓을 수 없다. 네팔에 있는 룸비니 동산에는 부처님 탄생수, 저 무우수로 불리는 그 나무의 후손으로 짐작되는, 그래서 지금은 사람크기보다 조금 커 보이는 사라수가 심겨져 있고 인도 부다가야에는 보리수가 서 있다.

룸비니의 무우수는 네팔에서 살(saal)이라 불리는 사라수로 루시나가라의 사라쌍수와 같은 종류라 한다. 이들 나무가 불자들에게 주는 감개는 특별하다 할 것이며 신앙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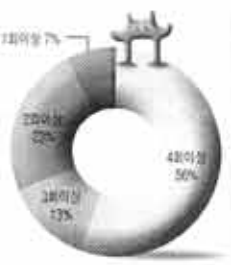
대구시는 팔공산 성전암 앞에 서 있는 수령 300년의 전나무를 '성철 스님 나무'로 부르기로 했으며 파계사 사거리에 있는 느티나무를 '현응 대사 나무'로 부르기로 했다고 한다. 전설이 깃든 관내의 고목들에 역사 속 인물의 이름을 붙이겠다는 것으로 파계사에는 '영조 임급 나무'로 불리게 되는 고목도 있는 모양이다.

아름드리 고목에 큰스님들의 법명이 붙는다 해서 나쁜 것 드 없겠으나, 별 인연 없이 붙여지는 나무 이름들이 과연 위신력 높은 전설을 만들며 후대에 어떤 감개를 불러올지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서지 않는다.

김징자(언론인 · 본지 논설위원)

불자의 생각

법회참석 빈도



네티즌 불자들은 사찰에 얼마나 자주 나갈까.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붓다뉴스가 실시한 설문에 응한 사람은 모두 223명. 30대와 40대 불자가 주를 이뤘으며(74%), 신행경력 10년 이상이 35%였다.

이들 가운데 매주 절에 나간다는 불자는 92명(41%)이었으며, 월 4회 이상은 나가서 신행을 해야 한다는 답이 절반을 넘었다(56%). 정기법회에 꼬박꼬박 참석한다는 불자(34% 76명)보다는 가끔 참석한다는 불자가 많았다(43% 96명). 중년의 나이, 신행경력 10년 이상의 그룹이 법회를 비롯한 모든 신행활동의 중심이란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임연태 기자

"매주 절에 나간다" 41%

스팸메일 공해 '위험 수위'

불자 세상보기

상품광고 · 음란사이트 등
매일아침 메일박스 청소
정부의 강력한 단속 필요



구승회
동국대
윤리학 교수

인터넷은 가치 중립적인 물리적 관계망일 뿐이지만, 어떤 의미에선 '가치 공유 공동체'다. 70-80년대 초기 인터넷 공동체는 통신 예절이라는 불문율을 지키는 동질적 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상업 광고가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면 통신망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상업 광고를 위한 전자우편의 사용 금지라는 인터넷의 기본적인 규칙을 준수했으며 관리체계나 법적인 장치가 부족했음에도 자료나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했다.

그러나 1994년 일단의 미국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서비스 광고로 인터넷 정보 집단을 공격함으로써 이 금지 규칙은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90년대 초에 보편화된 정보에 대한 무료(혹은 저렴한)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동체의 윤리적 자기 규제'라는 의무감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개방되면서 통제 불능의 오물 투기장으로 변해 버렸다. 스팸메일은 일종의 강제된 광고 전단지와 같아서 청소 비용은 고스란히 사용자와 사업자의 몫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소연할 곳도 없이 매일 아침 메일박스를 청소해야 한다.

인터넷 공간을 사적인 영리 추구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현재로서는 아주 강력한 규칙을 만드는 길 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인터넷 본래의 '무지배적 디지토피아의 꿈'은 접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면 인터넷 통신은 상호 의무 이행 체제보다는 물리적 강제에 의해 지탱될 것이고, 자율적 정보 공동체로서의 기능은 많은 부분 네트워크 밖의 물리적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스팸메일 방지법'을 제정하면 인터넷은 질서를 회복하겠지만, 전산망 관리자, 사이버 경찰, 감시원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유지 관리 비용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결국에는 무료 이메일은 물론이고 모든 정보가 유료화될 것이다.

통신업체들은 이미 불법적인 해커들에 의한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입 방지를 위한 컴퓨터 방화벽, 자료 유출 방지 등 네트워크의 운영을 위한 엄청난 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자율적인 의무의식에 맡겨졌던 것들이 지금은 법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고, 분화되고 자율적이었던 것이 지금은 중앙 집중적인 행정 관료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상호 도덕적 의무의 이행이 약속되지 않는 가상 공동체가 얼마나 허약한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인터넷은 공동체 정신의 회생을 대가로 개인주의의 확대에 기여했다. 낙관론자들은 전자 통신 기술의 발전은 지리적 원근에 관계없이 '가상 현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100년간의 수많은 기술 혁신이 그랬듯이, 이 역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분절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가상 공동체의 익명적 소통을 원활히 하려면, 실제적 의사소통 공동체의 신뢰가 뿌리내려야 한다.

영혼들이 가상현실로 이주해 버리고, 육체들만 남은 실존의 대지는 황량하고 척박하다. 이를 부드러운 인간의 영토로 바꾸려면 오직 이성과 도덕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세계 산의 해'를 맞아

유엔이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정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사찰은 절 이름 앞에 산자를 붙일 정도로 산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 유엔이 정한 '세계 산의 해'를 맞아 산 환경 지킴이들의 제안을 듣는다.

"산 사랑은 훼손 않는것"



지율스님 〈천성산보호대책위원장〉

산을 지키는 것은 산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산을 사랑하는 사람은 산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산에서 나무가 베어져 나가고 산이 고통 받는 모습은 섬뜩한 느낌을 준다. 이런 현장을 알리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산을 훼손하는 사람은 대개가 산에 잘 오지 않는 사람이다. 산이 고통 받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산을 훼손하는 도로를 놓고 철도를 놓는다. 따라서 산의 참모습을 보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체험 교육이 필요하다. 나는 올해 환경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 국토순례를 계획하고 있다. 불자들은 생활 속에서 마음가짐을 새롭게가져야 할 것이다. 편함과 빠름을 추구하고, 많이 소비하고, 많이 갖고, 많이 누리려는 태도는 환경의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편함을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빠름을 위해 산을 관통하는 도로를 놓고, 많이 소비하기 위해 산을 파헤쳐 광물을 캐낸다면 산은 지켜질 수 없을 것이다.

"도로 · 골프장 등 건설 자제"



이원균 〈불교환경연대 활동국장〉

산은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로와 댐, 골프장의 무리한 건설로 산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북한산 관통도로의 건설 등은 반드시 백지화돼야 할 것이다. 자연휴식년제를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

또 산의 규모에 맞는 입산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 설악산의 경우 동시에 수만 명이 등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산이 황폐해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정상, 능선 등 반 위주의 산행 습관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가까이 있는 산을 즐기고 보호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찰은 명산들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산지키기에는 사찰의 역할 또한 크다. 스님들이 산을 아끼는 마음으로 산을 찾는 관광객과 불자를 일깨워 준다면 가장 좋은 환경교육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찰이 먼저 환경 문제, 산 지키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 산지킴이 돼야"



김대원 〈불교전국산악회 사무총장〉

산행을 하다보면 가끔 외국인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세계 어디에도 도시와 접한 이러한 명산이 있는 곳은 드물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를 망각하고 살고 있다. 이런 망각이 산을 병들게 하는 것 같다. 개발이란 명분으로 산이 파헤쳐지고 잘려 나가도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불교 산악인들은 지난해 11월 양산 통도사에서 모여 '사찰 환경 및 불교 문화재 지킴이 실천 대법회'를 개최했다. 이것은 산행할 때 불법파괴행위와 사찰 및 불교문화재 보호차원의 모니터링과 제언 등을 통해 산을 보호하는 첨병이 되자는 선언이었다. 불교 산악인들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청정국토와 찬란한 문화를 후손들에게 온전히 넘겨주어야 한다는 국민적 사명감에서이다. 모든 국민이 산 지킴이로 나설 때 가깝게는 북한산 관통도로 및 터널 공사가 중단될 것이고, 멀게는 우리의 산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독자기고

간월암 산문폐쇄 웬말인가

새해 첫날을 사찰에서 보내는 게 꿈이었다. 그래서 결정한 곳이 신라시대 원효 · 무학 · 만공 스님 등이 수행한 서산 간월암이다. 바다에 떠있는 모습이 마치 구름 속에 피어난 연꽃 같고, 하루 두 번 씩 밀려오는 밀물 때는 물이 차 섬이 됐다가 썰물 때는 물이 빠져 작은 자갈길로 육지와 연결되는 곳이어서 출발하기 전부터 마음이 설레었다.

우리 가족들은 지난해 마지막 날인 31일 짐을 꾸려 간월암으로 향했다. 3시간 여 만에 도착한 간월도 바닷바람이 무척 세차게 불었다. 이 바람을 뚫고 작은 언덕을 넘어 간월암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산문 폐쇄'란 게시판이 앞길을 가로막았던 것이다. 너무나 허탈했다. 그 내용의 요지는 서산시가 간월암이 관광지로서의 기여도가 없다고 해 사찰 측에서 산문을 폐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우리 가족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내 머리 속에 좀곤 떠나지 않는 것이 '사찰의 관광기여도'란 말이다. 사찰을 관광지로만 바라보는 관계공무원들이 한심하다. 간월암을 찾아가는 길목에 간월암을 알려주는 이정표 하나 없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과연 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관광객들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우리 가족이 간월암을 갔던 날도 많은 사람이 있었다. 심지어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까지도 있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발생한 한 폐해가 아닌가 싶다. 하루빨리 사찰과 서산시가 합의해 간월암을 찾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남진(서울 구로구 고척동)

"자비의 등 지혜의 등" - 온 불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 이있습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팔모접등 팔모조립등 공단등



시공된연등용 전선 케이블 ▼



만월등

종등 신제품 • 실용신안 등록 • 의장출원

• 중 소리는 지옥 중생을 구제하고 악업과 고통을 멈추게 한다고 하여, 옛 사람들은 초파일 전에 종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뜻을 전하고자 찬덕연등제작사에서는 '부처님오신날' '각종 법회 및 행사'에 쓰일 수 있는 신제품 종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종등 보관상태





◆연꽃잎 지로특허(특허 제1221168호) / 절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2895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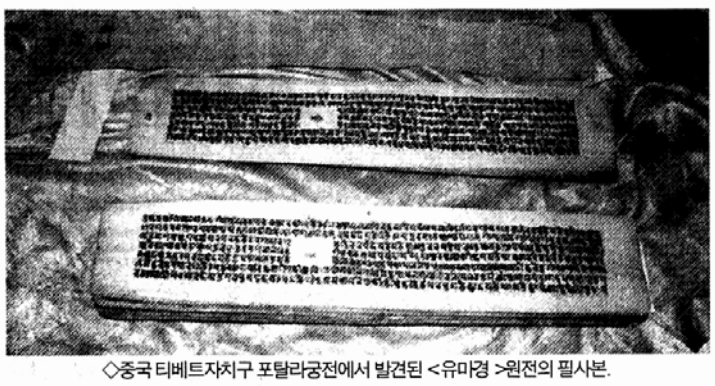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아남시 준궁동 180-1
전화:031)792-6288, 794-4055
찬덕 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8세기 유마경 原典 발견

日 大正大종합불교연 티베트 포탈라 궁전서

산스크리트 필사본… 가로 30 세로 6㎝ 야자나무 잎에 기록, 보존상태도 양호

대승불교 연구 획기적 전기



◇중국 티베트자치구 포탈라궁전에서 발견된 <유마경 >원전의 필사본.



◇다이죠우대 연구팀의 포탈라궁전에서의 조사 장면.

8세기경의 〈유마경〉 원전이 발견돼 〈유마경〉 연구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

일본 다이죠우(大正)대학(松濤誠達 학장) 종합불교연구소(吉田宏晢 소장)는 지난 12월 14일, 지금까지 일실된 것으로 알려진 대승경전의 하나인 〈유마경〉의 산스크리트 원전을 중국 티베트자치구 포탈라궁전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유마경〉은 재가의 유마거사가 출가 수행자들과의 토론에서 논파하고 있는 내용을 담은 경으로, 대승사상의 핵심을 설하고 있어 한중일 삼국에서도 옛부터 친근한 경전이다. 〈승만경〉과 함께 대승불교의 재가주의(在家主義)를 천명한 이 경은 정묘한 대승적 경지를 촌철살인하듯 보여줘 선가에서도 즐겨읽고 있다. 〈삼경의소(三經義疏)〉를 저술한 일본의 성덕(聖德)태자도 〈법화경〉 〈승만경〉과 함께 〈유마경〉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암파(岩波)불교사전〉에도 기술된 바와 같이 '산스크리트 원전은 일실되었다'는 것이 정설이 되어 세계 불교연구자들이 〈유마경〉의 원전을 찾고 있었다.

발견된 원전은 8세기경의 필사본(筆寫本)이다. 사본은 가로 30㎝, 세로 6㎝의 야자나무 잎에 기록되어 있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종합불교연구소는 중국측의 관계기관과 교섭을 거듭해 포탈라궁에 소장된 문헌조사에 합의했었다. 1999년 7월말부터 8월초순에 걸쳐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드디어 발견이 이뤄진 것이다.

현지조사에 참여했던 마쯔나미 다이죠우대학장은 "내용도 산스크리트 문법과 정확히 일치해 1급 문헌"이라고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의 〈유마경〉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첫 발견자인 다까하시(高橋尙夫) 종합불교연구소 부소장은 "관심이 있었던 〈지광명장엄경(智光明莊嚴經)〉을 때마침 열람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유마경 12장'이란 제목이 적혀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것이 원전임을 알게 되었을 때 "경악했다"는 흥분된 감탄사까지 했다고 한다.

〈유마경〉 원전 발견으로부터 발표까지 1년 반이란 시간이 소요된 것은 중국 당국과 관계기관과의 조정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11월에 그 원전의 영인판이 다이죠우대학에 전해져 이번에 발표가 이뤄졌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청바지를 입은 부처님:** 불교가 북미 대륙에서 젊은 불자들의 대안 종교로 탈바꿈하고 있다. 작가 수미 런던(Sumi London)이 미국의 대중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교를 추적한 〈청바지를 입은 부처님(Blue Jean Buddha-Voice of Young Buddhists)〉에는, 미국의 저명한 명상가 잭 콘필드(Jack Komfield)의 '미국에서 부처님은 어떻게 다시 태어나셨을까'라는 질문에 대답을 주고 있다. 이 책에서 수미 런던은 "미국에서의 불교는 더 이상 이국적인 것도, 만병통치약도 아니다"며 "다른 철학에 앞서 대중의 삶을 변화시키는 촉매제"라며, 불교를 정의하고 있다. 미국 위즈덤 출판사 펴냄.

해외 불서

• **불교 법수사전:** 불교 서적을 읽다보면 '3계' '4성제' '6바라밀' '8정도' 등 숫자가 붙는 말이 자주 보인다. 이와 같이 숫자로 불교의 가르침을 집약한 것을 '법수(法數)'라고 부른다. 방대한 교리를 간편하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수'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수를 알면 불교를 체계적,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토쿄대학 국학원대학문학부 미야하라(宮元啓一) 교수 지음, 일본 에이바무(EVAM)사 펴냄.

• **종교와 인간의 미래:** 종교 불신, 종교 기피의 풍조속에서 종교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21세기 종교의 역할은 무엇일까, 21세기 종교인의 사명 등 현대 문명사회 속의 종교의 미래를 조망한 책. (재)일본현대종교연구회가 지난 해 4월 23일 개최한 '21세기 일본의 종교를 생각한다' 심포지움 기록집이다. 이시이 겐지(石井研士) 외 6인 공저, 일본 백마사(白馬社) 펴냄.

印 기념관 건립 등 불사 잇달아

카필라바스투 55m 불상 세우기로 불교 웹사이트 마무리 단장 한창

연말연초 인도에서는 많은 불사들이 새로 시작되거나 마무리 지어지면서 기념행사가 잇달았다. 특히 이 불사들은 대부분 인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거나, 크게 재정보조를 한 것이어서 '소수종교를 억압하는 힌두교 원리주의 정부'라는 기존의 이미지를 씻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지난해 12월 31일, 나그뿌르의 딕샤부미에서는 암베드까르 기념관 준공 기념식이 열렸다. 현대 인도 불교의 아버지인 암베드까르 박사를 추모하기 위한 이 기념관은 지난해 10월 완공되어 일반인들에게도 선을 보였던 대법당과 다목적 강당을 갖춘 건물로, 이제 2층 강당도 내부시설을 완비하여 정식 준공을 본 것이다. 국회의원이며 딕샤부미를 운영하는 암베드까르 기념위원회 가바이(R. S. Gavai)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준공 기념식에는 인도 나라야난(K. R. Narayanan)대통령을 비롯, 마하라슈트라주의 알렉산더(P. C. Alexander) 주지사, 데쉬묵(Vilasrao Deshmukh) 주수상 등 정계의 거물들이 참석했다.

나라야난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암베드까르 박사가 착취당하던 하층민들의 정신적 고양을 위하여 불교로 개종한 것은 혁명적 결단이었으며, 동시에 인도 고유의 종교를 선택함으로써 그가 종교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인도 중부 하이데라바드 근교의 작은 도시 비사카빠뜨남에서는 '선 공원(Zen Garden)'이라는 시민공원이 조성되어 라마니(Rajana Ramani) 시장을 비롯, 시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가졌다. 비사카빠뜨남 시 당국이 약 1300 여평의 부지에 마련한 선 공원 중앙의 호수 한가운데에 불상이 모셔져 있다.

카필라바스투에서는 지난 연말 높이 55미터에 달하는 불상 건립의 첫 삽을 떴다. 이 곳이 부처님의 고향임을 기리기 위해서 카필라바스투가 속해있는 군 이름을 '싯다르타 나가르'로 바꾸기도 했던 우따르 쁘라데쉬 주 정부는 다시 이 곳에 불상을 건립함으로써 카필라바스투를 성역화 한다는 계획이다.

기공식장에서 라즈나트 싱(Rajnath Singh) 주 수상은 150 미터 높이의 미륵불상 건립계획을 발표하고 주변에 공원, 병원, 박물관, 사회복지관 등 종합 사회복지 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에서는 처음 만들어지는 불교 웹사이트 역시 오픈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중에 있다. 이 '사이버 불사'의 주인공은 작년 12월 초 암베드까르 박사의 저술과 음성, 사진 등을 모은 자료 사이트(www.drambedkar.com)를 열어 인도 웹사이트 중 '개인에 대한 가장 방대한 정보 사이트'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밀린드 깜블레(Milind Kamble)씨다.

인도 뿌나= 이지은 통신원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19. 푸드갈라란?

인간은 모두 죽는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죽어가는 것일까. 그리고 인간이 여러 생을 살아가면서 윤회를 거듭한다면 그 윤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윤회의 주체는 무엇일까. 실로 이 문제는 초기불교에서 선(禪)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궁극적인 관심사이며 불교수행론의 핵심이기도 하다.

불교교단은 기원전 544년 북인도의 쿠시나가라에서 역사적 인물로서의 붓다가 입적한 뒤부터 현대불교에 이르기까지 붓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생사윤회의 비밀을 해명하기 위한 종교적 모색을 쉬지 않고 진행해왔다. 인간의 삶과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불교가 사용하는 키워드는 윤회, 업, 중유(中有), 푸드갈라(pudgala) 등이 있다.

푸드갈라설은 초기불교경전과 아비달마의 논서에 자주 쓰이는 말이다. 푸드갈라는 어원적으로 신체, 영혼, 개인을 의미하는 범어의 어근 pums에서 파생된 말로서 자아, 사람, 생명 등 살아있는 존재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중

윤회문제 깊이 사색 종파마다 해석 달라

국의 역경가들은 이 말을 음사해서 보특가라(補特伽羅)라고 하기도 하고 인(人), 사부(士夫), 명자(命者), 삭취취(數取趣)라고 번역하고 있다. 특히 푸드갈라의 한역어에서 삭취취라는 용어는 '생사윤회를 자주 반복한다'는 뜻으로 푸드갈라의 교리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즉 〈여시어경〉에서 설하고 있는 바와 같이 "푸드갈라는 이 세계에서 저 세계, 저 세계에서 이 세계로 거듭 태어난다" 또는 "어떤 푸드갈라들은 이 생으로부터 열반을 성취하고 어떤 푸드갈라들은 후생에서 열반을 성취한다"고도 하며 "한 푸드갈라가 여러 생을 살면서 남긴 뼈들을 한 곳에 모은다면 그것은 하나의 산을 이룰 것이다"라고 한다. 즉 윤회하는 생명의 주체로서 푸드갈라가 가진 교리적 성격을 표현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푸드갈라란 무엇인가. 푸드갈라는 기본적으로 윤회하는 인간 존재에 관한 매우 깊은 사색에서 출발한 교리이지만 불교의 중요한 명제인 무아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주체적인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업을 짓고 누가 윤회하는가"는 난해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 교단은 푸드갈라에 대한 탐구를 거듭하여 각 부파마다 여러 방향에서 해명을 하고 있다. 오직 경전에 의한 불법의 해명만을 존중하는 경량부(經量部)에서는 푸드갈라를 전세에서 후세로 연속되는 일미온(一味蘊)의 존재를 인정한다. 일미온이란 미세한 의식이며 이 일미온이 죽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다음 생명으로 옮겨간다고 한다. 또한 독자부(犢子部)에서는 푸드갈라를 비즉비리온(非卽非離蘊)이라고 한다. 비즉비리온이란 '자아에 관련된 것도 아니며 떠나 있는 것도 아닌 것'이라는 의미로서 푸드갈라는 언어로써 표현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불가설장(不可說藏)이라고도 한다. 화지부(化地部)의 논사들은 푸드갈라를 삶과 죽음을 연결해주는 궁극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 궁생사온(窮生死蘊)이라고 불렀다. 이처럼 붓다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아비달마의 여러 학파들이 윤회의 궁극적인 주체를 탐구하여 제기한 푸드갈라설은 불교유심론의 정점에 도달한 유식(唯識)사상의 완성자 아상가(310-390, 無着)가 쓴 〈섭대승론〉에서 근본식(根本識)으로 해명된다. 실로 윤회하는 인간존재의 주체를 탐구하는 기나긴 도정에서 성립된 푸드갈라설은 유식사상의 아뢰야식(阿賴耶識)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유식불교에서 설하는 아뢰야식은 인간의 자아와 우주를 연결하는 궁극적이면서도 광범위한 네트워크이며 원리이다. 인간의 미망과 해탈도 모두 아뢰야식에 있다. 때문에 이미 입적하신 성철 선사께서도 자주 "선문의 견성이 근본이니 견성은 진여자성을 철견(徹見)함이다. 자성은 그를 엄폐한 근본무명, 즉 제8아뢰야식의 미세망념이 영절하지 않으면 철견하지 못한다"고 설하셨다. 성철 선사 역시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아뢰야식의 미세망념과 고행으로 대결하면서 그토록 높은 길을 걸어갔던 것이다.

끝으로 나는 푸드갈라의 문제처럼 불교교리사의 경우, 교리의 발전사라는 틀은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소승, 아비달마의 교리, 심지어는 위경(僞經)의 교리라고 할지라도 단계가 낮은 가르침이라고 비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불교의 오랜 역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교리의 흐름들은 결국 인간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며 해답이기 때문이다.

▨ 경학회 회주

기도·49재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불교의 3대 신앙 지침서

신간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이 극락세계의 문을 엽니다.

미타신앙·미타기도법

불교 신앙사에 있어 단연 제일의 위치를 차지하였던 미타신앙!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은 내생뿐만이 아니라 현세까지도 극락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서부터 극락의 여러 가지 측면, 칭명염불·오회염불·관상염불·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성〉
Ⅰ 극락을 여는 미타신앙 Ⅱ 아미타불의 본원
Ⅲ 염불의 공덕 Ⅳ 칭명염불 수행법
Ⅴ 관상염불 수행법 Ⅵ 천도와 미타신앙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관음신앙·관음기도법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 주는 관세음보살.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은 어떠한 분인가?
행복을 보장하는 지장기도 방법은?

지장신앙·지장기도법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 기도법,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참회·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워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기도법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기도 방법에서부터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4×6판 / 값 3,500원

기 도



총 6장 52편의 다양한 기도성취 영험담으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

밝은길 아봐타 센터
서울 종로구 [illegible]
◇마스터/위저드 김희군
여시아문 인터넷 도서주문
www.yosiamun.com

"큰스님, 빛으로 다시 오소서"

혜암종정 다비식 열리던 날



◇연화대에 불을 붙이는 순간 불길이 하늘로 치솟고 있다. 불자들의 천수경 · 아미타경 합송속에 평생 수행으로 일관했던 혜암스님의 법구는 서서히 사그라 들었다. 그러나 고통과 슬픔은 없다. 공한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니 즐거움만 있다.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표현한 다비의식은 살고 죽는것이 다르지 않다는 불교의 생사관을 보여준다.

3만여 추모행렬 가야산에 가득
2천2백여 만장 가시는 길 장엄

'혜암 스님 본래 고향으로 돌아갔다네.
원당암에서 60년을 꽃과 함께 살았던 -.
풀꽃들이 곤히 잠든 한겨울에,
홀연히 공(空)으로 돌아갔다네.'

'생사일여(生死一如)' '생사즉 열반(生死卽 涅槃)'

불교에서는 살고 죽는 일이 다르지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 예정돼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의식과정인 다비(茶毘)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여는 의식이다. 미혹의 근저에 있는 무명의 티끌을 불살라 버리고, 끊임없이 정진하여 번뇌를 끊고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수행의 도정인 것이다. 그래서 고통도 슬픔도 없다. 다비는 떠나는 자와 보내는 자가 함께 무언의 법을 듣는 법석이다.

불자들 연신 합장배례

6일, 겨울날씨 치고는 유난히 포근한 가운데 봉행된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당 성관대종사의 다비식도 열반의 길을 중생들에게 보여준 장엄한 법석이었다.

혜암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봉행된 6일 해인총림 가야산문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불자들의 추모행렬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불자들은 일주문부터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혜암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연신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했다.

영결식이 시작된 오전 11시, 해인사 보경당 앞에는 이미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3만여 대중들로 가득 차, 넓은 경내가 오히려 좁게 느껴질 정도.

오후 1시 영결식이 끝나고, 우렁찬 종소리가 세 번 울리며 스님의 법구 앞에서 영축게가 시작됐다. 무상계게 염불에 이어 "연화대로 모시겠습니다"라고 고하는 발인의식 다비식장으로 법구가 이운됐다.

'큰스님의 가풍 용맹정진, 가시는 듯 다시오소서' 등의 오색만장 2천2백장을 앞세우고 3천여스님 2만7천여 불자들이 스님의 영정과 법체를 3km 떨어진 다비장으로 이운했다. 행렬은 인로왕번 명정 삼신번 오방번 불교기 무상계 법성계 만장 향로 영정 위패 법주 독경단 법구 문도 장의위원 비구 비구니 신도 순으로 300m에 걸쳐 이어졌다.

행렬주변에 모여든 사하촌 주민과 관광객, 신도들은 한목소리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국화 장미꽃으로 장엄된 법구가 지나갈 때 연신 합장반배를 하며, 눈물을 훔친다.

해인사 비구니 스님들이 정성들여 하나 하나 종이 꽃잎을 붙여 만든 연화대가 안치된 다비장에는 2시간 전부터 신도들이 자리를 잡아 온 산이 형용색색의 중생 꽃으로 장엄되어 있었다.

극락세계에서는 연꽃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상징해 연꽃으로 장엄된 연화대는 윗부분에 녹색, 몸통부분에 연분홍빛 연잎을 붙여 높이 2.1m, 지름 3m로 하나의 아름다운 대형 연봉우리다.

오후 2시경 법구가 다비장에 도착하고, 법구를 연화대에 안치하는 입감의식에 이어 1.5m높이의 참나무로 입구를 막았다.

'이 불은 탐진치 삼독의 불이 아니라 여래의 등인 삼매(如來一發三昧)의 불이니…, 이 빛을 보고 자성의 광명을 돌이켜 쌍림(雙林)의 즐거움을 누리십시요.'라는 거화편(擧火篇) 낭독과 함께 원로회의 의장 법전 종산 활안 지관 스님등 원로 스님, 성법 원각 여연 도각 스님등 문도들, 원택(총무부장) 현고(기획실장) 스님 등 총무원 소임자, 용성문도회 흥교 스님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 30여명이 동서남북으로 나뉘어 거화(擧火)봉에 불을 붙여 연화대에 올기는 하화(下火)에 들어갔다.

'세인연이 화합하여 잠시 존재했다가 사대가 흩어지니 다시 공으로 돌아갑니다. 몇 년이나 허깨비의 바다에 놀았습니까. 오늘 껍질을 벗어버리니 나는 듯 경쾌하고 가벼우시겠습니까'

불을 지피는 순간 연화대에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불자들의 천수경, 아미타경 합송 속에 평생 수행으로 일관했던 혜암스님의 법구는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연화대 옆에 있던 이대자행(73세, 대구)보살은 "스님, 집에 불났어요. 빨리 나오세요"라고 외치며 "한평생 공부만 해오시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라고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사리86과 미소굴로

스님의 법체가 다시 땅 물 불 바람으로 돌아갔음을 알려주듯 7일 가야산에는 하얀 눈이 소복히 내렸다. 오전 5시 타다 남은 뼈를 뒤집는 기골(起骨)을 하고, 습골은 오전 9시 원로회의 의장 법전, 해인사 주지 세민 스님과 문도 스님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수습된 법체는 뼈를 부수는 쇄골을 위해 두개의 항아리에 담겨져 오전 10시 15분경 스님이 주석했던 원당암 미소굴로 이운됐고 상좌 스님들이 사리를 수습했다. 스님의 사리는 영골 등에서 총 86과의 영롱한 오색사리가 수습됐다.

이어 환귀본토진언인 '옴 바자나 사다모' 를 세 번 외우고, 온 곳도 간곳도 없으며 보탤 것도 감할 것도 없는 본래의 진실한 모습으로 돌아간 스님과 대화하듯 그동안 존재했던 것이 한낱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되새기는 산좌송(散座頌)을 부르는 것으로 다비식은 회향됐다.

글=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혜암스님 원적에서 다비까지 동영상으로 buddhanews.com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다비는 육신이 해체되는 마지막과정으로 죽음이 살과 다르지 않는 하나의 수행과정을 보여준다.

다비(茶毘)란?

'다비(茶毘)'는 선업(善業)을 두어야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불교의 생사관에 입각한 독특한 장례방법으로 화장(火葬)하는 것을 일컫는다. 다비는 육신이 해체되는 마지막 과정으로 고로움의 바다를 영원히 벗어나 해탈로 가는 불교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죽음이 삶과 다르지 않는 하나의 수행과정으로 승화하는 의식이다. 그러므로 불교사상과 열반의 이념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거룩한 불교의 상징이다.

다비는 범어 자피타(Jhapita)의 음역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 불교전래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전승되고 있다.

생사관 따른 화장
껍 벗어나 해탈로

4대가 모여 이루어진 육신은 필요에 따라 가합(假合)된 것이며, 때가 되면 흩어져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볼 때 죽음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연의 시작으로 보는 불교의 시각은 다비식을 새로운 삶으로 통하는 엄숙한 문으로 여기는 것이다. 다비의식의 과정은 삭발 목욕 세수 세족 착군 착의 착관 정좌 입감 기감 거화 하화 창의 습골 기골 쇄골 산골 순으로 진행된다. 다비의식을 상세히 기록한 〈석문가례초〉에 따라 다비장 설치와 의식이 행해진다.



◇다비식 전인 5일 해인사 비구니스님들이 정성들여 한장 한장 종이꽃잎을 붙여 대형 연화대를 조성하고 있다.



◇수만송이 국화와 장미로 장엄한 법구가 사부대중의 '나무아미타불' 염송과 오열속에 해인사를 나서고 있다.



◇큰스님에 대한 존경과 애도의 마음이 담긴 2천2백여 오색만장 행렬이 온산을 덮었다.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고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靈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괴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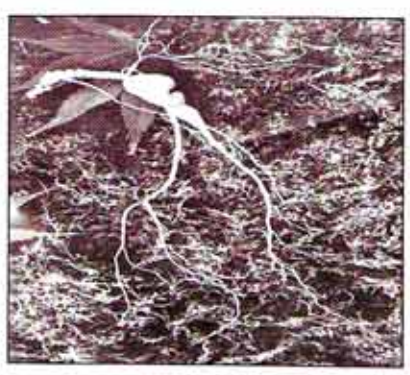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받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알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벽허선사 '赤日'

선사의 법명은 원조(圓照), 법자는 한영(寒影), 법호는 벽허(碧虛), 속성은 한씨(韓氏)다. 평양에서 아버지 응백(應白)과 어머니 최씨(崔氏) 사이에서 탄생하였다. 선사의 어머니께서 금까마귀 한 쌍이 날다가 한 마리가 떨어져 품속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잉태하여, 효종 9년(1958) 10월 10일 선사를 낳았다.

선사는 10세에 평양 태청산 석수암에 주석하고 계신 각형 장로에게 축발하였다.

선사는 삼장(三藏)의 법을 구하며 이교(二敎)도 익혔다. 선사의 수학이 깊고 깊어 가르칠 수 없는 수준이 되자 은로(恩老)께서 "월나라 작은 닭은 큰 흰 새의 알을 부화시킬 수 없다. 너에게 던져 줄 능력도 없지만 너는 구름도 헤쳐 나갈 운이 있으니 하루빨리 의남(宜南)의 큰 장로(匠老)에게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였다.

선사는 은로(恩老)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출가하여 지금까지 공부하던 석수암을 떠나 의남 월저 선사(月渚禪師)를 찾아 법을 구했다. 월저 문하에서 수참 몇 해만에 월저 선사께서 또 이르시기를 "나는 이미 늙었다. 용의 새끼를 기를 수 없으니 너의 비늘이 돋아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라"고 하였다. 그곳은 바로 남명 설암 선사(南溟雪巖禪師)가 주석하고 계신 묘향산 내원운사이다. 설암 선사 회상에서 수참 4년째 정월 초하루 날이었다. 스승 설암 선사께서는 떡국을 드시다가 선사에게 "법성원융(法性圓融)이란 무슨 뜻인고"라고 물었다. 이에 선사는 "적일(赤日 : 붉은 햇빛)입니다" 하고 확철대오(廓徹大悟)하였다.

적일(赤日 : 붉은 햇빛)

斜日穿朱閣(사일천주각)
斷雲倚玉峯(단운기옥봉)
鈴搖千古塔(영요천고탑)
笋發百年松(회발백년송)

지는 햇빛은 붉은 누각에 비치고,
끊어진 구름은 옥봉(玉峯)을 의지했네.
천고(千古)의 탑에서 방울소리 흔들리고,
백년 뒤 소나무에 바람소리 웅웅거리네.

선사의 깨달음은 바로 붉은 햇빛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주는 햇빛이 있어야 영위하는 것이다. 그 햇빛도 생명이 있는 붉은 햇빛이다. 이것이 선사의 깨침이자 가르침이었다.

스승 설암께서 선사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호남 징광사(澄光寺)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선사께서 선불장(選佛場)을 여시게 되었다. 선사께서 참활(參喝)하신다는 현응지영(懸鷹之鈴 : 사냥을 하는 매의 꼬리부분에 달린 방울, 매가 움직일 때마다 방울이 울려 그 매의 소재를 알 수 있다. 여기서 선사께서 은거하여 살아도 소재를 알아 찾아온다는 뜻)이 전국 곳곳으로 울렸다. 이에 사방에서 찾아오는 중생들과 수좌 대중들이 바닷물이 밀려오듯 구름이 몰려오듯 찾아와서 "원하옵니다. 선열(禪悅)을 베푸시어 우리의 주린 배를 채워 지공무사(至公無私)한 깨달음을 일깨워 주십시오"라고 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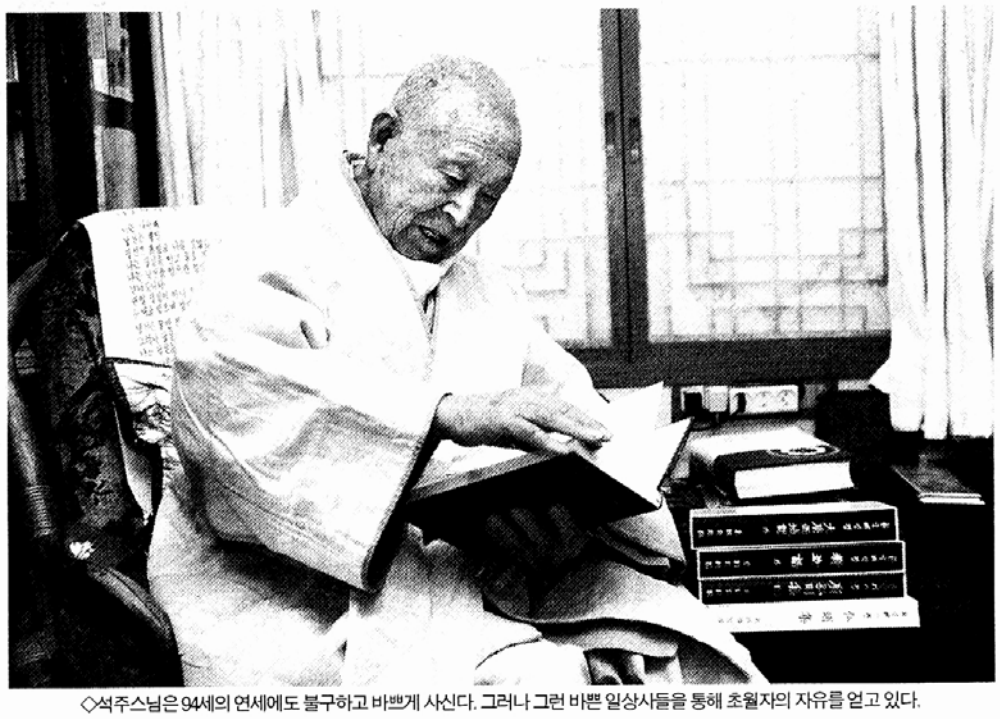
법성원융이란 무슨 뜻인고?
"붉은 햇빛입니다" 확철대오

이에 선사께서 크게 가르침을 허락하시여 천엽잡화(千葉雜花)의 도량을 여니 보광명전(普光明殿)처럼 방불하였다. 선사의 덕은 사생(四生 : 태생(胎生), 난생(卵生), 습생(濕生), 화생(化生))을 도와 이것저것 따질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자비는 삼라만상을 덮었다.

또한 선사의 가르침에는 사생(四生)과 만유(萬有)가 하나 되어 삼여(三餘 : 겨울은 년(年)의 나머지, 밤은 날(日)의 나머지, 흐리고 비가 오는 것은 시(時)의 나머지이다. 학문은 남는 시간에 하여도 충분하다는 옛 위략독서(魏略讀書)편의 마땅히 세 가지 남음으로써 해야 한다(當以三餘)는 뜻"가 없었다.

선사는 영조11년(1753) 묘향산 동산사(東山寺)에서 세수 78세, 법랍 67세로 입적하였다.

■경주 해회선원 회주



◇석주스님은 94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바쁘게 사신다. 그러나 그런 바쁜 일상사들을 통해 초월자의 자유를 얻고 있다.

석주스님은? 경북 안동 옹천땅에서 1909년에 출생했다. 1923년에 서울 선학원에서 남전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6년 선학원에서 행자생활을 했고 범어사 강원에서 이력을 마쳤다. 상원사 한암스님 회상에서 안거를 든 이후 금강산 마하연, 금정선원 등에서 수선안거를 성만 했다. 불국사 주지 선학원 이사장 조계종 총무원장(2회) 은해사주지 조계종 초대 포교원장 동국역경원 이사장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등의 많은 소임을 거쳤다. 행정이면 행정, 수행이면 수행, 포교면 포교 다방면에서 조용히 그리고 부지런히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 석주스님과 함께 떠오르는 단어들은 어린이 포교, 애종심, 역경사업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족적을 남겼으나 이 세 분야에 있어서 석주스님의 그림자는 자못 크다. 포교를 위한 전시회라면 수십장씩 글씨를 써 주기도 하고 역경사업을 위한 일이라면 노구를 일으켜 달려가 법문을 하는 석주스님의 면목이야 말로 소를 찾아 길을 들이고 난 뒤 저자거리로 나와 무애자재 하는 그 경지가 아닐까.

"'나고 죽음' 대수롭지 않은 일상사"

가까이서 뵌 큰스님

석 주 스 님 (칠보사 조실)

구랍 29일 아침부터 풀풀 날리던 눈발이 제법 세차질 때 쯤 아산 보문사에 도착했다. 큰 스님과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역경(譯經)과 어린이포교 원력을 단 하루도 놓지 않았던 93세의 석주(昔珠) 큰 스님을 가까이서 뵙게 되면 무엇을 먼저 여쭤 볼까하는 생각이 다 정리되기 전에 보문사에 도착했다. 그러나 석주 스님은 계시지 않았다. 서울로 올라가셨다는 것.

연초부터 서울 칠보사로 수차례 전화를 해야 했고 번번이 스님이 출타중이시라는 답을 들어야 했다. 결국 8일에서야 한 시간을 약속받아 칠보사 스님의 거처에서 3배를 올릴 수 있었다.

"한 번만 해… 나는 발목이 아파서 절을 못해…"

팔을 저으며 절은 한 번만 하라는 노스님의 뜻을 거역하고 3배를 올렸다.

"아흔 셋의 연세 때 뵈고자 했는데 이렇게 아흔 넷 연세에 뵙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상당히 바쁘셨나 봅니다."

"그저 그렇지. 내가 꼭 가야 할 곳이 더러 있어서 갔었어. 올해부턴 다니는 일도 좀 줄일 생각이야. 사람 만나는 것도 줄이고… 이제 책보는 것도 그렇고 어디 가서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자연스럽질 못해. 난 이제 다 된 늙은이야… 하지만 글씨는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써. 글씨 쓰는 일은 해야지. 힘닿는 순간까지는."

재산 부정 너무 많아

그러나 아니었다. 스님이야말로 바깥출입과 사람 만나는 일, 독서, 법문 등의 일상들을 초월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거처에 머물러 있으면서 외부와의 인연들을 단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갈 곳은 가고 볼 것은 보면서 그 대상들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의지가 선연했던 것이다. 글씨는 힘닿는 순간까지 쓰겠다는 의지가 곧 스님이 앉은 선(禪)의 자리일 것이므로.

석주 스님은 15세에 서울 선학원으로 출가했다. 스승 남전(南泉 1868~1936) 스님을 6년간 모시다가 범어사 강원으로 가서 6년간 간경에 매진해 이력종장(履歷宗匠)의 풍모를 갖춘 뒤 오대산 한암스님의 죽비 아래서 선풍(禪風)을 쏘이기 시작했다. 여러 안거를 성만했으며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간에 오직 한암 스님에게 받은 '마삼근' 화두를 타파하고자 일념을 놓지 않았다.

"중국 운문종의 동산수초선사에게 한 선객이 묻기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 동산선사는 '삼 서근이다(麻三斤)'라고 답했어. 그게 뭐겠는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평등하고 차별이 없지. 삼 서근의 도리를 알려면 집착과 차별심을 먼저 버려야 해. 요즘 세상을 보라고. 얼마나 혼잡스러운가. 왜들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지 몰라. 나는 일찍부터 중이 정직하면 승려증도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곤 했지. 자신이 국민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혹은 경영인으로서 정직하면 무엇이 문제겠어. 요새는 신문을 볼 수가 없어. 재산 부정이 너무 많아. 다른 것보다 재산 부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정직하지 않다는 것이거든. 너무 탐욕하고 집착해서 그런 거야."

> "'麻三斤' 도리 알려면 집착·차별심 버려야"

스님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많고 사람과 사람사이의 신뢰가 너무 무너져서 세상이 혼탁해 지고 있다고 염려했다.

"서로 간에 못 믿는 것도 큰 문제야.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부정과 불신이 드러나는 거야."

스님의 글씨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스님에게 '오유지족(吾唯知足)이란 글씨를 받았다. 자신에게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근면해야 한다. 근면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므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 하셨어. 만족할 줄 알면 맨땅에 누워 있어도 안락하고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극락에 가서도 불안하게 살아."

구랍 31일 종정 혜암스님이 입적했다. 바깥일들에 대한 정리를 통해 초월의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석주스님에게 죽음은 어떤 것일까?

"죽음이란 본래 없어. 우주만물이 다 불생불멸(不生不滅)인데 죽음이 어디 있나. 집착을 해서 윤회의 굴레를 벗지 못해 죽고 나고 하는 것이지 본래 죽음이란 없는 것이야. 이 도리를 알아야 탐욕과 집착을 버리는데 세상이 그렇지 못해. 불성(佛性)은 언제나 밝고 신령스럽게 우주에 가득차 있지만 그것을 볼 눈을 갖지 못했기에 나고 죽는 것에 끄달리고 집착하는 것이야."

스님은 나고 죽는 일을 대수롭지 않은

해 동 불 교 대 학 (Hae Dong Buddhist College)

국제학부(國際學部) 신입 수강생 모집

해동불교대학은 15년 전인 1987년에 불교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를 주도하는 불법 홍보를 위한 포교사 법사 삼장법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 그동안 2천여 명의 전법 역군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불교대학이 많이 생겼습니다만, 당시로서는 불교의 대중 교육을 선도해 가는 불교교육 기관이며 전법의 전초기지였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해동불교대학은 그동안 세계불교계와의 인맥과 문화교류를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한국불교를 세계화시키는데 첨병역할을 할 세계불교지도자를 양성하고자 국제학부를 신설하고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국제학부 (International Department)

불교철학전공 (Buddhist Philosophy)
세계불교문화전공 (World Buddhist Culture)
세계불교역사전공 (World Buddhist History)
불교영어과 (Buddhist English)
연령제한 (단, 30세 이상 60세 이하)
불교대학 수료자, 강원 수료자
일반대학 수료자

세계불교지도자과정 (World Buddhist Leadership Course)

국제 법사 삼장법사 승정과정
(國際 法師 三藏 法師 僧正 課程) 氣功師. 瞑想禪師.
Yoga Master
30세 이상 60세 이하
불교대학 또는 강원 수료자에 한함

● 해외 사찰이나 단체에서 수행체험 연수 유학을 원하시는 분
● 외국대학 학위과정(통신) - B.A. 과정(편입가능) M.A. 과정 (BA학위 소지자) Dr. 과정 (MA학위 소지자)
● 꼭 관심 있으신 분은 자기신분과 전화를 밝히고 상담을 요망합니다.
● 모집기간 : 2002년 1월 15일 ~ 2월 25일

해 동 불 교 대 학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경동빌딩 전화 02)3672-5042 팩스 02)3672-5043

후원단체
ABCP (아시아불교평화회의) HBDTA (해동불교법사회) KBOM (Korean Buddhist Overseas Mission) SBN (The Seoul Buddhist News)
해외자매대학 및 단체 인도 몽골 러시아 태국 미국 일본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2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전법인을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 20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권기종(동국대교수) · 최종석(동국대교수) · 인환스님(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김호귀(동국대교수)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 선진규법사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오국근(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장휘옥(동국대교수) · 문을식(동국대교수) · 권탄준(동국대교수) · 박 종(동산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 (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우리춤과 (30명) · 한문학과 (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1년 12월 10일 ~ 2002년 1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미술반)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우리춤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입 학 일 시 2002년 2월 2일 (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org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수보리총터 064)749-4455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역경·어린이 포교 '남다른 열정'
한글대장경 회향땐 감격의 눈물

일상사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 한 구절을 읊어 보이셨다.

일체법불생(一切法不生)
일체법불멸(一切法不滅)
약능여시해(若能如是解)
제불상현전(諸佛常現前)

어떤 것도 나지 않고 멸하지 않는 도리를 알면 부처를 보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신년이라서 그런지 즉석에서 생각나는 질문 하나. 스님의 새해 소망이 궁금했던 것이다.

"다 늙은 사람이 소망은 무슨..."

다소 수줍어하는 듯한 웃음을 앞세우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아산에 지은 보문사에 신도가 많지 않아.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 힘이 된다면 아직 마무리 못한 그 절 불사를 마무리 했으면 해."

훗날 불교 인물사에서 석주스님의 어떤 업적이 가장 부각될까. 다시 물을 필요 없이 역경불사에 지대한 공을 남긴 스님으로 기록될 것이다. 스님은 "한자로 된 경을 우리말로 옮기는 것만 역경이 아니라 **우리글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전함으로써 우리의 정신 속에 부처님 가르침을 녹이는 것이 역경의 근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민족자존이라는 거창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경전의 한글화는 여러 측면에서 큰 의미를 안고 있는 것이다. 석주스님은 우리시대의 역경불사 특히 지난해 318권으로 회향된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 불사에 공로가 지대하다. 동국역경원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역경불사를 활발하게 전개했던 석주스님은 역경된 경전들을 책으로 묶어 보급하는데 앞장섰다.


◇부처님 가르침은 말과 문자에 있는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의지해 진리를 맛보는 것이라 강조하는 석주스님.

1961년 법보원 설립

1961년 5월에 현 동국역경원의 전신격인 법보원을 설립해 활발하게 불서들을 출판, 역경불사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장본인이 바로 석주스님이다.

"그때 말이야. 내가 스무 살 좀 넘은 때였는데, 살펴보니까 신도들이 읽을 책이 없어. 기껏 손바닥만한 지송경 몇 가지와 병풍처럼 접어서 들고 다니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관세음보살보문품' 밖에 쓰이는 것이 없더라고. 그리고 적음스님이 선학원에서 낸 '육조대사전' '부설거사' '극락 가는 길' 등의 책이 있었어. 또 대각사에서 용성스님이 한글로 된 경전을 내고 있었지. '우리말 팔만대장경'이 대한불교청년회에서 나왔고… 뭐 그렇게 불교책이 조금씩 나오는 시절이었는데 내가 운허스님과 인연이 되어 법보원을 열어 운허스님 책과 법정스님 책을 냈지."

석주스님은 법보원을 통해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승만경' 등 10종 이상의 불서를 펴냈다. 주로 불자들이 읽고 신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종류들이어서 인기가 좋았다는 회고다.

석주스님은 지난해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이 완간되어 9월 5일 장충체육관에서 회향법회를 열었을 때 연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단지, 역경후원회 회장이라는 직책 때문이 아니라 일생의 염원이었던 한글대장경 불사가 원만 회향되는 순간에 온 몸으로 느끼는 희열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스님은 법보원을 운영하다가 동국역경원이 설립되자 "한 종단에 두 개의 역경기관이 있을 필요 없다. 한 곳에서 잘 하면 된다"며 법보원의 모든 판권과 운영 노하우를 동국역경원에 넘겨주었었다.

한글대장경 완간기념 회향대법회가 한창 준비되고 있는 지난해 7월이었다. 동국대 대각전에서 열린 역경후원회 법회(삼장법회)에서 역경원장 월운스님이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종단에 석주큰스님이 안 계셨으면 이렇게 한글대장경이 완간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었다. 다소 쑥스러워 하며 법상에 앉아 있는 석주스님을 향해 월운스님이 3배를 하자 대중들도 일어나 3배를 함께 올린 적이 있다. 전혀 예정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석주스님은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이러십니까.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각 분야에서 모두들 수고를 많이 하셔서 이런 결과에 도달했으니 **한글대장경의 완간은 우리 사부대중 모두의 영광입니다**"라는 말로 그날의 법어를 대신했었다.

역경원 최훤환 부장은 "석주스님은 드러나지 않게 역경불사를 돕고 계시는 어른"이라며 "후원회 법회에서 모시겠다고 하면 덥거나 춥거나를 가리지 않고 달려오시고 어떤 법회나 모임에 가서도 역경불사에 동참하라고 강조 하신다"고 말했다.

지난 37년간의 불사로 한글대장경이 완성된 것에 대해 석주 스님은 "잘 되었지만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역경불사는 종단이나 역경원 뿐 아니라 우리 시대의 사부대중, 나아가 전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진행 했어야 할 불사인데 그렇게 되지 않은 점을 아쉬워하는 것이다. 종단의 지원이 미약했던 것이나 승가의 관심 부족이 불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주 서운한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것.

"'법보' 모시기 적극동참"

"어찌 됐거나 이제 절마다 한글대장경을 모시는 일이 남았어. 역경불사에는 마음을 모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 만들어 놓은 한글대장경을 잘 활용하는 데는 사부대중이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할 것 아닌가. **우리글로 된 부처님 말씀을 두루 읽게 하고 또 법보(法寶)로 사찰 마다 모시는 일은 스님들이 나서야 해.** 그런데 그렇질 못하거든.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지난해 보급운동을 했다는데 성과가 얼마나 있었나? (한글대장경 관련 캠페인의 실무를 맡았던 기자가 30여 질을 보급했다고 답했다) 아이구, 그래 그렇다니까. 책값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거 한 질 모시는 데는 스님들 마음만 먹으면 일도 아니야. 신도들에게 그 중요성을 이야기 해 보라고. 다들 법보를 모시는 불사에 적극 동참할 것이야. 단순한 책이 아니라 법보인데 그걸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니 사람사이 신뢰 무너져"

한글대장경 얘기로 화제가 바뀌자 자리를 고쳐 앉으며 이야기를 끊지 않는 석주스님은 못내 서운하고 아쉬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제 전산화 작업을 거쳐 인터넷을 통해 세계 어디서나 한글대장경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산화 불사가 남았다. 평생 한글대장경 불사를 외호해 온 석주스님은 "그것도 시절인연을 따르는 지혜로운 불사"라며 "**부처님 가르침은 문자에도 말에도 있지 않지만 문자와 말을 의지해 그 진귀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니 역경불사건 전산화 불사건 사부대중이 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 주길 바랄 뿐"이라 주문했다.

이판의 길과 사판의 길에서 걸림이 없었던 석주스님. 이제 바깥일로부터 초월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석주스님을 가까이서 뵈면 누구나 느낄 수 있다.

'꼭 어린 아이 같은 노스님.'

글=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원욱스님의
스 님 이 야 기
성륜스님

성륜스님의 그림은 따뜻하다. 묵향이 은은한 기존의 선화(禪畵)와 달리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색깔은 생동감으로 활기에 차 있다. 그 색깔들은 그림 속에서 화려하게 꾸며주는 대상과는 관계없이 멈춰선 채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다. 마치 향기와 색채 그리고 소리들이 서로 교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평면의 그림 속에 멈춰선 물고기의 다음 움직임이 느껴지듯이…

절집에선 좀체로 볼 수 없는 연두빛깔을 처음 접했을 때 난 피식 웃고 말았다. 처음 내가 성륜스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스님의 색깔이 연두빛이었노라고 하면 스님도 웃으실 게다. 그림을 하시기 훨씬 전 성륜스님이 법주사강원 학인이었을 때 처음 뵈었다. 아마 청소년 지도법사를 위한 연수회였던 것 같다. 스님은 우리 조에 속했는데 아주 부끄러움이 많은, 그래서 자주 얼굴이 발그레해지는 감성이 순수한 분이었다. 그렇게 인연이 되어 한동안은 가까운 도반이었는데 내가 스님의 예술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은 뜨악하게 지내고 있다. 사실 우리가 한 작가의 예술적 감수성과 인품을 그가 만들어 낸 작품 속에서 알아낸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가 살아 온 세월과 그림 그리는 과정을 볼

풍부한 감성 선화로 한껏 표현
볼수록 행복감 느끼는 그림들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설사 어느 정도 알고있다 해도 그 사람의 예술적 감수성까지 이해하는 데는 그의 작품과 함께 그의 사람됨을 좋아하지 않고는 느낄 수 없다고 본다. 어쩌면 나는 스님의 그림 속에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납다른 열정이 확연히 살아움직이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머리깎고 먹물옷 입은 수행자의 모든 행동은 다 깨달음으로 가는 긴 여정 중 하나란 것을 아는 데도 시간이 꽤나 걸렸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경전이 되며, 부처님의 행동은 율이 되고, 부처님의 마음은 선이 된다. 그것은 다시 수행자인 스님들과 예술가들을 통해 이 시대의 문화적 보배로 태어나게 된다. 그중 담박에 가슴에 와닿는 것은 물론 그림이다. 수행하는 이가 자신의 수행세계를 무심하게 그린 그림을 선화(禪畵)라 부른다. 선화는 수행을 통해 경험한 '깨침의 느낌'과 그 깨침의 '자유'가 주는 마음의 세계를 그려 보이는 것일게다. 사람들은 선화를 보면서 일상에서 느낀 자신의 깨달음이 작가와 합께 어우러지기를 바란다. 깨달은 사람만이 깨달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림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수좌가 공부한 것을 고승에게 점검받는 것처럼 말이다. 사실 깨달음이란 체험을 문자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승이 침묵하고 선화가는 조형언어로 고개를 돌리며 침묵한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기 내면의 깊은 수행을 절묘하게 표현할 예술적 재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모든 고정관념과 분별을 떠난 대립과 차별이 없어진 걸림없는 대 자유의 세계를 표현하는 그림은 더욱 어떤 틀에도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스님의 예술적 감성에 실려 표현되는 그림들이 이제는 좋다. 묵향 그윽한 노스님의 선화도 붉은 빛과 거친 붓놀림을 지닌 선화의 매력을 놓을 수는 없지만 볼수록 따뜻하고 부드러운 깊이를 느끼며 행복감을 주는 성륜 스님의 그림도 좋다. 행복함을 주는 그림 저 너머로 가장 논리적이며 논리를 벗어난 스님에 삶의 모습이 서려있어서인지도 모른다.언젠가 인사동에 갔다가 길에서 우연히 만나 스님의 생활 공간을 겸한 작업실엘 간 적이 있는데 그 생경한 분위기가 나를 상당히 거북하고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를 쳐다보던 스님이 내 속내를 알았는지 한마디 했다. "자유롭고 싶었지 뭐, 하하!" "절에선 안 자



유스럽던가?" "내가 만약 스님네 절에 산다고 생각해 봐, 오로지 그림만을 그리려는 내게 좋은 느낌일 수 있을까? 그런 정신적, 육체적인 규제 속에서는 내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지 못하지, 또 남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싫고. 그런 자유를 원하는 내가 무슨 주지를 살겠어, 못하지! 수행은 내게 그림이고, 그림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라."

종교와 예술은 둘 다 일상적인 생활로부터 벗어난 삶의 깊이에서부터 솟아나온다. 만약 정갈한 수행공간에서라면 더욱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헤어졌다. 한동안 성륜스님의 그림은 밝은 색으로 가다가 잿빛으로 자신의 향기를 실어내고 '와불 일어나시다'와 귀여운 느낌의 춤추는 달마를 거치는 동안 점점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 같다. 그 뒤에 심곡암 그림을 보면서 나는 스님이 점점 인사동을 떠나 절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미얀마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는 소식을 바람결에 들으면서 노을이 지는 파간의 아름다운 정경들을 그림으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서울 반야사 주지

제 4기 불교의식(범음/범패)학인 및 신입생모집

본 대학에서는 실질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1. 모집대상 – 스님, 법사, 포교사, 의식에 관심있는 자 (각 종단을 초월하여 모집 함)
2. 교육내용
 (1) 정규과정 : 2년
  1) 불공제반의식
  2) 사물(목탁, 요령, 태징, 북 등)다루는 법
  3) 바라, 나비춤(도랑게, 다게, 지옥게작법 등)
  4) 화청(회심곡)
  5) 상주권공(범패)
  6) 특별과정(점안의식, 가사이운, 예수재, 짓소리, 신중작법)
3. 모집기간 – 2002년 2월 28일까지
4. 모집인원 – 30명
5. 입 학 식 – 2002년 3월 13일 오후 2시 본대학 법당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증명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2통

※ 자세한 사항은 본대학으로 문의 바랍니다.
※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은 소개하여 드립니다.
※ 본 대학 학장 혜공스님 음반 및 영상비디오 안내
 1) 음반 – 대령/관욕, 화청1, 화청2, 부모은중경, 상단상주권, 공, 풍성/전통예불
 2) 영상비디오 – 대령/관욕, 상주권공지장불공의식, 신중작법

호남불교전통의식대학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59-14 062-362-8604 / 011-624-8604
명예학장 일응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보유자)
학 장 혜공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전수자)

특허
"B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랑 판매 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 **특징 :**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꽃, 옴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등록됨.

◈추동복 : 촉감이 매우좋고 맵시가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 편함.
◈누 비 : 고급 원단으로 촉감이 부드러우며 소매 끝에 바람이 들지않게 보온성이 우수함.
 (누비상하, 누비두루막, 누비방한복, 누비보온복)
◈장 삼 : 추동장삼으로서는 아주 가볍고 구김이 많이 가지않는 고급스러움을 더한 장삼.
◈가 방 : 이중 방수처리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고 언제나 모양새가 일정함이 특징.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제팔란을 소멸 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판매가격표			
스타일		구 분	판매가
추동복	저고리 바지, 조끼	남·여	150,000
	두루막	남·여	130,000
	동 방	남·여	120,000
누비	上 下	남·여	190,000
	두루막	남·여	160,000
	방한복	남·여	130,000
	보온복	남·여	70,000
장 삼 (조계종 태고종)		남·여	220,000
손 가 방		中	28,000
		小	23,000
바랑(연꽃무늬)			30,000

※ 차이나, 라운드, 신도복등 다양한 제품을 준비함.

지역 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전문업체 "수레바퀴"
기 원 섬 유
본 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F 302호
전 화 : 053)764-4114 H·P : 011)9850-4400

붓다뉴스 닷컴 · 불교만화연구소 '만화공모전'

동심으로 캐릭터 · 애니메이션 미래로

11일 '마리 이야기' 개봉… '오세암' 가을쯤 선보여



◇올 가을 개봉 예정인 애니메이션 '오세암'의 한 장면.

연초부터 캐릭터 · 애니메이션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캐릭터 애니메이션 산업이 21세기 고부가가치를 낳는 문화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새로운 애니메이션 작품과 기획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아직 국내 시장의 상황은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미래 산업으로서의 캐릭터 · 애니메이션 분야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불교계에서도 올해 불교 만화 육성과 역량 있는 신인 작가 발굴을 위한 공모전이 잇글아 열린다.

본지의 일간 인터넷신문 붓다뉴스 닷컴(www.buddhanews.com)이 올 한 해 동안 상설 만화공모전을 실시한다. 불교 소재 만화와 캐릭터 산업발전을 위해 마련된 만화공모전은 붓다뉴스 홈페이지에 만화공모전 안내 창과 공모참여 페이지를 상설 개방하여 각 분야마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분야는 플래쉬 애니메이션 · 카툰 일러스트 · 애니메이션 등이며 붓다뉴스 닷컴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작품을 시디롬이나 디스켓에 담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이달의 만화'로 선정하고, 소정의 선물도 준다.

불교만화연구소(www.okbuddha.com)가 지난해 말부터 실시해 온 '불교만화공모전'은 20일 마감된다.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제1회 불교만화공모전은 불교적 소재가 담긴 모든 장르의 만화를 장르와 편수의 제한없이 접수 심사한다.

불교계가 만화 공모전 등을 통해 이제 겨우 걸음마 수준에 와 있는 반면, 불교계 밖에서는 창작 캐릭터의 개발과 그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 개봉 등의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마고21에서 제작 중인 극장용 애니메이션 '오세암'이 오는 가을 개봉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고 21은 7일 제작발표회를 갖고, "종교를 초월해 어린이와 성인들에게까지 폭넓게 사랑받을 수 있는 튀어난 작품이 될 것이라 자신한다"면서 "국내 필름 페스티벌과 해외 필름 마켓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정채봉씨의 동화 〈오세암〉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다섯살배기 고아 소년 길손이와 앞 못보는 누이 감이가 설정스님의 절에서 지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설악산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배경 속에 천진무구한 어린 소년과 스님과의 우정,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을 독특한 동양적 캐릭터의 이미지로 그려내게 된다.

11일 전국 75개 개봉관에서 동시 개봉된 순 한국산 애니메이션 '마리 이야기'도 화제가 되고 있다. 바닷가 외딴 마을에 사는 소년 남우를 주인공으로 환상의 소녀 마리와의 만남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 뿐 아니라 단행본 출판과 캐릭터 사업 분야 등이 까지 진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극장용 애니메이션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플래쉬 애니메이션(장편 애니메이션과 달리 짧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애니메이션)분야도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플래쉬 애니메이션 분야는 게임과 카드 등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종종 스님과 목탁 등 불교적 소재를 이용한 플래쉬 애니메이션이 선을 보이기도 한다. 이 플래쉬 애니메이션은 지난해 엽기토기 이야기가 대중에 널리 알려지면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네티즌 사이에서 플래쉬 애니메이션의 인기는 폭발적이다. 이같은 열기에 힘입어 종합포탈사이트 다음(daum)에서 '아이 플래쉬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연다. 오는 20일까지 출품작을 마감하고, 28일~2월 6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불교계도 플래쉬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개발, 애니메이션 창작 등을 활발히 진행하여 미래 불교 포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문화담당= **이은자 기자** eje@buddhapia.com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잔설이 덮인 겨울 숲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뒷산을 오른다. 찬바람에 볼은 얼얼하고 가끔 미끄러지기도 하지만, 정신은 활짝 깨어나고 마음은 한결 깨끗해진다. 걸음을 멈추고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면, 가끔씩 나무들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다. 무성했던 나뭇잎을 모두 떨궈버리고 헐벗은 알몸으로 찬바람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그들처럼 인간도 마음의 묵은 짐을 털어 버리고 빈 마음으로 정신의 봄을 기다리라는 것인가. 이럴 땐 보들레르(1821~1867)의 시 '상응(相應, Correspondence)'이 생각난다.

자연은 살아있는 기둥들의 사원
그 기둥들은 이따금 알아듣지 못할 말을 건네 오네
상징의 숲을 헤치며 그 속으로 들어갈 때
숲의 다정한 눈길이 우리를 따라오네

어둠인지 빛인지 광막한
어스름의 깊은 합일 속에
긴 메아리 멀리서 잦아들 듯
색과 소리와 향이 서로 응답하네~.

보들레르 '상응'

저 나무들이 건네오는 말 어떻게 들을까

숲 앞에 서면 인간의 마음에는 어떤 풍경이 그려질까? 만일 그 풍경 속에 어떤 정신이 깃들어있다면, 그것은 어떤 말을 건네 올까? 숲은 단순한 나무들의 집합이 아니라 상징으로 가득 찬 정신적 공간이다. 자연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네 오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삭막한 마음으로 인해 그 언어를 알아들지 못한다. 그리고 '숲의 다정한 눈길'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인간은 풍경이 자아내는 색깔과 소리와 향내를 맡지 못하며, 그것들이 상응하며 만들어내는 교향악 적인 '교감의 그물'에 대해서도 둔감하기 그지없다.

보들레르가 파악한 숲의 언어는 사물 사이의 내밀한 관계와 만물의 조응에 관한 비밀이다. 그는 대자연과 교감하는 인간의 이런 능력을 찬양했다. 하지만 인간을 물질주의적 욕망의 노예로 몰고 가는 부르주아지 사회가 인간과 자연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고사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사회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물질주의적 낙관론으로 치닫던 19세기 서구사회는 인간정신의 소외를 고발하는 이 상징주의자들을 '나쁜 시인들'이라고 몰아붙이고 그들의 시집을 판매금지 시켰다. 이단자가 되어버린 보들레르는 이렇게 인간과 자연 사이의 교감이 끊어진 현상을 '아이러니'라고 봤다. 현대사회야말로 이 아이러니가 판을 치는 '아이러니칼한 사회'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그 교감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현대 시인의 주된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숲의 언어를 알아들는지 가만히 반성해본다. 지금도 내 마음은 물질과 허상을 좇아 얼마나 피곤해 있는가? 머릿속은 쓰레기 같은 정보와 허깨비 같은 텔레비전 화면과 부패한 뉴스거리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저 나무들이 건네 오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올 겨울은 저 나무들처럼 내 마음도 깨끗이 청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문학평론가

김상유 희수작품전 갤러리현대 17일부터

제2회 이중섭미술상을 수상한 원로 서양화가 김상유 화백이 희수(喜壽, 77세)를 맞아 60년대 이후 작품 100여점을 한꺼번에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회를 17일~2월 15일까지 서울 사간동 갤러리현대에서 갖는다.

김화백은 절제 은둔의 생활과 달관의 미학을 담은 작품으로 미술계에서 주목받아온 작가로 이번 전시에서도 '무심유족(無心唯足)', '청산(靑山)', '지족가락(知足可樂)' 등의 작품을 통해 탈속과 명상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한다. (02)734-6111



◇김상유 作 '장락(長樂)'.

달마도와 만남전 롯데화랑 17일까지



◇김창배 作 '달마'.

〈한국의 달마〉 화첩의 저자인 선화가 김창배씨가 17일까지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롯데화랑에서 '달마도와의 만남전'을 연다.

서역인의 이미지를 벗어난 한국적인 달마의 모습을 추구해 온 김씨는 이번 전시에서도 '책 읽는 달마' '차 마시는 달마' 등 독특한 그만의 개성이 드러난 30여점의 달마도를 선보인다.

또한 전시와 함께 11일, 15일에는 선착순 관람객 25명에게 달마도를 현장에서 직접 제작하여 전달하는 행사도 가졌다. (02)726-4428

민속박물관 · 마사회

말 특별전

말띠 해를 맞아 국립민속박물관과 한국마사회가 '새 천년의 역군, 힘과 희망을 주는 말' 특별전을 연다.

말과 관련된 유물을 한 자리에 모아 17일부터 3월 4일까지 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우리 생활과 인연 깊은 말이 어떤 상징성을 지닌 동물인지를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자료로 보는 말 이야기'에서는 신화와 제의, 민간신앙, 사회생활 등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말의 문화적 표상과 기능을 보여준다. '만화로 보는 말 이야기'에서는 말의 생태에서 시작해 전설 · 속담 · 신화 속에 내재하는 말 문화를 만화를 통해 접근한다. (02)720-3138

인사동에 창극 극장 생긴다

2월 1일 개관

전통문화의 거리인 인사동에 창극만을 전문적으로 공연하는 상설극장이 생긴다.

2월 1일 개관 예정인 인사아트프라자 지하 2층에 위치한 '인사동 예술극장'은 200석 규모의 창극 전용극장으로 창극 전문단체인 한국창극원(대표 박종철)이 입차해 1년 내내 창극만을 공연하게 된다.

2월 1일부터 월드컵 기간인 6월 말까지 매일 오후 5시와 7시(화요일 휴관) 공연될 개관 기념작으로는 호색적인 사회의 치부를 풍자한 창극 '오유란'이 예정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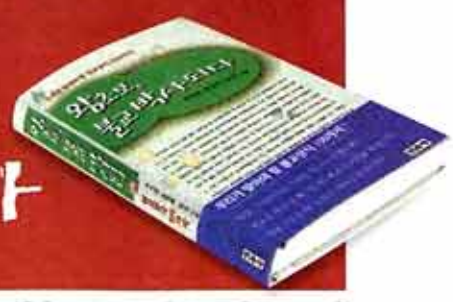
단원들의 평균 연령 26세의 젊은 극단인 한국창극원은 국립극장 기획홍보실장 출신인 박종철 대표가 한국 전통문화의 활성화와 '전통문화 없는 전통문화의 거리'인 인사동의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해 만든 단체로 모두 36명의 단원으로 구성됐다.

한국창극원은 월드컵 기간을 맞아 중국 ·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인사동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 영어 · 중국어 · 일본어로 된 자막을 곁들여 공연하는 동시에이 3개국어로 된 안내 팸플릿과 통역 가이드를 준비할 계획이다.

민족사 전화:(02)732-2403~4 팩스:(02)739-7565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왕초보, 불교 박사 되다



석지현 · 일지 · 윤창화 지음 ▌4×6판 양장 ▌320쪽 ▌값 6,800원

신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불교에 대한 상식과 예절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절에 가서 망신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처음엔 초보였습니다

이 책은 우리 불교신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들만 모아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썼습니다
예컨대 "여성신도를 왜 보살님이라고 부릅니까" "주지스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극락과 지옥은 정말 있습니까" 등등 150가지입니다

영가천도와 49재



파계사 율주 증진 큰스님 감수/박연진 씀 ▌4×6판 양장 ▌216쪽 ▌값 6,000원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극락과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인가?
49재를 지내면 정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책은 매우 자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를 위하여
천도재와 49재를 지내는 까닭을 아십니까?

수행자 삶이 참선 · 포교당 · 보살행

'봐라 꽃이다'

김영옥 지음

수행자의 삶이란 완성된 자로서 펼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위해 서슬 푸른 정진을 하는 과정의 삶이다. 〈봐라, 꽃이다〉(호미)는 그 삶이 어떠한지를 서른분의 스님을 통해 보여준다. 그 주인공들은 도법 · 무비 · 성웅 · 법등 · 혜남 스님 등 한국불교의 내일을 책임(?)질 법랍 30~40대의 중진 스님들이다. 눈 푸른 납자에서부터 학승, 행정승, 도심 한가운데서 보살행(사회복지)을 펼치는 스님



서른 분 스님의 삶 그림 그리듯 묘사

소쩍새마을 재건 등 불교복지 헌신
수행 현대화 · 대장경 전산화에 심혈

등 방편은 각기 다르다. 하지만 서른명 스님을 하나로 꿰는 공통점은 저마다 뚜렷한 원력으로 열심이 정진하고 있는 수행자란 점이다. 물론 그 수행의 궁극은 하나다.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

종범 스님과 무비스님을 통해서는 승가교육의 실상을 엿볼 수 있고, 무너진 소쩍새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보각 스님에게서는 불교복지의 현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다. 보각 스님처럼 보살행에 뛰어든 스님들의 활발발한 현장이 있는가 하면, 수행 방법론의 현대화에 매진하고 있는 스님도 있다. 10년 세월 경전을 멀리했던 수좌 출신인 학담 스님은 "노동에 지친 사람들에게 선은 노동의 생산적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대중적인 수행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간화선이 가장 수승한 방법론이기는 하지만 소리에 유난히 민감하거나 사물의 형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한결같이 정전백수자나 마삼근의 화두를 들이대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또한 역경 사업과 팔만대장경 전산화 사업에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종림 스님, 인재 양성을 위한 불교적 인프라 확충, 농업과 교육을 아우르며 사찰 공동체의 모델을 제시하는 일 등 한국 불교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대안을 찾고 있는 도법 스님 등. 이러한 스님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한국불교의 모습이 생생한 그림으로 펼쳐진다. 수행자의 삶이 곧 선방이고 포교당이며 보살행임을 깨닫는 데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 없다.

지은이 김영옥 씨는 머리말에서 "5년 동안 엿본 수행자들의 삶은 출가의 비롯됨은 어떠했든지 간에 존재의 뜻은 중생에 회향되어야 한다는 신념과 의지의 실천 현장이었다. 그들이 껴안으려는 중생도 한 꺼풀 무명만 벗으면 모두 본래 청정한 부처다"며 수행의 빙편으로 읽을 것을 권한다.

이 책은 월간 '해인' 지에 95년부터 매월 '호계삼소'란 제목으로 연재한 글 가운데 한 권 분량에 맞추어 엮은 것이다. 값 9천원.

출판담당= 김중근 기자 gamja@buddha pia.com

팔리어 대장경 우리말本 완간

쌍윳따 니까야 10, 11권

전재성 회장



원시불교 연구 필독 경전
주요 용어 일상어로 번역

한역본인 〈잡아함경〉으로 알려진 필리어 대장경 상윳다 니카야가 우리말로 번역됐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 회장은 최근 〈쌍윳따 니까야〉 10 · 11권 출간을 마지막으로 팔리 대장경 〈쌍윳따 니까야〉(부록 포함 12권, 한국빠알리성전협회)의 우리말본을 완간했다.

〈쌍윳따 니까야〉는 불교 최초의 경전인 팔리 대장경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부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는 짧은 대화 형식의 경전 2,889개를 모은 것이다. 여기서 '쌍윳따 니까야'는 '주제에 따라 함께 엮은 가르침 또는 경전들의 모음'이란 뜻이다. 연기, 사성제 등 주제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우리말 〈쌍윳따 니까야〉의 가장 큰 특징은 한문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현대의 일상어로 번역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염(sati)'은 '마음새김'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는 각각 '감각적 쾌락의 세계' '형상의 세계' '무형상의 세계'라는 용어로 대신했다.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원전에는 없는 화자를 괄호 안에 넣고 연결부사도 문맥에 맞게 넣고 뺐다.

기존 번역과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은 6,184개의 주석을 달아 최소화했다. 유사한 내용의 한역 경전을 대조할 수 있도록 한역 〈아함경〉의 고유번호를 주석으로 달았고, 동국역경원에서 간행한 한글대장경의 〈잡아함〉 및 〈별역잡아함〉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해당 경전이 있는 경우에는 경전의 제목에 주를 붙여 표기했다. 팔리 원어와 한역 술어도 가능한 밝혀놓았다. 봉정식은 25일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다. 전권 30만원. (02)2631-1381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놔서"

'잼있는 스님이야기'

현진 스님 지음

이야기 하나. 군대 간 청년이 '아' 발음이 되지 않아 작전 중에 죽은 일이 있다. 암호명이 고구마인데 '고구미'라 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억울하게 죽은 아들을 위해 49재를 지내며 "다음 생에는 발음 정확하게 하는 몸을 받으라고"고 빌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스님의 염불소리를 자세히 듣고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니무 이미티불, 관세음보살' 그 절의 스님도 아들처럼 '아' 발음이 안 된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미처 몰랐던 것이다. 깨어난 어머니를 보고 그 스님이 말했다. "보살님, 죄송합니다. 힐 말이 없습니다."

이야기 둘. 입선 시간이었다. 고요함 속에서 어느 스님이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었다. 걱정이 된 입승 스님이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몸을 떨던 스님이 멋쩍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놓아서 …"

〈잼있는 스님이야기〉(다할미디어)는 현진(해인사 포교국장) 스님이 수행의 길에서 만난 스님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비롯해 일상생활과 산중을 오가며 겪은 웃음을 자아내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값 8천원.

일상 삶 밝히는 법문 모음

'밝은 지혜 맑은 마음'

보광 스님 지음

해인사 희랑대에서 정진하고 있는 보광(전 해인사 주지) 스님이 신도들에게 설한 법문을 모은 〈밝은 지혜 맑은 마음〉(장경각)은 일상의 삶을 밝히는 나침반 역할을 해 줄 책이다.

스님은 〈화엄경〉의 발광지(發光地)를 이렇게 설명한다. "목욕하고 나온 사람보고 흔히들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인물이 훤해졌네' 하고 하지요. 그것이 발광지입니다. 거울의 때를 말끔히 닦아 내고 나면 삼라만상이 조금도 일그러짐 없이 거울에 그대로 투영되듯이, 악업을 말끔히 여의고 나면 본래 갖추고 있던 청정한 지혜가 비로소 그 빛을 찬란하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교학과 수행을 적절한 비유와 경전의 인용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 책을 읽는 또 하나의 즐거움은 책장을 넘기다 보면 만나게 되는 사진들이다. 사진작가 손재식 씨의 사진이 법문과 어우러져 책을 읽는 틈틈이 마음을 쉬어갈 수 있게 한다. 값 1만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원 택	김 영 사
2	파아나두라 대논쟁	오 진	운 주 사
3	달라이 라마 행복론	류 시 화	김 영 사
4	내가 본 부처	도 법	호 미
5	봐라 꽃이다	김 영 옥	호 미
6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일 지 외	민 족 사
7	라다크에서 찾은 부처	연 호 택	여시아문
8	만화 지장경	정 일	보광선원
9	현대관음기도 영험록	성 일	불 광
10	꽃은 어디에 피어도 향기를 낸다	최 복 현	지혜의 나무

도서 안내 : (02)737-0695



세계 4대 성불 중 한 분으로 추앙받는 숭산 선사 공안집

온 세상은 한 송이 꽃

무심 편집 | 값12,000원

현암사 전화 : 365-5051~6, 팩스 : 313-2729

사랑의 도깨비 방망이

'운주사의 하얀도깨비'

김자환 지음

누워 있는 부처님이 일어나는 날 참 세상이 열린다는 전설을 간직한 운주사를 소재로 한 동화집 〈운주사의 하얀 도깨비〉(디자인하우스)가 나왔다.

하얀 도깨비는 자신 때문에 부모님까지 떠돌이 도깨비가 될 위기에 처하자 도깨비 마을을 떠나 운주사 뒤편 다탑봉에 거처를 꾸린다. 화순군 국회의원 서봉식 씨의 딸 은희는 언청이다. 이런 딸을 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선거에서 표를 잃지나 않을까 걱정이 된 아버지는 은희를 운주사에 숨겨 놓는다. 삼정은 은희의 말벗이다. 이들 셋은 쌍와불이 누워 있는 다탑봉에서 만나 우정을 나누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운주사의 쌍와불을 훔치려는 도둑들의 음모를 알게 되고 셋은 도둑을 잡게 된다. 이 일로 운주사가 방송에 보도되는 바람에 은희는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된다. 상처투성이의 은희의 아픔을 덜어 주고 싶은 하얀 도깨비는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 자신의 목숨과 은희의 행복을 바꾸려 한다.

책은 각자가 속한 세계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마음으로 사랑하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값 7천5백원.

'초발심자경문' 3부작 완간한 지묵 스님



출가한 이후 주로 수련회와 글쓰기를 통해 생활불교를 이야기해 왔던 지묵(법련사 한주) 스님이 〈초발심자경문 강설〉(우리)을 마지막으로 '초발심자경문 3부작'을 완간했다.

지묵 스님의 '초발심자경문 3부작'은 20년 전 해인사 행자실 증강으로 있을 때부터 시작됐다. 그 때 스님은 행자들을 위해 직접 손으로 〈초발심자경문 난자집(단어장)〉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전이 닳도록 난자를 찾는 게 전통적인 공부법이었던 승가교육환경에서는 이 난자집은 혁명(?)이나 마찬가지였다. 결국 스님은 강원선후배 스님들에게 난자집 찬부의견을 묻는 설문지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보다 폭넓게 학문을 연마하고 수행을 더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난자집이 필요하다. 밤이고 낮이고 난자 때문에 책상 앞에 엎드려서 자전을 뒤적이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격려해 주셔서 용기를 얻고 시작한 것이 오늘의 결실입니다."

3부작의 첫 권은 순천 송광사 화엄전에 소장된 언해본을 영인한 〈초발심자경문 목판본〉(88년)이다. 스님은 이 탁본을 정리해서 책으로 엮어내기 위해 한철을 외부와 담을 쌓고 지낼 정도로 힘들었다고 한다. 고문(古文)을 현대어로 옮기는 일뿐만 아니라 10판 이상이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여서 복원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권은 행자실마다 복사하고 복사해서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낡은 난자집을 소책자와 보급판 두 종류로 출간한 〈초발심자경문 난자집〉(95년)이다. 세 번째 권은 49과로 나눠 풀이한 〈초발심자경문 강설〉이다.

"자경문 읽으며 보조스님 체취 느꼈다"

〈초발심자경문〉 3부작이 〈죽비 깎는 아침〉, 〈산승일기〉 등 그동안 출간한 12권보다 비중이 크다는 스님은 "자경문을 정독하면 800년 전 보조국사의 체취와 고려불교의 생활상까지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며 불제자라면 꼭 읽을 것을 당부했다.

도서출판 좋은인연 TEL - 053)475-3707 FAX - 053)475-3706 E-mail - buddhabook@hanmail.net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우학 스님의 또 다른 수행선시

세월 속에 묻혀 사라질 장면장면을 스님 특유의 간결하고도 선명한 글로 표현한 이 번 책은 수 년 간에 걸쳐 집필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직접 산과 들을 헤매며 찍은 생생한 들꽃과 연꽃이 책 속에서 전시회를 엽니다. 단아하면서도 화려한 연꽃, 흔히 볼 수 없었던 한국의 야생화가 스님의 문체와 함께 어우러져 멋진 드라마를 연출합니다.

"법보시 하시면 알인됩니다."



15×22cm/208페이지/정가 10,000원
하드커버 양장제본, 전면 올 칼라

길 솔 에 청

살며시 드러나는 우학스님의 잔잔한 추억의 발자취를 따라 산과 들, 그리고 출세속의 향기에 취해 보십시오!

▷ 새로운 불교공부(정가 7,500원)
▷ 우학스님 신행상담(정가 7,000원)
▷ 사경시리즈(총 16종 22권)
▷ 경전조사어록
▷ 법화경 사경(1권~7권 정가 6,000원)
▷ 불자수행지참서(정가 10,500원, 양장제본)
▷ 장가 안가길 잘했네 ❶❷(각 6,500원)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❶❷(정가 7,000원, 6,000원)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정가 2,000원)
▷ 삼천배 삼천부처님(정가 10,000원, 양장제본)
▷ 불교 전문의식(정가 5,000원)
▷ 포켓 불자독송집(정가 2,000원)
▷ 금강경 사경노트(정가 3,000원 한문/한글)
▷ 금강경 핵심강의(정가 7,000원)
▷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 [상 · 하](각권 6,000원)
▷ 염불속의 명구(정가 2,000원)
▷ 불교 EQ(정가 5,000원)
▷ 불교적 해석의 명심보감(정가 5,500)
▷ 아하하부처님 오호호부처님(정가 4,000원)

우학스님의 친서 낭송 테잎도 판매중 (주문처 053)474-8229

눈은 눈을 보지 못함같이

시인 장용철의 작고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들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사연이…
감동을 읽는다. 순간을 읽는다!

히말라야나 킬리만자로의
만년설(萬年雪) 곡대기에 가야만이 우주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장 밑 강아지풀 한줄기에서도 우주의 신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태평양 바닷물을 다 먹어 보아야만 바다가 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동해의 물 한 방울만 찍어 먹어 보아도 바다가 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눈은 눈을 보지 못함같이 오직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하고
보여지는 것은 늘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멀리 보기만을 애쓰기 보다
가까이 내 자신을 되돌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팽이가 가장 열심히 돌 때 오히려 제 자리를 잡고 서듯
인생도 최선을 다하며 살 때 아무런 불만의 소리도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자는 제 몸에 생긴 벌레 때문에 죽고 쇠는 제 몸에 난 녹 때문에 스러지고 맙니다

- 본문중에서 -

●값 7,500원

돌샘불꽃 해인행 전화 02)913-0753 팩스 02)913-0755

월인천강지곡 독일어로 불리워진다

함부르크대 삿세 교수 올 봄 번역서 출간



〈월인천강지곡〉이 독일어로 번역돼 출간된다. 〈월인천강지곡〉은 조선 세조가 부처님의 일대기를 적은 〈석보상절〉를 지어 올리자 세종이 주를 달아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한 악장체의 찬불가이다.

유럽 한국학회(AKSE) 회장을 맡고 있는 베르너 삿세(사진) 독일 함부르크 대 한국학 교수는 6년 동안의 번역 작업 끝에 올 3~4월경 〈월인천강지곡〉 독일어본을 한국 소학사에서 출간한다. 책이 출간되면 함부르크 대의 한국학 교재로 사용할 예정이다.

"번역 작업 6년동안 한국불교 이해 넓혀"

고대와 중세 한국어가 전공인 삿세 교수는 "독일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중세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 〈월인천강지곡〉을 택했다"고 밝혔다.

함부르트 대의 한국학 전공자는 40여 명. 중국학과 일본학 전공자 400여 명에 비하면 10% 수준이다. 지금까지 100여 명의 한국학 전공자를 배출했지만, 불교 관련 전공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삿세 교수는 "한국학을 하면서 안타까운 점은 관련 자료나 사전 등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다"며 "수업 중 쓸만한 텍스트도 그렇지만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할 때 필요한 기초자료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월인천강지곡〉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도 마찬가지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불교학 용어에 대한 개념 이해였다. "부처님의 생애만 알아서는 번역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삿세 교수는 "무엇보다 한국 불교와 관련된, 제대로 된 불교학 사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삿세 교수는 "이전에는 불교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월인천강지곡〉 번역을 하면서 불교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며 "불교를 모르면 현대 한국 사회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5월 - 불교학 결집대회 7월 - 日 인도학 불교학회 학술대회

대규모 학술대회로 '도약 기대'

임오년 불교학계

불교학 관련 단체들의 발걸음이 빠르다. 이미 올해의 학술대회 일정을 잡았거나 막바지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올해 불교학 관련 학술대회는 그 때그때 주제를 정하는 게 아니라 몇 년씩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8년에 걸쳐 진행될 한국선학회의 '한국 선(禪) 정체성 찾기', 5년 동안 10차례 열리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가산 포럼 등이 대표적이다.

5월에 있을 최초의 전국 규모 불교학 학술대회인 '한국 불교학 결집대회'와 7월 열리는 일본 인도학 불교학회 정기 학술대회는 참여 학자들의 규모나 논문의 질적인 면에서 한국 불교학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한국불교학결집대회= 올 학술대회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역시 5월 3~4일 동국대에서 열리는 '한국 불교학 결집대회'다. 전국 규모로는 처음으로 열리는 불교학 대회다. 참여 단체만도 30여 개에 이르고, 20개 주제에 200명이 논문을 발표한다. 공동 주제는 '한국 불교의 현황과 전망'으로 정했다. 1월 현재 140여 명이 논문 발표를 신청했다.

△인도학불교학회=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제53회 정기 학술대회가 7월 6~7일 동국대서 열린다. 인도학과 불교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일본 인도학불교학회는 1951년 동경대 인도철학과에서 시작된 후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불교학자 2500여 명이 참석하고 있는 대규모 학술단체다. 정기 학술대회 때는 10개 분과에서 250여 명이 논문을 발표한다. 학회 창립 후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동국대와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공동 주최 형식으로 열리며 '한일 공동 인도학불교학 학술대회'를 겸한다. 개최 대학에서 원하는 주제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동국대선 '한국 불교'를 집중 조명한다는 계획이다.

△가산 포럼=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 불교 지성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계속한다. 이미 지난해 신라시대 7명, 고려시대 6명, 조선시대 7명, 근현대 13명 등 불교 지성 33명을 선정했다. '수행의 가치와 우리의 미래'를 대주제로 열리는 올해 가산포럼에서는 바로 1600여 년 한국 불교사를 밝혀온 불교 지성 33명에 대해 한 사람씩 연구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7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열린다. 가산 포럼은 2003년 불교의 생명관과 우주의 미래, 2004년 불교와 철학이 말하는 시공의 운영, 2005년 수행문화의 사회화를 주제로 매년 두 차례 계획돼 있다.



◇한국선학회가 지난해 5월 '통일신라의 선(禪)'을 주제로 연 학술대회 모습.

△한국 선(禪) 정체성 찾기= 한국선학회가 지난해부터 8년에 걸쳐 한국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법인 간화선의 정체성을 조명하는 자리다. 지난 해 신라시대 선(禪)을 조명한 데 이어 올 4월 19~20일 정기 학술대회에서는 1170년 고려 무신란 이전까지의 고려 전기 선(禪)을 다룬다. '고려 전기의 선'을 주제로 고려초 불교 교단과 선, 구산문의 형성과 그 문제, 고려에서의 전등사서의 유통 등 12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시대별로 나눠 매년 한 차례씩 열린다.

△이카이(전자문화지도 추진위원회, ECAI) 회의= 불교학 관련은 아니지만 5월 22~24일 서울대서 열리는 이카이 회의도 눈여겨볼 만하다. 전자문화지도는 전자지도라는 가상 공간에 불상, 불탑 등 인문학적 자료를 나타내는 사업으로, 문화자료의 전산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고려대장경연구소에는 이번 회의에 맞춰 전자불전인 고려대장경 2002년판과 '한국불상'과 '불탑' 시험 버전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10여 개 국, 50여 명의 관련학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중국서 끊어진 석옥청공 법맥 고려 태고보우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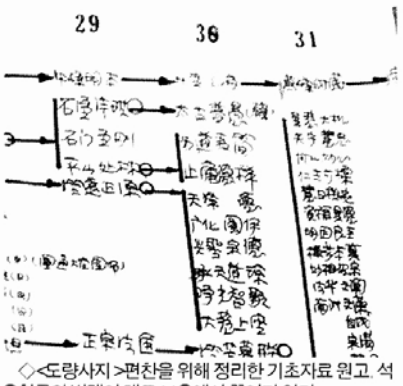
태고학회, 만수사 사적기 '도량사지'서 확인

중국 원대 임제종의 고승 석옥청공이 머물렀던 중국 호주시 도량산 만수사에서 편찬하는 사적기 〈도량사지〉의 도량사 법맥도에 태고보우 국사가 석옥청공의 법맥을 이어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기록된다.

한국불교태고학회(회장 무공)는 지난해 12월 중국 호주에서 '제1회 중국 원대 선종과 차문화 국제 학술회의'를 위해 현지를 방문한 결과, 만수사 사적기 편찬을 위해 정리한 기초자료 원고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9일 밝혔다.

태고학회에 따르면, 만수사에서 1년여 준비 끝에 펴내게 될 〈도량사지〉의 도량사 법맥도 부분에는 석옥청공의 법맥이 고려 태고보우로 이어졌다고 적고 있다. 이 법계도에서는 특히 석옥청공의 법맥이 태고보우를 마지막으로 끊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어, 석옥의 법맥이 중국에서는 끊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장 무공 스님은 "석옥청공의 법맥이 고려로 넘어간 사실을 밝히고 있는 점에서 그들 스스로가 석옥의 법맥이 고려로 옮겨갔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도량사지〉편찬을 위해 정리한 기초자료 원고. 석옥청공의 법맥이 태고 보우에서 끊어져 있다.

석옥청공의 법맥이 고려의 태고보우로 넘어간 것은 〈석옥청공선사어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무공 스님은 덧붙였다. 즉 석옥청공의 스승 급암종신이 석옥에게 내린 '금린(金鱗)'이라는 게송이 태고보우를 인가할 때도 그대로 전해졌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태고학회와 중국육우차문화연구회(회장 동숙탁), 불교춘추사(발행인 최석환) 주체로 12월 27일 열린 국제학술회의에는 원대 선종의 사상사, 한·중 선종 교류사, 차문화의 수용과 전개로 주제를 나눠 2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동숙탁 회장은 개회사에서 "원대에 불교는 임제종의 고승 석옥청공 등이 호주에서 불법을 펼쳤는데, 고려의 태고 보우국사가 석옥청공선사에게 법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高僧 다시보기

신돈, 과연 요승인가

신돈(辛旽, ?~1371)은 본래 승려였지만 환속하여 고려말 공민왕대에 정계를 장악했던 요승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그에 대한 가장 확실한 기록이라고 할 〈고려사〉 열전의 영향 때문이다. 〈고려사〉 열전은 그를 '늙은 여우의 요정'이라고 평하면서 승려로서 온갖 악행을 일삼은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고려사〉 자체가 불교를 배척하고자 했던 성리학자들이 집필한 것이고 보면, 거기서 화엄세계를 실현하고자 했던 고승으로서의 면모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도 모르겠다.

신돈은 본관이 경상도 영산, 속성이 신씨이다. 아버지는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어머니는 경상도 영산군 옥천사(玉川寺)의 노비였다. 어려서 출가한 그는 자(字)가 요공(耀空), 법명은 편조(遍照)였다. 공민왕에게 소개되어 왕의 스승이 된 후 환속하여 신돈이라 이름을 바꾸었다. 청한 거사(淸閑居士)라는 시호를 받았고 곧 진평후(眞平候)에 책봉되었으며 48자나 되는 긴 관직명을 받을 정도로 재상을 능가하는 지위에 올라 정계와 불교계를 주도하였다. 〈고려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민왕과 신돈은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면서 당시 사회와 사상계를 개혁하고자 했다. 신돈은 원나라 간섭기 후반, 원나라와 연계된 권문세족의 부패를 척결하고자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관청을 설치하여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줌으로써 당시 민중들에게

현세 구원적 화엄세계 영원

급진적 개혁 단행 좌절 당해

성인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신돈은 그의 법명에서 보듯 화엄종승으로, 신라 의상 스님이 창건한 낙산사를 원당으로 삼았으며 궁궐과 당시 최대의 사찰인 연복사에서 대규모 문수법회를 자주 열었다. 그가 열었던 법회는 임선된 300여 명의 고승과 8천여 명의 신도가 참여할 정도로 방대했고 당시 민중들에게 문수보살의 화신으로 추앙되었다. 원나라에 유학을 갔다온 설산 천희스님을 진각국사로, 선현 스님을 왕사로 책봉하면서 그가 꿈꾸었던 화엄세계를 그리고자 하였다. 이는 해인사를 중심으로 민중들에게 현세구원적 화엄신앙을 펼쳤던 체원 스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멀리는 의상 스님의 실천적 신앙을 펼친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당시 티베트 라마교의 영향을 받아 신비주의적 성향으로 빠져 너무 급진적인 개혁을 단행하다가 집권 귀족인 권문세족이나 개혁파인 성리학자들에게 제동이 걸렸고, 결국 모함으로 수원에 유배되어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죽음 후에도 공민왕의 자식인 우왕을 신돈의 소생이라 몰아부쳐 '거짓을 폐하고 진짜를 세운다'는, 소위 '폐가입진(廢假立眞)론'이고 불교계까지 매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그가 호색 음탕해서 부녀자들과 자주 사통하였(?)'이라는 멍목하에 그들의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신돈에게 뒤집어 씌워 승려였던 그는 다거나 검정 닭과 흰 말을 즐겨 잡아먹었다는 등등 폐행만 일삼은 역사의 패륜아로만 남게 되었던 것이다.

황인규/동국대 강사

활인(活人) 천역(天役者)자 용

「육임래정비법 혁신판」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비싸게 팔리고 있는가?

명예와 양심을 걸고 역학사(易學史)에 한 획을 긋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또, 오행을 모르는 분을 위해, 오행에 능통한 분을 위해 간판을 자신있게 걸고자 하는 분을 위해, 큰 맘 먹고 다시 썼습니다. - 효사 -

세태 (世態)는 구체적이고 즉시적인 영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육임 신단(神斷)은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시간만 보아 미리 그 사람의 사정과 특별한 비밀과 일의 결과를 묻기전에 내가 먼저 말해 주는 책이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그 날치 한 장에 매시간마다 적혀 있어 거기에 쓰여진대로 보고 말씀만 하면, 그 사람의 자세와 안색이 달라지게 되어있는 책입니다. 육임은 신통(神通)한 학문으로, 사람들이 좋다는 것은 아나 접근이 어려워 덮어버리기 십상인데, 그것을 쉽고 빠르게 활인천역자용으로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낮 사(巳)시 (9:32 -11:32 : 서울지역기준)에 사람이 왔거나 전화했거나 가서 만났을 때, 이 사(巳)시 칸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보고 말씀만하면 다 맞게 되어 있으며, 아래의 내용들을 모두 말할 수 있고 또 적중하는 것입니다.

1. 운세판단 : 이 사람의 운세가 지금 순조로운지 역경스러운지를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2. 수법가부 : 천도 시식 굿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즉 굿을 해야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가, +표, 또는 -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 래방목적 :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묻고자 왔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4. 정황판단 :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5. 초사(初辭) : 문에 들어서자 말자, 전화 오자말자, 가서 만나자 말자 때쯤 내쏟말이 적혀 있으며, 동시에 어떤 귀신이 발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끔 쓰여 있습니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6. 모망가부 : 무엇을 묻든, 그 묻는 일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즉시 보고 말해줄 수 있도록 써져 있습니다.
7. 이해득실 : 상대가 이익을 줄 사람인지, 피해를 줄 사람인지,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한 사람인지를 즉시 판단 하여 말해 줄수 있게끔 써 놨습니다.
8. 선악구별 : 상대가 선한지, 악한지를 표시해 놨습니다.
9. 아타발동(我他發動)여부 : 찾아오거나, 전화를 했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고민사가, 자기 스스로 일으킨 일인지, 아니면 남으로부터 당한 일인지가 써져 있습니다.
10. 원근사 여부 : 묻는 용건이 오래된 일인지, 근래에 일어난 일인지, 자주 반복되는 일인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1. 미기사(未旣事)여부 : 그 일이 이미 일어났는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가 써져 있어 먼저 말할 수 있게 끔 되어 있습니다.
12. 일의 과정 :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일이 시작 · 중간 · 결과로 나뉘어져 좋고 나쁜 것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 표시대로만 말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13. 귀신침범여부 : 찾아오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에 대해 그 시간만 보면 지금 그 사람에게 무슨 귀신이 침범하여 발동하고 있는지를 즉시 말할 수 있도록 그 시간 칸에 다 써 놨고, 그 귀신을 제압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부록에 자세히 밝혀 놨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귀신을 밝히면 반드시 그 집안에 그런 귀신이 있다는 것을 시인받게 되는데, 이를테면 「전사귀가 발동했네?」 라고 들어서는 사람에게 즉시 먼저 말하면 그 집안에 전쟁터에 나가 운명한 분이 있다는 것을 시인받게 됩니다. 이것은 육임에서만 밝힐 수 있는 비법으로 천도나 시식, 또는 굿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크게 활용되고 있음을 밝혀 둡니다.
14. 산소탈 여부 : 지금, 누구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를 먼저 지적할 수 있도록, 탈 부리고 있는 산소를 써놨습니다. 생년월일시를 묻어서 듣고 판단하는 것이아니라 문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전화 받자마자, 찾아가서 마주치자마자 먼저 내놔부칠 수 있도록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산소탈에 대한 제압법도 부록에 밝혀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조부, 조모, 부친, 모친, 형제자매, 숙부, 외조부, 외조모 장인, 남편, 아내, 낙태아 등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15. 사승여부 : 빌미부정 역시 온 사람이나 전화한 사람의 띠만 알면, 상대가 현재 무슨 부정이 들었는지, 빌미부정든 띠들을 모두 써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는 단번에 기선을 제압당해 버립니다.
16. 가상길흉(家相吉凶) :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흉상인지, 길상인지, 이사를 하면 좋을 것인지, 빨리 그 집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 사람인지 여부가 써져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부록 해당 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주치는 그 순간 먼저 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7. 이사길방 : 이사를 하려할 때, 어디로 이사를, 어느 날에 시키면, 언제 어느 해, 또는 어느 월에 가서 좋은 일이 있게 되는지를 아예 써 놨습니다.
18. 소송승패 : 국가와 개인간의 소송, 집안 수상 수하간의 소송, 타인간의 원고 · 피고의 소송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분명히 표시해 놓았습니다.
19. 응기판단 : 묻는 일이 어느 월에 될지, 어느 날에 될지를 정확히 써놨습니다. 또 부록에 그 근거를 밝혀 놓았으므로 이를 보시면 참으로 승부를 낼 수 있습니다.
20. 가해(加害) : 어디 방위에 사는 남 · 녀 누가 피해를 가해 올 사람인지를 밝혀 놓았습니다.
21. 길흉성부단정항목 : 뒷면에, 묻는 용건을 즉시 답변해 줄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묻는 내용 22가지별로 그 답을 써놨습니다.
모망 · 공명 · 구재 · 구직 · 시험 · 혼사 · 임신 · 가정 · 이사 · 소송 · 질병 · 매매 · 출생 · 도난 · 심인 · 대인 · 상면 · 채용 · 투자 · 승부 · 가격 · 경작 · 묘지 · 기후
22. 연명상신법 : 뒷면에, 그 사람 띠만 알면 그 사람의 운세를 밝힐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귀인인지, 천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빈한지사인지, 병들 사람인지, 관재가 있을 사람인지, 등등이 모두 밝혀져 있습니다.

한국 육임학회 각지회
이곳으로 연락하시면 책을 보실 수있고 활인기법에 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육임강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016-227-7074 (토요일) 전남 · 광주 017-614-1130 (화요일) 경기 · 인천 032-549-6633 (월요일)
경남 · 부산 011-558-5496 (일요일) 충남 · 대전 016-445-4580 (화요일) 경기 · 수원 016-745-4703 (목요일)
경북 · 대구 011-530-6652 (월요일) 충북 · 청주 221-2557 (수요일) 경기 · 북부 011-9022-4452 (금요일)
전북 · 전주 011-650-8835 (수요일) 강원 · 원주 017-377-7005 (금요일) 제주 064-723-2435 (토요일)

이 모든 것들이 그날치 한 장 칸칸마다에 시간별로 다 쓰여져 있으므로, 바인더로 된 본 책에서 그 날치 한 장만 빼서 책상위에 놓고 하루 동안 보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몇 명이 오든, 전화가 오든, 가서 만나든 몇 시로 보라는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와도 모두 다르게 구별 할 수 있도록 다 적혀 있습니다.

● 전 13권 · 바인더금박 · 크기 : 540×380×30 · 지질 : 스노우무광 ● 주문전화 : (02) 993-8680
● 입 금 처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 도서출판 복문 ※ 각종 카드로 결기 분할 구입도 가능합니다.

매월별 12권 분권 부록 · 비디오테이프 포함
₩1,300,000원 (일백삼십만원)

육임 1년 신수비결 출시 주문받습니다.
값 250,000원(1,450페이지, 8절 미색모조)이고, 보는 날짜와 시간만 찾아 그것을 보고 말씀만 하십시오. 적중합니다. 띠별 월별 길흉이 신통하게 적혀 있어 평생동안 매년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모든 것 내탓'으로 돌리면 항상 화목

뉴욕의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알며 또는 정신계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자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보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는 먹고 싶어서 애를 쓰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듯이 사람은 진리가 어떠한 건지 듣고 알고, 그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불교라는 단어가 스님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세계가, 아니 우주와도 더불어 같이 진리인 것입니다. 생명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와 같이 일체 만 생명들은 불(佛)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났다 하면 물도 꿈틀거리고 흙도 법망이 있듯이 혈맥이 있고, 인간에게도 혈맥이 있듯이 모두가 태어나면 항상 배우고 느끼고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지혜로워지고, 그래서 교(敎)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단어는 어느 한 군데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와 더불어 우주와 더불어 같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빛보다더 빨리 돌아가는 이 시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할 점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공기주머니 안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우리가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정신계에 한마음을, 한 발짝을 떼어놓고, 빛보다 더 빨리 우수하게 떼어놓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할 줄 알고 자재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물 속에 있는 고기가 물 바깥에 나오면 죽듯이 우리 인간도 공기를 벗어나서는 살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통에서 벗어나고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야 만이 한생각에 우주를 찰나에 돌 수도 있느니라. 찰나에 들을 수 있으며, 찰나에 볼 수 있으며, 찰나에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간단히 생략해서 말하자면. 그런데 불교는 안이하고 활력이 없고, 전적으로 아주 해이하게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마구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체 만 생명이 佛

또 한 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몸 속에 말입니다. 생명체들이 천차만별로 모습을 해 가지고 또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만나고 가고 오고 했을 때, 물 한 컵을 먹었을 때래도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생명들과 더불어 같이 사는 한 개체일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너 자체가 공했느니라.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생활자체가 그대로 여여하다는 것을 부처님이 가르치신 뜻입니다. 여러분 찬찬히 생각해보십시오. 여기 오실 때 한 발 떼어놓으면은 한 발 없어지고, 한 발 떼어놓으면은 한 발 떼어놓은 게 없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또 듣는 거라든가 보는 거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만나는 거라든가 일거수 일투족 다 고정된 게 있던가요? 고정되게 보는 게 있던가요? 고정되게 듣는 게 있던가요? 아무 것도 없어요. 바람처럼 날아가고 또 닥치면 바람처럼 또 날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여하게 살라고 그 뜻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날까지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천을 하자면 아주 간단한 문제죠. 우리가 지금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이 모두 같이 삽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땅덩어리는 좁으나마. 그러나 이 미국사회에 와 보니까 전에도 와보고 그랬는데 부부지간에도 저녁에 나가고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나가면 다음 날 저녁에 들어오고, 아침에 나가면 또 다음 날 아침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집들이 많아요. 얼마나 바쁜지, 땅덩어리가 크고 공기가 좋고 물 좋고 이런 데서도 여유있게 참 안도감을 갖고 편안하게, 어디 가서 편안하게 있지를 못하고 편안하게 놀지를 못해요. 꼭 놀아서만이 노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이 도리를 좀 더 알았으면 몸은 다사로우나 마음은 여유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바쁘다면은 짜증도 날것이요, 화도 날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외로움도 생기는 법이고, 여러 가지가지가 말로는 다 표현을 못하겠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몸에 병들고 마음까지도 병이 들죠, 의욕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 사는 보람을 느끼지 못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몸 속에 생명체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왜 그렇게 몸 속에 생명들이 천차만별로 들어있는가. 우리가 인연에 따라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두 인과성으로 인해서 만난 인연들입니다. 또는 정자난자를 빌어서 자기 영혼과 더불어 같이 삼합이 하나로, 즉 말하자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거죠. 그 인연으로 인해서 만난 졸병들이 있어야만이 육체가 움죽거릴테니까요 또. 그건 자동적인 인연이요, 자동적으로 자기가 지은 인연입니다. 이것을 무시 못하는 것이 뭐냐하면은 인간은 고등동물이래서 아주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것처럼 정수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깐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깐 없고, 현재는 내 몸 속에 주둔해 있기 때문에 몸 속에 주둔해 있는 것이 공했다는 것을 안다면, 바로 나오는 대로 거기다 되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팔자운명이라고 울부짖고 애를 쓰던 것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리를 잘 들으세요. 각자 여러분들 속에 애당초부터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업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생각하기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잘못 행해나가니까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찌들고 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다가오는 거지, 누가 갖다주는 것도 아니고 뺏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팔자운명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기가 지어서, 즉 말하자면 관습과 욕심과 착이, 한 발짝 떼어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로, 현실에 우리 마음도 그러했으면 좋을 것을.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할 것은, 여러분 각자, 자가 발전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개개인에게 자가발전소, 발전소에 에너지가 듬뿍 있다고 합시다. 전력이 들어있다 합시다, 그럼 에너지란 말고만두고라도, 용도에 따라서 수없이 쓰임 쓰임이 다가올 때 그 전력을 다 쓰게 되면은 통신력도 물론이거니와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천하가 다 삼세 과거?현재?미래에 그대로 통신이 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아니 전력이 있다면 밥을 지으려면 밥짓는 전력이 조금 들어가겠죠. 모터를 돌리려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거를 자기 자신들이 대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행복도 누가 뺏어 가는 것이 아니고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행복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관습에 의해서 조상이 잘못됐느니, 조상을 잘못 묻어서 그렇느니, 조상의 탓을 하지 않으면 자기 팔자 한탄을 하고 또 남의 탓을 하고 '너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다 허탕한 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분기를 돋아서 모닥불을 지르는 거와 같아서 병이 들죠. 네 탓 내 탓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은, 금방에 넝마 있는 거 보셨습니까? 넝마 전에 금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상점에 가보면은 사과하고 배하고 한데 섞어 놓은 거 보셨습니까? 전부 끼리끼리 상·중·하 골라서 놓으면 봤지 절대로 같이 섞어놓는 법은 없습니다. 그거와 같이 여러분도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차원에 따라서 만나는 것입니다. 차원끼리 만나는데 누구 탓을 합니까. 네 탓 내 탓 할 게 없이 부부지간에도 부모자식지간에도 모든 게 내 탓이로다. 족같은 사과끼리 만났다면, 어디가 병이 들거나 이래도 자기 탓으로 돌린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남을 원망 안 하면서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러운 행동으로 서로를 위해서 해준다면 항상 화목하고, 돈도 갈기갈기 찢고 야단법석을 하는 집이 아니라면 '요 집에 들어가면은 행복하겠구나!'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싸우고 아귀다툼을 하고 때리고 그러는 가정이라면 돈이 안 들어갑니다, 돈도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고 또 이차적으로는 자식들이 보고 배우는 게 그것밖엔 없거든요. 그러니 대를 물려서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반면에 빗나가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렵니까?



그림 · 최주현

"자신의 뿌리 믿어야 공덕 있는법 육신 믿지 말고 마음부터 찾아라"

요란떨지 않고 봉사하는 것이 참보시

더불어 사는 한 개체일 뿐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배우가 막이 내릴 때까지 그 역을 맡아서 하는데, 우리 인생 한철도 그거와 똑같습니다. 또 애들이 소꿉장난 하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면은 돈을 만들어서 쓰던 거나 장난감을 다 팽개치고 손 툭툭 털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니지만 긴 것도 아니냐는 거죠.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면 주처는 자기한테 있는 거야. 법당에 들어가든 성당에 들어가든 주처는 자기부터 있는 거야. 하나로 돌아가는 이 진리를 하나님이라고 했으리라고 나는 믿어요. 또 주님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자기 주처를 보고 말했던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부처님이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더불어 같이 사는 한 개체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다 할 수 없는 게 부처거든요. 내 몸 안에만 더불어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일체가 더불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말입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수억 겁을 거치면서 진화돼서 인간까지 와서도 수 없는 겁을 거쳤다고 봅시다. 그러면 벌레는 부모 자식이 없었나요.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반복을 하면서 사람까지 등장했다면 내 부모 아님이 어디 있고, 내 자식 아님이 어디 있습니까? 전체가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남의 부모도 부모라는 겁니다. 내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도 내 자식과 같이 생각해라, 살생하지 마라, 의리와 도의, 사랑으로 지켜라, 둘로 보지 마라, 보시를 하되 내가 했다는 생각없이 보시를 해야만이 그게 진정한 보시다. 함이 없이 해야된다. 함이 없이 해야된다는 그 뜻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금방 주었다해도 그건 벌써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나도 지금 한마디 한마디하는 것이 그냥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게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질서를 지키

선행은 결국 알려져

고 문란하게 살아가지 않으려니까 모두 달을 만들어 놓고, 일을 만들어 놓고 정돈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뿌리를 믿어야 된다는 것, 수억 겁을 거치면서 진화시켜서 형성시켜온 참 자기 말입니다. 참 자기를 진짜로 믿는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어떠한 구정물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 때, 너만이 새 물을 나게 할 수 있어. 진짜로 믿는다면 그런 말을 안 해도 벌써 그렇게 되지만은 처음에 초발심인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처럼 앞서 입력을 없어지게 하면서 자꾸 거기다 입력을 시키면 모두가 한군데로 들어가죠. 나는 지금 불교 믿는 사람만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계를 각자가 발전을 시켜야, 지구 한 덩어리를 요런 컵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지구를 한 컵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 컵 안에 우리들은 복작복작하고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뭐 두말할 거 없이 통에 구더기가 그냥 우글우글하듯 말입니다. 그 안을 그냥 기어 나오다가 뚝 떨어지고, 기어 나오다 뚝 떨어지고 이러는 건 또 우리 공부하는 자세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구에 에너지라고 비유한다면 지구라는 우리 몸뚱이도 집입니다. 여러 생명들의 집이에요, 집합소요. 그렇듯이 이 지구도 지금 우리의 집합소예요. 집합소에서 살면서 우리가 오염되게 하고, 인구가 많아서 오염되게 하고 벌레들이 땅 파먹듯 그냥 먹고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다 파먹었다고 봅시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러면 우리가 정신계의 발전을 하고 차원이 높아져야 허공에도 에너지가 잔뜩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모두 높이 있는 에너지도 꺼내서 쓸 수 있는 차원이 돼야만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인생을 살아나갈 때도 역시 그렇고, 가정을 이루어서 나가는 것도 역시 그렇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불가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부처라는 이름 아닌 부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를 건지려면 돼지가 돼줘야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돼지한테 사람이 가면 저항력을 느끼니까요. 안 그럴까요? 만약에 사자가 들이덤빈대도 그렇고 사람이 들이덤빈대도 그렇고 저항력을 느껴서 그 돼지는 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체 만물만생이 다 저항력을 느끼지 않게 하려니까 체 없는 마음이 바로 지금 천백억 화신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걸 보살을 비유하죠. 그럼 지금 시쳇말로 입자라고 합시다. 원자에서 헤아릴 수 없는 입자가 만약에 모두한테 투입이 된다면 투입을 해서 응신이 돼주고 조절을 해주고, 자기 스스로서 그 도리를 아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차원이 돼야만이 이 세상을 벗어났다 할 수 있고, 자유스럽게 산다 할 수 있고, 행복하다 할 수 있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고, 보시 아닌 보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난리를 치고 신문에 나게 하고 방송에 나오게 하면서까지 보시했다고 준다면 이게 진짜 보시일까요? 그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발전시키기 위한 방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 길을 지나가다가도 소 한 마리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너는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구나. 그래 소 모습을 벗고 사람으로서 나오려면은, 또 죽이는데도 아프지 않게 마취를 시키는 것처럼 돌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는 아프지 않고 그냥 가게 되죠. 그러면서 몸을 벗죠. 소의 몸을 벗어서 모든 사람들의 양식이 돼주고, 약이 돼주면서 자기 영혼은 진화돼서 바로 탄생이 되는 거죠.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부처님께서도 그랬단 말입니다. 왼손으로 주는 거 오른손이 몰라야 하고, 오른손이 주는 거 왼손이 몰라야 한다고 했는데 뜻

'팔자 운명' 없는 것 행복은 자신이 만드는 것

이 뭐냐? 또 부처님께서는 하는 사이가 없이 하라, 주는 사이 없이 무주상 보시로 하라고 했습니다. 말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함이 없이 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요만한 거 하나, 하다 못해 없는 사람이나 노인네들이나 또 부자연한 사람들을 목욕 좀 시켰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게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내가 진실하게 하다보면은 그럴 수도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런 고맙다는 소리도 안 들어서야 되나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걸 탓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가 진실하게 자기가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다 알게 돼 있어요. 일체 만물만생이 다 무전통신으로써 통신을 하고 살거든요. 통신을 해서 사랑하고 열매를 맺고 꽃도 피고 나무들도 사랑하고 열매 맺거든요. 우리는 말을 해서 통하지만 정신계에 공부한 사람들이나 또는 새들은 다 말없이 말을 하고 말없이 사랑하고 통신이 돼요. 돌 하나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계의 공부를 하면 말없이 말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의 오십 프로의 물질계와 오십 프로의 정신계가 정맥·동맥이 같이 돌아가는 것과 같은 건데 정맥 하나만 돌아간다고 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는 데 걸리나.

여러분은 자신의 주처, 정신계를 항상 빼놓고 부처님, 주여, 성모마리아여 찾아요. 내가 옛날에 그런 적도 있죠.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하러 들어갔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기껏 잘못해 놓고 신부님한테 가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질까 하는 생각이 너무나 짙게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부님한테 고하기만 하면 죄가 사해질까요? 물론 생각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도 있겠죠. 또 불자들은 부처님 앞에 가서 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기껏 잘못해 놓고는

☞ 18면으로 계속

남 모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보시

☞ 17면에서 계속

그게 사해질까요? 이 마음이라는 게 광대무변하고 아주 영묘하고 진실한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묘한 건지, 그냥 마음이라고 한 마디로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렇게 마음을 가졌다, 요렇게 마음을 갖고, 조렇게 갖는데는 뭐 대뇌에 꼭 찼다고 해도, 아니 좁쌀 알갱이만한 마음이라면 그 좁쌀 알갱이 만한 데서 허공에 꽉 차게 나와요. 진짜로 생각해본다면 서로를 서로가 흉보고 그럴 것이 하나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잘못됐는지, 이쪽은 저쪽 나무라거든.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한 컵 안에서 살면서 뭐가 바깥에 나가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서로 나쁜 일을 하면은 조언도 하고 그저 좋게 내 양심을 속이지 않고 마음을 내주는 거, 가난하면 마음을 내주고, 가난치 않으면은 보시도 하고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것이 사람 사는 도리 아닐까요? 불교든 카톨릭교든 어떤 교를 막론해 놓고 사람이 살고 있는 도리이며 진리이며 의리며 사랑이란 말입니다. 값싼 사랑 말고요.

참자기 뿌리 믿어야

오늘 일체제불의 마음 노래를 안 했지만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법당에 오면 부처님의 형상이 바로 당신의 형상이다, 부처님의 마음이 바로 당신의 마음이다, 부처님의 법이 당신들의 생활법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바쁠 때에는 일정례를 하되 아만과 아상을 버리게 하는 방편이다, 누구한테 절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어디 가서든지 고개 숙이기가 드물겠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나 자기 싹은 자기 뿌리한테 꼭 마음의 절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수없이 형성시켜서 끌고 다니는 장본인이니까요.

또 한마디 할 건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고통이 많을 줄 압니다.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다 그럴 겁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안하고 뛰쳐나간다든가, 속을 썩인다든가, 공부를 못한다든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도 '요 놈 자식아, 공부할 시기에 공부를 해야지 너는 쪽박을 차려고 그러느냐, 뭐를 해서 벌어먹으려고 하느냐.' 하고 욕을 해댑니다. 얼굴을 찌푸리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죠. 왠줄 아십니까? 부부지간도 그렇죠. 네 탓 내 탓하면서 그냥 상을 찌푸리고 그런다면 복이 들어오다가도 나갈 뿐만 아니라 그게 해결이 나질 않아요. 화목할 수가 없게 되죠. 나중엔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보기 싫어지니깐.

자식도 왜 그렇게 되느냐, 부모 자식이라는 게, 전기로 치면 가설이 돼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자식이다 부모다 하는 가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주처를 왜 주인공이라고 그러느냐, 자부처라고 그러지. 그러나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자아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은 많은데 주인공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항상 마음과 육체가 더불어 같이 쉴 사이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니깐 말입니다. 그러니 주인공이라고 할 수밖에

"부처님 마음과 법이 바로 당신의 마음과 법"

없죠. 자기 육신과 마음이 더불어 같이 돌아가니까. 지금 심사숙고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애들과 어른만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일을 하면서 문제들이 많죠? 위 사람 챙기고 아랫사람 이끌어가기가 힘들어서 애쓰는 사람들도 많고요. 지금 시대에는 아마 더할 거예요. 그런데도 쓰이는 거죠. 뿐만 아니죠, 일거수 일투족 다 쓰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라, 발전을 해라, 실천을 해봐라, 체험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주인공에 스윗치를 누른다면, 즉 입력을 한다면 자식의 마음까지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자식에게까지도 가설이 돼 있으니까.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세요,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마음에서 고장난 거지 껍데기인 육체가 허수아비 모양으로 뛰어들어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도 불이 들어오니까 차츰 차츰 나가는 일이 없어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엄마 속을 썩였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하하하. 여기도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어디나.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도 모두 깡패가 생겼다고 야단법석들을 하고, 뭐 두드려 맞고 피를 흘리고 학교 못 보내겠다고 야단들을 하고 그럽니다. 관하는 것만 가르쳐 줬더라면 모든 거를 대처를 하고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북하면 내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살이가 살얼음판을 딛고 가는 형국인데 모든 거를 거기다가 입력하듯이 맡겨 놓는다면 마음도 편안할 것을 속에서 불화가 일어난다고 내던지고 악을 쓰고 부화를 자기가 돋구니까 살얼음판을 딛고 가다가 모닥불을 놓는 셈이거든요, 빨리 빠지게. 그러고 또 팽개치고 내던지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으로 말입니다, 내던지고 불화가 나서 막 팽개치고 이럴 때 그냥 한 대 쥐어박고 싶고, 때리고 싶고, 그냥 죽이고 싶을 때도 있었겠죠. 그럴 때는 살얼음이 깨져서 그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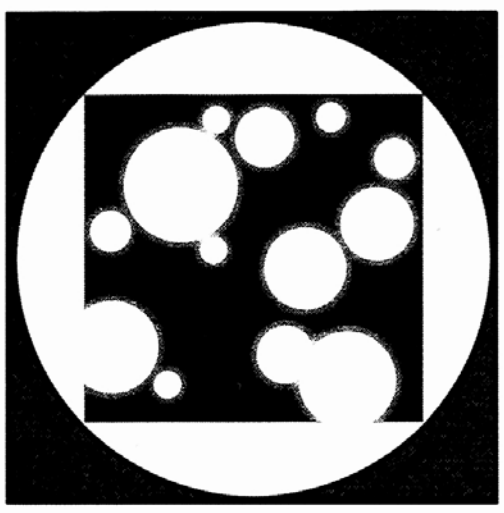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물에 풍덩 빠지게 되죠. 그러면 날 살리라고 허덕이면서 어떻게 바둥바둥해서 나오게 되면은 한 번 빠졌던 그 문제들이 얼마나 진퇴양난인지 모르죠. 그래 가지고 자기 몸 병들죠 재산 없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생살이가 그렇답니다.

배안에선 선장에게 맡기듯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신은 배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육신 속에 있는 생명체들은 중생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처의 중심은 바로 선장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랬는데 부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그 중생들이 만약에 문수보살 · 관세음보살 부처님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친다면 그 배는 뒤집히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장한테 모든 거를 맡기고 가만히 앉았으면 가는 데까지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이걸로 방편을 쓰고 저걸로 방편을 쓰고 해서 여러분한테 많은 설법을 해주셨고 또는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처님이 그 시대에 말씀해 놓으신 그 용어는 너무나 여러분이 어려워서, 나는 현실에 난 사람이니까 현실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대치하면서, 또 그거를 현실로서 대치해서만이 여러분한테 입으로만 말을 한다면, 이론으로만 말을 한다면 말이 그냥 한데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수레를 중심에서 낀 기둥과 같은 그런 마음과 더불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책을 읽고 말 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말을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도 하는 사이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한 사이가 없느냐? 내 몸 속에 지금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들어있고 의식들이 들어있는데 내가 혼자 했다고 하겠습니까? 내 정수에 수없이 엮어 내려온 진리가 바로 대뇌를 통해서 중뇌에서 책정을 내려서 사대로 통신이 되는데 어떻게 내가 말을 했다고 자부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잘 써야 대복을 받고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남의 탓을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점, 남을 밉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금새 모습을 바꿔 가지고 나올 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주어지고 모습도 거기에 따라서 주어집니다. 그러니 잠시 잠깐 살아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모습은 옷 더러우면 벗어버리고 새 옷 입는 거나 똑 같죠?

예전에 다닐 때 눈이 오면 나무에 올라가서 가장구를 깔고 자다보니까 그냥 떨어졌지 뭡니까? 떨어져서 이가 두 개가 부러지고, 또 들아다니면서 소금으로라도 닦았으면 좋은련만 모래로 닦았기 때문에 이가 죄 그냥 버려졌지 뭡니까. 이가 그렇게 되니깐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

가난하면 마음 내주고 여유 있으면 돕고 사는게 도리

고 침이 고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 단속을 잘 하세요. 몸이 없어도 공부를 못합니다, 부딪힘이 없기 때문에. 몸을 소중하게 하세요. 부모가 고생하고 주신 거니까요. 부모가 육을 줬지만 종자는 종자의 근본이 줬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자기 몸을 소중히 알지 못하면은 몸 속에 있는 생명들도 소중히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까지는 고생하지 않고 살아야 살맛도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자: 먼 이국 땅까지 오셔서 감로설법을 내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불가에서는 전생의 업에 의해서 현생을 살고 또 현생에 지은 업으로 내생을 산다고 합니다. 전생에 좋은 업을 지으면은 현생에 좋게 살고, 전생에 나쁜 업을 많이 지으면은 현생에서 고통을 받고, 또 현생에서 나쁜 업을 많이 지으면은 내생에 나쁘게 태어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생과 현세가 묶여있고 현세와 내세가 묶여있고, 그래서 삼세인과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겹쳐있다고 해서 중첩인과설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인과의 법칙이라면 만약에 전생에 나쁜 업을 많이 지어 가지고 현생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마음을 돌려먹고 참회를 하고 마음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그래도 과거에 지은 업을 현세에서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현세에 받지 않고, 즉 말하자면 탕감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참회하면 업 탕감되는지?

▲스님: 아까 말씀드렸죠. 어저께도 없고, 내일도 없고, 오늘도 없다고요. 근데 왜 없다고 말을 하느냐. 업이라는 거, 유전성이니, 업보성이니, 영계성이니, 세균성이니 인과성이 다 없다. 또는 업도 없고 죄도 없다는 것은 오래도록 마음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네가 형성시켜서 끌고 다니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놓을 때에 비로소 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카셋트에 노래 넣었다가 듣기 싫어서 다른 노래 녹음하면 앞서의 노래가 없어지듯이 그렇게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우리 스님네들한테 그럽니다. 무조건이다. 죄가 있다 없다 하면은 건질 수가 없고, 살릴 수가 없다고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생각하기에 달렸다. 뛰어넘으라고 합니다. 떼어놓으면 하나 없어지고 떼어놓으면 또 하나 없어지는데 무슨 거기 업이 붙습니까? 안 그럴까요?

※위 법문은 1996년 6월 22일 미국 뉴욕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스님! 불교TV 나옵니다.

2002년 3월부터 전국 산중사찰 및 난시청 지역에서도 불교TV 시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영상포교의 새로운 장이 될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이 2월말까지 예약가입 할인 행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예약 가입자에 대한 혜택
- ●예약가입기간: 2001년 12월3일부터 2002년 2월28일까지
- ●예약가입기간에만 위성수신기를 한대당 69,000원에 할인판매 (3월부터 정상가격으로 환원 200,000원이상)
- ●가입비 및 설치비: (40,000원) 무료
- ●1개월 무료 시청

월 시청료
- ●SKY-ON(불교TV를 비롯하여 32개 채널+오디오 10채널): **월 8,000원**
- ●SKY-무비(SKY-ON+영화채널 7개등 총 39개 채널+오디오 10채널): **월 12,000원**
- ●SKY-패밀리(전채널 시청 총 72개 채널+오디오 40채널): **월 18,000원**

btn

예 약 가 입 전 화
불교TV 사업부 02-3270-3366~7

※수신기 설치는 2002년 2월부터 3월중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기존 수신기(KBS시청 가능수신기)는 희망시 교체가능 합니다.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규격 50.000원 / 구인 · 구직 규격 4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행자스님, 처사님 (기도하실 분) 함께사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561-6644

비구니50대 사주 볼 수있는 스님 구합니다
011)9413-8922

스님대기중
• 전통의식 천도재
• 각종의식 및 불공
• 부산 경남북 지역
051)462-7374
018)523-7374

고급 보이차
廣雲貢餠 · 七子鐵餠
外 각종 보이차 전문
017)406-6682

조계종 미륵당 고불사
• 석조여래 약사대불 본당
• 서울교당 불지촌
• 기체험 기치료 인생상담
041)566-0358
02)3444-4376
역학, 선체조, 기공문도 모집
www.bulljichon.com

인생의 동반자 구함
63세 서울 거주 남성
마음이 순수하신 여성분
(55세 이상)
연락바랍니다.
019)875-3377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오참법수행
업장소멸로 청정한 자성을 봄
영가로 인해 난치병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구병시식 영가천도로 완치 자신 함.
※ 바른 수행 설법강좌
- 진정한 수행자의 길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20
호동골토굴 017)859-1389

흑단(천연목)염주를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 천주, 백팔주, 단주, 합장주 =
덕 림 산 방
◇ 주소 : 전남 나주시 다도면 덕림 2리 552
◇ 연락처 : 061)337-4879
011)610-4879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강릉
033)648-4579
018)560-1080

지장불교 아카데미
"대구 지장사는 무료 시민 선방과 불교 기호 교리강좌를 연다.
시민선방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교리강좌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붓글씨강좌는 금요일 오후 2시
에 마련된다."
053)629-3108

주부사원모집
국민의 건강을 위한 기업 보령!
그 믿음 그대로 미래를 함께할 주부님을 초대합니다.
▷자 격 : 고졸이상(35~58세)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10~17시)
보령제약(주) 서초지점
교대역 6번출구 법원 동문앞 신한국 빌딩 8층
02)3477-4784

함께 사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기도하실 처사님 모십니다.
055)552-4542
011)855-1116

전통황토방

발명특허 제 300446호
신기술개발 벤처기업
"흙은 만물의 모체다"
국내 최초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황토 베개 개발
※ 전국 대리점 모집
(주) 지정황토산업 032)427-6644~5

사찰 양도 안내
• 위치 : 지하철 2호선 봉천역 부근 지장건물 2층
• 입대평수 : 40평
• 법당 : 삼존불, 지장전, 신중, 산신, 칠성
• 방사 : 3개, 화장실, 욕실, 도시가스
• 보증금 : 2천 5백만원 • 월세 : 70만원
• 시설비 : 절충가
• 특징 : 교통편리지역, 인구밀집지역, 기도영험도량
• 위치 : 성남시
• 부지 : 3000평
• 법당 : 10평
• 요사 : 15평
• 산신각 : 3평
• 매가 : 4억원
• 특징 : 1)주변경관수려함
2)깨끗한 계곡물 흐름
3)증개축이 가능한 곳임.
대중교통 인접지역
사찰정보센타 금강기획 전화 : 02)736-3578~9 fax : 02)736-3589 휴대폰 : 011-789-2255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작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범패 모집과 사찰을 신도 중 같이 운영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사찰부지 12,500평 중 대지 500평
사찰운영 중 범패 초급반 중등반 고급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011)661-9119
031)865-4893

임대사무실 안내
• 위치 : 덕천동 백량산 밑 한국통신 전화 후문
• 평수 : 2049평, 방 3개, 주방 1대(10평)
• 가액 : 전세 보증금 1,500만원 권리금 600만원 (권리금은 직접만나서 가액 절충)
• 주차시설 완비, 주차비완전무료
• 포교당도 가능
016)836-266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 봉고기사 모집합니다.
051)542-4630

탈 종 공 고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귀하
• 사찰명 : 대원암
• 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산 152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할 수 없어 탈종함을 공고함
불기 2546년 1월 7일
대원암 대각자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시 근교
• 대 지 : 900평
• 법 당 : 40평(목재)
• 요 사 : 80평
• 양도가 : 6억
※ 산세수려하고 계곡 좋음
• 위 치 : 경남 양산 시내
• 부 지 : 180평
• 법 당 : 30평(목재)
• 요 사 : 40평
• 양도가 : 2억
※ 역사 깊은 도심 도량 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앞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6만평 도량안에 부지 2000평 동강내리 계곡이 앞에 흐르고 좌우 백호가 뚜렷하며 연꽃안에 동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고 경관이 아주 좋음
기와건물 40평 방 8개 주방 법당 조경이 잘 되어 있음. 천탕 천불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 돌 수십 톤 확보되어 있음. 건강관계로 급 안내
• 가액 : 2억 5천만원(답사 후 절충)
033)378-0555/018)223-2102

포교당안내
• 산책로 입구
• 보증금 500 월 35만원
• 시설비 500만원(가격절충)
• 법회가능(삼존불 모셔져 있음)
031)248-0435
011)9762-2286

사찰 급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부지 : 580평 • 법당 : 15평
• 삼성각 : 4평(조립식)
• 요사채 : 35평(현대식) 교원가능
가액 : 9천 5백만원
043)832-4785

사찰 안내
• 부지 : 일만평
• 용도 : 사찰 및 사회복지시설
• 위치 : 관악산 사당역 부근
• 자연녹지 주거지역
• 가액 : 평당 25만원
011)241-0408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근교 • 부지 : 1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6평 • 가액 : 1억 7천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논산 • 법당 : 20평 • 요사 : 34평 • 부지 : 187평 • 가액 : 1억 2천
• 위치 : 충남 아산 • 법당 : 40평 • 요사 : 50평 • 부지 : 998평 • 가액 : 3억 2천
• 위치 : 강원도(동해안) • 법당 : 27평 • 요사 : 30평 • 부지 : 230평 • 가액 : 2억 8천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전포동 부산전철 역
• 3층건물 3층 약 120평
• 법당 70평 외 방 5개 (살림방 및 공양간 시설 일체 완비)
• 불교대학 및 강좌시설 가능
• 부처님만 모시면 불공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는 상담 후 절충
011)843-567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온천장 근교
• 법당, 삼존불, 지장 108불 교통 및 조건 최적
• 평수 45평
• 큰방 2개, 대형 응접실, 주방
• 부산 포교적지, 샤워시설 주차가능
• 보증금 2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300만원 (즉시 법회 가능)
011)563-4454

시민선방 안내
• 위치 : 부산 남산동
• 평수 : 45평
• 가액 : 4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천만원
016)296-5833

사찰 급 안내
• 위치 : 노원구 당고개역 3분거리
• 부지 : 약 50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 주차 5대
• 가액 : 1억 6천
011)9756-4845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읍내
• 대지 : 100평(등기 88평)
• 건물 : 법당 10평, 요사채 20평, 정남향, 목재 기화, 종교시설 등기, 방 2개, 입식 부엌
• 연혁 및 특징 : 40년 교통, 주차편리, 인적 부지 매입가능, 중창불사 원력 있으신 분 적합
• 가액 : 1억(절충가능)
055)852-4130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소재
• 부지 : 1700평(종교용지, 답)
• 법당 : 25평(목조, 단청)
• 요사 : 2동 50평
• 가액 : 2억 5천만원
• 특징 : 산새와 계곡이 어우러진 청정도량으로 기도정진 할 도량과 포교지로 적지입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읍 소재
• 부지 : 75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목조, 단청)
• 요사 : 2동 60평
• 가액 : 2억원
• 특징 : 도심인근 사찰로 포교지로 좋습니다.

동령불사 전국소재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전화 : 326-1060. 대구 053)283-9698. HP 011-817-2836

『터』(급)안내
• 남향으로 사찰, 납골묘를 할수 있는 임야 주변시세 12만원 정도이나 7080평을 3억 5000만원에 "급 안내"
• 서울 상계동에서 25분거리, 강남 40분거리
• 조용히 글쓰며 휴양 할 수있는 산을 끼고 있는 최고의 별장지, 옆에 작은 사찰과 주변 고급 전원주택 단지 형성
대지 211평, 1억 (후회하지 않을 땅)
011)890-5779 주인 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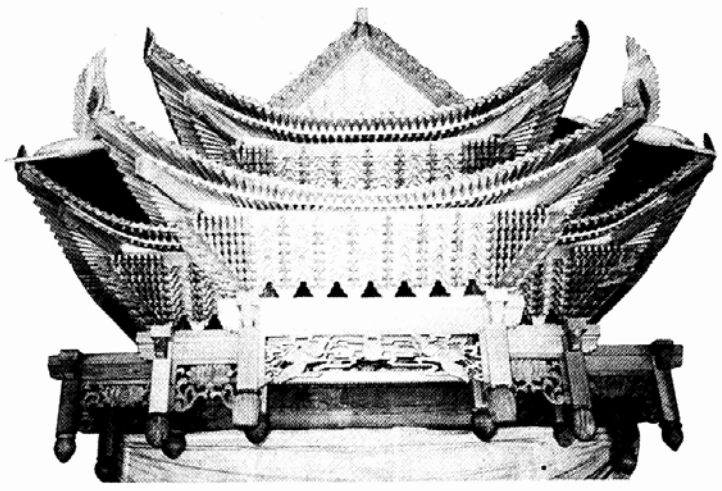
사찰 안내
• 경남 양산시 웅상읍 서창리 소재 산수가 수려하고 계곡이 흐르며 경내에 소나무가 수려함 금락전 지장전 삼성각 용왕전 문수전이 겸해 있음.
• 약 630평 • 가액 : 3억(절충가능)
016)355-4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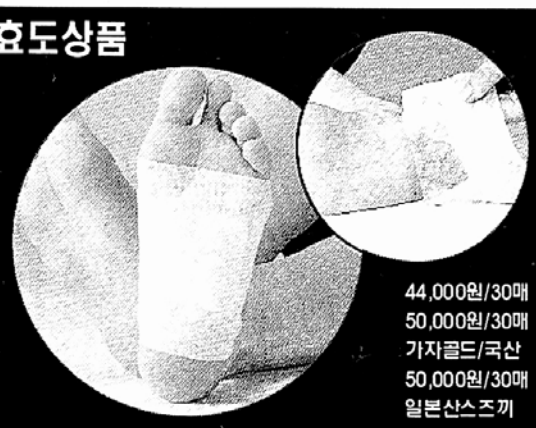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롯데 백화점 부근
• 평수 50평
• 보증금 4천만원 월 10만원
• 시설비 3백만원
011)846-0091

포교원 급 안내
• 보증금 500 월 30만원
• 권리금 기타 950만원
• 약 24평
• 위치 : 울산 중구 학성동
052)296-2840

사찰, 납골당, 주말농장 하실 분
• 주소 : 경남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 산 33번지
• 임야 : 약 9,000평
• 답 : 1,980평 • 가옥 : 한채
• 용도 : 준농림 • 금액 : 4억 • 국도 옆 위치
• 창녕 IC 에서 20분 거리 남지 IC 에서 20분 거리 부산에서 20분 거리
• 연락처 : 창녕 055)526-1712 부산 051)469-1012
휴대폰 : 011)861-0344 김용호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 불교관련 전문 대출기관 -
• 사찰 매매잔금 대출
• 불사자금 대출
• 기타 대출 상담
(대구) 보현사 신용협동조합
053)426-1037
011)527-1037
(서서열 전무)

누리공방

불단 · 닫집(천궁)
전문 공방입니다. 법상 · 경탁등
박연호 합장
TEL : 031)543-7073(공방)
H·P : 031)703-9130
FAX : 031)543-5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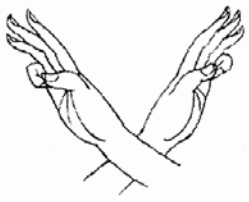
효도상품

44,000원/30매
50,000원/30매
가자골드/국산
50,000원/30매
일본산스즈끼
발은 제 2의 심장 전신의 반사구가 집중 되어 있다
목초수액시트는 동양의학 배독요법의 원리로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 시키기 위해 악초를 게어 붙이게나 고약등을 붙이는 방법과 같은 원리로 개발된 수액시트는 수목의 힘으로 우리몸에 쌓인 노폐물(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통풍, 류마티스등 다양)을 배출 하여 혈액순환이 잘되어 몸이 꿍아지게 되며 건강하게 하여주는 건강법으로 한국, 일본 미국 등에서 인기상품입니다.
잠자는 동안 수목의 힘으로 상쾌하게
▲ 이런 분께 권해드립니다
• 항상 서서 근무하시는분, 팔다리가 차고 시리다
• 쉽게 피로를 느끼는 분, 운동후 피로 회복에
•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분, 만성피로 약을 많이먹는 분
• 산후 또는 각종 사고후 고생하시는 분
• 어깨, 팔굽치, 팔목, 허리, 무릎, 발목등 사용
• 류마티스, 관절, 신경 - 불편하신 부모님께 효도 선물
가자목초 (02) 5454-010
농협 063-02-124288 (예금주:이수일)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㉘

• 군다리명왕 수인 •



1. 발을 어깨넓이 만큼 벌리고 무릎을 약간 구부리며 손은 군다리명왕인을 취한다.
2. 군다리명왕인을 유지하면서 단전을 수축하여 팔을 어깨 양옆으로 서서히 편다.
3. 단전을 이완하면서 손을 하품하생으로 하여 손목을 마주보게 하여 붙인다.



단전 수축-이완

무릎과 팔 운동



4. 이때 발꿈치를 들고 두 무릎을 쭉 펴면서 손을 위로 천천히 올린다.
5. 단전을 수축하면서 무릎을 구부리며 손을 가슴 앞으로 가져왔다가 어깨 양옆으로 편다.
6. 단전을 이완하면서 발꿈치를 들고 무릎을 펴고, 손을 가슴 앞으로 가져와서 천천히 머리 위까지 올린다.
7. 다시 단전을 수축하면서 두 무릎을 구부리며 두 손을 단전으로 가져가기를 반복한다.

새해에 권하는 '건강오계'

"올해는 기필코 담배를 끊겠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겠다"

새해 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목소리를 높이는 새해 계획들이다. 건강관리와 관련한 결심을 새로이 하는 때를 맞아 건강 5계를 제안해 본다.

올바른 식사습관 규칙적인 식사는 건강의 기본이다. 아침에 밥을 먹기 거북하면 소화가 잘 되는 죽과 찹쌀떡 등을 먹는 것이 좋다. 육류를 먹을 때에는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고, 계란은 1주일에 3~4개 이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잡곡밥, 곡류, 콩 등에 많은 복합당질과 섬유소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루 20분씩 운동 운동 강도는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1주일에 3~5일간 매회 20분 이상 조깅을 하는 정도가 좋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빠른 속도로 걷거나 계단 오르기, 정원에서 일하기 등과 같은 낮은 강도의 운동이 효과적이다.

매달 건강수치 체크 나이와 몸무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이완기 혈압 90, 수축기 혈압 140이상이면 고혈압이다. 체질량 지수(체중(kg) ÷ 키를 미터로 환산해 두 번 곱한 값)가 30이상 이면 치료가 필요한 비만이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40이상이 나와야 한다. 혈압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측정 가능하며, 동네 의원에서는 65세 이상 1천5백원, 65세 미만일 경우 3천원의 비용이 든다. 혈당과 콜레스테롤 측정도 동네의원에서 1만원이면 가능하다.

물을 많이 마시자 하루 5컵 이상(200cc)물을 마시면 소화와 배설 등 신진대사를 돕고 감기 등 몸에 탈이 났을 때 체열을 식혀 염증과 고열을 가라앉히며, 유해 물질의 농도를 희석하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자세를 바르게 척추가 삐뚤어지면 요통, 목, 척추에서부터 각종 디스크, 심장, 기관지, 위장 질환 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가, 엉덩이를 의자에 걸치고 앉는 자세는 척추를 삐뚤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집에서 TV를 볼 때 옆으로 누워서 보는 것도 금물이다.



◇눈부신 설원에서 눈 조각품도 감상하고 썰매도 탈수 있는 눈꽃축제가 1월 강원도 일대에서 열린다.



눈꽃축제에 가면

낭만과 추억 '한 웅큼'

1월 한달간 태백 · 평창 · 정선 등 강원도 일대에 눈세상이 활짝 열린다. 만개한 눈꽃과 백짓장처럼 하얗게 펼쳐진 설원에서 산악 썰매타기, 눈밭축구대회, 눈조각 경연대회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푸짐하게 마련 돼 있다. 주말을 이용해 온가족이 동화속의 설국을 찾아가 낭만과 추억을 한웅큼 가슴속에 담아 오는 것이 어떨까.

⊙태백산 눈축제

아홉 번째를 맞이한 태백산 눈꽃축제는 주목군락이 눈꽃을 쓰고 눈과 얼음조각품들이 다양하게 전시돼

태백산

눈꽃 등반대회 가족초대 다양한 얼음조각 감상

화려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도립공원과 당골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18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7일까지 계속된다. 19일에는 도립공원 야외무대에서 소년힙합댄스경연대회가 펼쳐지고, 20일에는 관광객을 위한 태백산 눈꽃 등반대회가 열린다. 등반대회는 당골 광장을 출발해 반재, 천제단, 문수봉, 제당골을 돌아오는 코스로 짜여져 있다. 100팀을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이 행사는 위험한 코스가 없어 가족끼리 손잡고 함께 참여해 볼만 할 뿐 아니라 백두대간의 설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21일에는 설상모형자동차 경주대회, 22~24일엔 세계전통민속공연, 26~27일엔 황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눈발미니축구대회가 열린다. 특히 태백산 등산로에 만들어진 자연 슬로프에서 즐기는 오궁(오리궁뎅이의 약자)썰매는 스키보다 안전하며 엉덩방아도 찧는 등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매년 눈꽃축제에서 관광객들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것은 눈조각 작품전. 이번 축제에서도 역시 2월 말까지 전시되는데 올해에는 눈으로 만든 그리스 신전 등 국내외 유명 눈조각의 20여 조각품을 감상할 수 있다. 태백시청 (033)550-2081

가는길 △자가용: 서울-영동고속도로-남원주IC-영월시내-고씨굴(88번 지방도)-상동(31번 국도)-태백상장 삼거리에서 우회전-황지교사거리(총 297km, 4시간소요)

△기 차: 천도청에서 2월7일까지 매일 태백산 눈꽃열차를 운행한다. 갈때는 영등 포역(07:40), 청량리(08:10)에서 출발하면, 태백역(12:35)에 도착한다. 또 올 때는 태백역(17:05)에서 출발하면 영등포역(22:25)에 도착된다. 태백역에서는 25분 간격으로 행사장까지 시내버스가 다닌다. 총 5시간 30분소요

⊙대관령 눈꽃축제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20일까지 평창군 횡계리 용평 돔경기장 일대에서 펼쳐진다. 특히 올해에는 10주년을 기념해 3~4일이던 행사를 1주일 이상으로 늘리는 등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대관령 인근 마을은 매년 3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마을이 고립되기 일쑤다. 이런 특별한 겨울 환경을 바탕으로 평창군 스키 동호회에서 최초로 시작해 발전한 것이 바로 이 축제의 유래다. 축제기간 동안 앉은뱅이 썰매타기, 설피신고 걷기 등 강원도 산간마을의 옛 겨울 풍속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눈을 소재로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능경봉을 오르는 눈길 등반대회, 속옷만 입고 눈발을 뛰는 국제알몸마라톤대회가 열린다. 또 19일에는 지역 전통놀이인 황병산 사냥놀이가 재현된다. 평일날 시간이 없는 직장인이라면 축제 기간내내 열려 주말에도 참가할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는 것도 축제를 실속있게 즐기는 요령이다. 행사장 주변에 세워진 유럽풍의 눈 성(城)과 이글루 카페를 비롯해 눈조각 경연대회 작품들을 전시하는 행사장을 찾아가보면 축제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다. 또 눈언덕에서 가족과 함께 고무보트를 타고 활강하는 스노 래프팅, 가족 눈썰매 끌기, 스노모빌, 얼음볼링대회, 눈사람맞히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도 언제든지 즐길 수 있다. 놀다가 배가 고프면 곤드레 돌솥밥, 감자 크로켓, 황태구이 등을 파는 토속 음식전을 찾아가보자. 평창군청 (033)330-2399

대관령

썰매타기 · 설피신고 걷기 산간마을 옛 풍속 체험

가는길 △자가용: 서울-영동고속도로-횡계IC-용평리조트방면(약 2시간30분소요)

△시외버스: 동서울터미널 횡계행(06:30(첫차)~18:55(막차) 1시간 간격 12회 운행, 횡계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시로 무료 셔틀버스 운행, (총 3시간 소요)

⊙설악산 눈꽃축제

'아름다운 설악에서 느끼는 솜사탕같은 달콤한 사랑' 이란 주제로 26~27일 양일간 강원 속초시 설악산 외설악 일대에서 진행된다. 26~27일 열리는 토왕성폭포 빙벽등반대회와 27일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하얀산길걷기, 설악산 최고봉 등반대회 등이 주요행사다. 올해로 5회째인 토왕성빙벽등반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360m 빙폭을 오르는 스릴 만점의 프로그램. 일반, 여성, 장년부로 나눠 25일까지 빙벽등반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참가 접수를 받는다. 빙벽등반은 장쾌한 클라이밍의 묘미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입산통제구역인 토왕성폭포는 이 기간만 일반인에게 개방돼 참가자들에게 매력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산악인들의 안내로 진행되는 하얀산길걷기 행사는 미시령 신성봉능선-샘터-신선대-화암사를 돌아오는 코스로 설악의 눈세상을 체험할 수 있다. 이 행사는 약 4~5시간 정도 걸린다. 또 대청봉 등산대회는 8~9시간의 강행군으로

설악산

토왕성 빙벽등반 '스릴' 눈조각 거리 볼거리 풍성

전문산악인들이 주로 참가한다. 이외에도 설악동 상가지역에 조성되는 눈조각거리는 눈으로 즐기기에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 설악눈꽃축제위원회(033)639-2541

가는길 △자가용: 서울-영동고속도로-강릉IC-속초방향(7번국도)-설악산(총4시간30분 소요)

△고속버스: 서울 강남 터미널-속초, 속초 터미널에서 설악산행 버스 20분 간격으로 운행(총5시간 소요)

레저담당=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재생불량성 빈혈로 고통받은
베트남인 리반친에 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베트남 노동자 리반친은 서울대학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귀국하였습니다. 리반친은 정상인에 비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의 수치가 매우 낮아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골수이식수술을 받아야 했으나 맞는 골수를 찾기 어렵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술비 등의 문제로 귀국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다행히 귀국할 때까지 치료를 잘 받아 안정적인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현재 베트남 하노이의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리반친의 건강을 기원해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리반친을 위한 후원과 지출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리반친에게 따뜻한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지명스님, 서울대학교병원 합창후원회,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건화회, (주)세종커뮤니케이션, 베트남 노동자들 모금, 강승화, 강종만, 김고석, 김남희, 김민옥, 김상익, 김성기, 김영자, 노귀남, 노희순, 마음, 박승원, 박종린, 손현석, 이경애, 전재성, 조미란, 천진수, 최덕수, 최윤순, 홍종화

*통장에 실린 이름을 그대로 싣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위와 같이 리반친을 위해 후원된 금액은 총 11,779,570원(서울대병원 현금후원 2,500,000원과 3,400,000원 상당의 헌혈증,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1,500,000원, 베트남 노동자 모금 2,000,000원 포함)입니다.
이 중 병원비 10,830,360원, 베트남 귀국 비행기표 455,000원, 기타 행정비용 128,800 등 총 11,414,16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나머지 후원금 365,410원은 앞으로 급작스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리반친이 베트남으로 귀국할 때 저희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1,000$(1,342,520원)을 모아 귀국 후 병원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제때에 병을 치료하지 못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외국인노동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부설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 합장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411-9 전화. 031-997-2301 / 팩스. 031-997-2309
후원계좌 : 조흥은행 877-06-008223 (예금주-외국인노동자센터)

불교한문학과 개설! (2년과정)

동산불교대학에서는 2002년 새학기 부터
불교학과, 불교미술학과, 우리춤학과에 이어
불교한문학과를 새로 개설 합니다.
한문으로 된 불교경전을 강해하기 위한 한문법이론,
중국고전, 한문불교경전을 공부하여, 우리불자들이
부처님가르침에 대한 깊은 이해로 신심과 신행을
겸비하는 불자상을 목표함.

1. 교과목 및 교수

교 과 목	교 수
한문해석법(1), 한문해석법(2), 천수경, 발심수행장, 명심보감, 장자, 주역,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반야심경	심재동교수 무진장스님 송찬우교수 김병조교수 한정섭법사 김미선교수

2. 개강일시 : 2002년 3월 7일 (목) 오후 7시
3. 교육장소 : 동산불교회관
4. 모집인원(50명 : 정규, 통신)
5. 문 의 처 : ☎ 02)732-1206~8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유체이탈, 쿤달리니 각성을 위한
"무시간" 상태경험

세계 최초 빛과 소리 에너지 진수법 -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

메가플러스 기본사양 / 강력한 효과를 위한 옵션





지구에너지 명상, 차크라, 유체이탈, 쿤달리니, 미간과 백회 차크라개방, 에너지이저, 기타 학습과 창의력, 수면등 21개 프로그램 내장 (기본사양 본체, 녹색광안경, 헤드폰, 사용책자등/미국 마이크로젤사)

* 오라진동무선 (미국 오라시스템사/중국OEM)
* 광안경(빨간색, 청색, 보라색, 순백색 /미국 마이크로젤사)
* 다이내믹 고급 헤드폰 (미국 마이크로젤사)

세계 유일한 듀얼 바이놀비트 시스템

* 메가플러스 명상기는 6개의 상쇄주파수를 동시에 전달시켜 주는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완벽한 이완과 무시간 상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진보된 빛과 소리 기기입니다.
* 듀얼바이놀비트는 6개 상쇄주파수의 배합과 배치에 따라서 그 에너지 수준이 바뀌며, 빛과 소리 프로그래머의 체험을 말이나 문자가 아닌 에너지체로 전수시키는 방식입니다.
* 메가플러스의 빛과 소리 그리고 오라쿠션의 진동을 수동적으로 느끼고 즐기기만 하면 되며, 동시에 사고, 감정, 육체적 반응을 관조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무시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기타 15~120분까지 시간조절가능, 5개톤 변형(45개 프로그램 가능), 학습 및 창의력, 피로회복과 재충전, 불면증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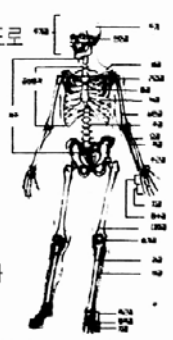
※ 전화주시면 〈뇌파연구와 깨달음〉 소책자와 카다로그를 우송해드립니다
마인드테크 : (02) 888-2142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 류마티스 / 초기 퇴행성관절염 / 혈액순환장애 / 디 스 크 —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 산후바람 /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불교 이래서 좋다

박문수 대학생불교연합회장

"'어떻게 살것인가' 길 찾게"



편안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철학적인 면이 불교의 사상에 녹아 있어 불교가 좋다.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 속에서도 내 자신의 존재를 잃지 않게 붙들어 주며, 서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상생의 가치관을 일깨워줘 일생을 살아가는데 주춧돌이 된다.

특히 불교는 공부하면 할수록 통일이나 환경 등 사회적인 문제들까지도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며 더 나아가서는 '함께 잘 사는 길'을 고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만으로 내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어 준다.

동시에 내가 '불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마다 "남을 좀 더 배려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지"하는 다짐을 할 수 있어 대인관계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살아가면서 불교가 제일 고맙고 위안이 됐던 때는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군대시절이었다. 군법당은 말 그대로 나에게 편안한 안식처였다. 일주일에 한 번 법당에서 법문을 듣고 예불을 드리고 나면 힘들었던 군생활의 기억과 온갖 번뇌 등이 사라졌다.

이런 소중한 체험 덕분에 복학 하고 나서는 대학생들이 취직에 대한 부담감으로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 안타까워 그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대불련 회장에 나설 수 있었다.

여러 가지 행사 준비에 하루 종일 대불련 사무실에서 매여 일을 해야 하지만 대불련이라는 공간을 통해 법우들을 만나고 불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요즘 가장 큰 행복이다. 내가 그랬듯이 아직 불교를 모르는 학우들에게 대학시절 어떻게 보내야 하며 어떤 가치관을 세워 나가는 것이 올바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접하게 해주고 싶다.

담배를 끊읍시다

흡연과 질병

담배 한 개비를 피면 단축되는 수명은 12분, 즉 25세부터 하루 한갑 흡연시 4.6년을, 15세부터 하루 한갑씩 담배를 피우면 8년이상의 수명이 단축된다. 뿐만 아니라 담배를 피면 동맥경화, 호흡기 질환, 각종 암 등에 걸릴 확률이 높다.

▷관상동맥성과 뇌졸중

니코틴은 동맥경화를 일으키며 협심증을 유발한다. 또한 경동맥(맥동맥)의 협소화를 촉진시켜 뇌졸중(중풍)을 일으킨다.

▷암과 호흡기 질환

폐암과 만성기관지염(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90%가 흡연자에게서 생긴다. 폐암은 비흡연자 보다 10배의 발병률을 보인다. 흡연자의 폐암사망률을 보면 반갑이하가 5.5배, 반갑~한갑 5.9배, 한갑~두갑 17.4배, 두갑이상 23.9배에 이른다. 또 흡연은 위암, 성대암, 설암, 입술암(특히 파이프 담배 애호가), 식도암, 결장암, 췌장암, 신장암, 방광암 등 각종 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뇌질환

담배의 독소 중 일산화탄소는 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흡연은 기억력 감퇴 또는 상실, 판단력 감소, 의지력 김퇴 등 여러 증세를 일으킨다.

암 · 뇌질환 확률 높아 … 한개피 수명 12분 단축

불자 가수 **테라** 2집 음반 · 콘서트 준비 '한창'

"'창작의 번뇌' 오히려 즐거워요"

지난해 가요계에 신인 돌풍을 일으켰던 불자 가수 '테라(23 · 본명 장연주)'가 2집 음반과 콘서트 준비에 새해부터 분주하다. 9월 발매 예정인 2집 음반은 일본 팝이 주류를 이룬 1집 음반과 달리 모던락(Modem Rock)과 트리 팝(재즈+힙합리듬)의 장르로 가득 채워질 예정이다. 아직 타이틀 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성세대의 위선을 꼬집는 '성악설'을 비롯해 '안녕' '안아줘' 등 10여곡이 삽입된다. 새로운 장르로 가요계의 깜짝쇼(?)를 연출하기 위해 그는 요즘 녹음실에서 즐거운 창작의 번뇌에 빠져 있다. 그래서 지난해 까지만 해도 간간히 출연했던 사찰음악회나 콘서트도 잠시 손을 놓고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태.

2집 음반에 대해 테라는 "이번 음반에 수록될 대부분의 곡들은 제가 직접 가사와 작곡을 했습니다. 노랫말도 일상의 삶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속의 내용을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3~40대의 장년층까지도 가슴에 편안하게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또 음악활동을 하는데 불교



가 큰 도움이 된다는 테라는 "새해 첫날 평소 자주 다니는 강남 봉은사에 들러 108배를 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음반작업에 임하는 등 새롭고 신선한 음악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테라는 2집 발매에 앞서 2월말에는 라이브 극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해 팬들에게 미리 중간보고(?)를 할 계획이다. '대지, 대지의 여신'이란 뜻의 라틴어 이름인 테라(Terra)가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바로 그가 순수한 한 · 일합작 가수라는 점 때문이다. 테라의 첫 앨범작업때 한국측에서는 가수 테라를 제공하고, 일본에서는 인기 작곡가 히데오 사이토가 팔을 걷어부친 것. 히데오 사이토는 90년대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모리타카 히사토의 노래를 만든 인물. 특히 국내에서도 방영돼 인기를 끌었던 만화영화 '쌍둥이 자매', 영화 '러브레터'의 음악 등이 바로 그의 작품들이다. 이런 화려한(?) 배경을 안고 잉태한 데뷔앨범 '데칼코마니'는 팝록(Pop Rock)의 장르로 구성된 주옥같은 멜로디로 모 방송 가요 프로에서 8위를 할 정도로 청소년들에게는 한마디로 '짱'이었다. 아직까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일본팝의 진수를 맛

봉은사서 108배로 새해 다짐

2집 삽입곡 대부분 직접 작사

볼 수 있는 곡들이어서 인기는 급속도로 번져 나갔다. 하지만 무엇보다 테라가 단시간내에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노랫말을 스스로 쓰는 것과 동시에 어린 나이답지 않게 노래를 기교있고 노련하게 소화해 내는 뛰어난 가창력 때문에 가능했다.

피아노와 기타, 드럼연주 실력을 두루 갖춰 팔방미인이란 평가를 받기도 하는 테라는 "가사 와 멜로디를 통해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음악은 독경이나 염불을 통해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전달하는 불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회가 생기면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해 불음가요를 만들어 포교하고 싶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청소년담당= **김주일 기자** jjkim@buddhapia.com

청소년 탄신

혜능보육원생 초청 캠프

디지털 청소년 열린 상담실은 24일부터 2박3일간 상담실 법당에서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동계 캠프'를 연다.

혜능보육원생을 초청해 함께 할 이번 행사에는 △풍선만들기 △등반대회 △교리공부하기 △불교 습의 의식 배우기 △독거노인 방문하기 △불교 레크리에이션 △촛불의식 △장기자랑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홍자운 상담실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히 놀고 즐기는 차원을 넘어 소외된 이웃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보살행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은평도서관 방학프로

삼천사 부설 은평구립도서관은 겨울 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31일까지 독서 및 논술지도, 바둑교실 등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번에 개설될 프로그램은 △나만의 책만들기(월 · 금: 오전 9시30분~낮 12시) △논술교실(월 · 수 · 금: 오후 1시~오후 4시) △IQ향상 바둑교실(목 · 토: 오전 10시 30분~오전 11시30분) △찰흙공예교실(목: 오전 9시30분~낮12시) 등의 일정으로 짜여져 있다.

양정수련관 봉사교육

부산 양정 청소년수련관은 16일부터 3일간 오후 2시~ 오후 5시까지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자원봉사의 이해, 약물교육, 지역사회 봉사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교육을 수료한 중 · 고생들은 봉사활동 참가 12시간 확인서를 부여 받을 수 있다.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선착순 30명으로 참가인원을 제한한다. 참가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lifelikewind@power1318org로 접수하면 된다. (051)868-0750

네티즌 불교동아리 순례

나우누리 '부처님 마을'

헌혈증 모으기 '열심'

1994년 10월 200여명의 불자들이 신심을 모아 만들어진 나우누리 불교동호회 부처님 마을(대표시샵 정재평 · 이하 나우부마).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PC통신 자체가 위축되면서 다소 침체돼 있지만 자기를 바로 볼 수 있는 수행과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신행단체로 정평이 나있다. 주로 컴퓨터에 익숙한 대학생 불자들이 많이 활동 하지만 초등학생부터 50대 중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현재 회원만도 800명에 이를 정도로 명실공히 시 · 공간, 계층을 초월한 불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나우부마는 불교포교를 위해 불교계 소식, 신행 · 고민 · 생활상담 자료실, 교리강좌, 게시판 등 다양한 코너들을 운영하고 있다. 교리강좌 코너는 불교 초심자들을 위해 불교기본상식, 경전, 역사 등을 통해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돼있고, 게시판은 회원 상호간의 수행점검에서 부터 신변잡기적인 내용들까지 다양하게 올라오는 등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어 회원들에게 인기가 높다.

사이버 공간에서 펼치는 신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우부마는 오프라인 모임을 자주 가진다. 구립 31일에는 나우부마 회원 20여명이 지도법사 정도스님을 모시고 조계사 설법전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하고 1080배 철야 정진을 하며 새해를 맞기도 했다. 이외에도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열리는 정기법회를 비롯해 창립법회, 수련대회,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또한 98년부터는 헌혈증 모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생명나눔실천회에 기증하는 것은 물론 양로원과 고아원 등 불우시설에 정기적인 자원봉사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보살행을 꾸준히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다.



◇구립 31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나우누리 불교동호회원들이 송년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r@buddhapia.com

- 목초 수액 시트 -

화제의 발 건강법



◉ 목초수액이란? 나무가 지하로 부터 물을 빨아올리는 힘에 의하여 생명을 유지하며 뿌리로 부터 수액을 빨아 올려 잎으로 가는 사이에 깨끗하게 정화된다. 이 원리에 의하여 발바닥에 붙여 여분의 수액과 노폐물을 빼주는 방법이다.

◉ 배독요법으로 자연 치유력을 높힌다
나무의 천연성분을 분말로 만들어 발바닥과 환부에 붙여 수독을 배출 혈액을 깨끗히 정화하여 몸이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다. 우리 인체의 약 70%가 수분인데 여기 오염된 수분을 제거하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 잠자는 동안에 배출한다
전신이 편안한 상태인 수면 중 발 바닥으로 부터 뇌로의 자극전달이 제일 좋으며 낮에 활동하면서 아래로 쌓인 노폐물을 잠자는 사이에 빼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용천에 시트를 붙이면 수분의 빠짐을 원활히 할 수 있다.

◉ 21C 새로운 건강법 목초 수액시트
우리 몸안에 노폐물이 쌓이면 건강을 기대할 수 없으며 우리 몸에 대사기능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인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면 우리몸의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다.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항상 서서 근무하시는 분
◆ 운동선수 ◆ 항상 몸 컨디션이 불편한 분
◆ 가정주부 ◆ 산후조리, 시고 저린 손발
◆ 굽어진 근육, 어깨, 무릎, 허리 등이 상해에 집니다.

❖ 부모님에 대한 최고의 효도선물!!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의약품이 아닙니다)
우체국 014092-06-011003 (예금주) 김건순

Tel. 02)455-6944, 02)453-5851

귀 대창 불교 건축

◦사찰 대웅전 건축 전문 업체
◦고건축 시공
◦문화재 복원 개보수 업체
◦한옥(전통한식)
◦황토방 시공
※ 불사 하실 스님 상담 환영

귀 대창 목재

* 태백산 일대에서 벌목한 육송
◦판매 종류규격
◦연목 : 12자~24자까지 5치~8치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자 2치
18자 : 1자 ~ 1자 8치
20자, 24자 : 1자 ~ 1자 8치
30자 : 1자 ~ 1자 7치
36자, 40자 : 1자 ~ 2자까지
◦기둥 ◦도리 ◦대들보 ◦일주문 기둥
※ 원하시는 치수로 제작 가능합니다. 주문 연락 주십시요.

(주) 대창종합개발

대표전화 본사 02)595-1573 FAX 02)595-1575
제1공장 054)781-4989 FAX 054)781-5989
H·P 019)327-0374
이종봉 합장

山蔘의 효력이 없다고요?

만삼蔓蔘(黨蔘)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에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제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후 몸조리에 사용할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약재라 합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낳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벌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읍니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심정으로 영가에 드리고져 합니다.
(시중가 Kg당 3만5천원을 1만5천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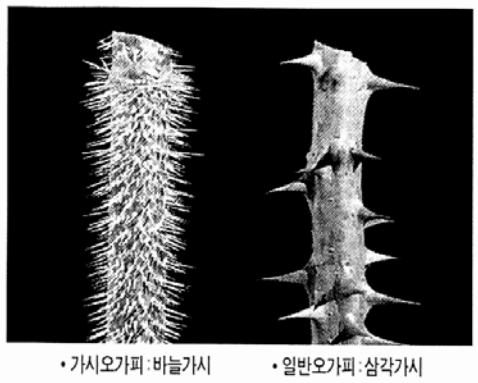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성 명 : 심정택 H·P 016-345-8292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고려가시오가피

가시오가피로 만든 제품은 일반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다릅니다.

GOLD

〈가시모양비교〉



• 가시오가피 : 바늘가시 • 일반오가피 : 삼각가시

오가피 전문회사에서 정성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상으로 보내드립니다

가시오가피 건강상담 무료자료신청
문의전화 02-517-0809, 5333

천진 한인불자회 홀로 섰다

공안탄압 피해 4년전 호텔서 창립

월암스님 포교…회원 200여명으로

"중국 교포불자들이 열심히 경제생활을 하면서 신행을 펼칠 수 있도록, 공안당국의 감시와 간섭이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6일 중국 천진(天津)시의 한 호텔에 마련된 법당(불광선원). 100여명의 천진한인불자회(회장 선우길) 회원들이 탱화와 불상을 모신 후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렸다. 중국이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최근 W.T.O.에 가입하면서 불교에 우호적인 정책을 갖게 된 기회가 교포불자들에게도 적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천진에 불교모임이 시작된 것은 지난 6년전. 1996년 6월 몇몇 보살님들이 모여 매달 가정법회를 시작하면서, 20~30명으로 참석자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옥외 종교집회가 허용되지 않고, 3성급이상 호텔내에서 외국인끼리만 법회가 가능했다. 때문에 97년 12월17일 선달호텔 17층에 법당을 마련하고 '천진 한국인불자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99년 초파일 때는 중국 사찰인 대비원에서 어렵사리 홍콩에서 조성한 부처님을 서울 동명사 주지 지명스님이 보시한 탱화와 함께 모셨다. 이 해 5월부터는 북경대 철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던 월암스님을 한달에 2번 모셔서 법문을 들을 수 있었다. 2000년 12월에는 보다 넓은 금장호텔로 법회장을 옮기게 되고 매주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이 신중탱화를 보시해 매달 초하루기도에 신심을 기울일 수 있었다.

200여 회원으로 구성된 천진불자회가 이처럼 홀로 설 수 있게 되기까지는 지난해 '중국 돈오선 연구'로 북경대서 박사학위를 받은 월암스님이 창립때부터 지도법사를 맡아 중국 현지 교민 포교를 위해 남다른 열정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월암스님은 이미 93년 북경의 중국사찰 광제사에서 '북경 한국인불자회'(회장 김상영) 창립을 이끌어 우학생, 상사 주재원 가족 등 5백여명의 신행을 지도하기도 했다. 매주 토, 일요일 두 시간 거리의 북경과 천진을 오가며 법회를 주관하면서 신앙상담 교리 강좌 등을 열어, 신도들의 귀의처 역할을 했다. 불자회 창립당시만 해도 중국정부의 간섭과 감시가 심해 스님도 몇차례 공안당국에 연행되는 고초를 겪었다.

중국의 두 불자회는 그러나 월암 스님이 학위를 취득, 귀국길에 오르면서 후임 법사를 구하지 못해 많은 애를 태웠다. 스님의 학비와 생활비 주거비 전부를 부담하겠다고 나섰지만 지원자가 한명도 없었다.

다행이 지난해 말 이를 안타깝게 여긴 마산 금강정토사의 자원스님이 몇 달간 지도법사를 맡기로 했지만, 오랫동안 상주하며 지도하는 지도법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천진불자회 여성신도회장인 하진여성(49) 보살은 "중국 교포불자들은 대부분은 중국에 와서 불교에 귀의한 분들이지만, 신심도 두텁고 불교공부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다"며 국내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중국 천진시 한인불자회가 금장호텔에 마련되어 있는 법회장에서 법회를 봉행하며 교포불교 활성화를 발원하고 있다.

종파·종교간 화해상생 다짐

신년하례 법회 잇달아

임오년 새해를 맞아 출가와 재가, 종파와 종교간의 화해와 상생을 다짐하는 신년하례 법회가 이어지고 있다.

5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부산불교신도회 주최로 열린 부산불교계 인사 신년하례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 안상영 부산시장,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강선태 불교신도회 회장 등과 각 사암 주지와 신행단체장 등 4백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부산불교신도회는 강동균 사무총장이 밝힌 신년비전을 통해 △불교의 역할 확대를 위한 병원, 유아원, 화장장, 납골당 건립 추진 △교육불사를 위한 불교대학 설립 등을 제시했다.

대한불교 본원종은 5일 예천 연방사에서 종정 태허스님을 비롯 총무원장 대화스님, 종회의장 대운스님, 감찰원장 관곤스님, 포교원장 대봉스님 등 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신년하례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종정 태허스님은 유시를 통해 "모든 임원과 종도들이 뜻을 합쳐 종단발전과 더불어 중생제도에 앞장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불제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대구 동화사도 5일 프린스호텔에서 보광원 조실 화산스님,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원명스님, 전 동화사 주지 무공스님, 주지 성덕스님과 문희갑 대구시장, 박근혜 한나라당부총재, 장영관 신도회장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성덕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화합을 이끄는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또한 9일 열린 부산 사하불교연합회 신년하례법회에는 사하불교연합회 고문 수진스님, 회장 자인스님, 박재영 사하구청장 등 3백여명이 동참했다. 같은날 삼광사 지관전에서는 부산종교인 평화회의 주최로 7개 종단의 종교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생, 화해, 나눔을 위한 부산 종교지도자 신년 하례식'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부산=천미희 기자
대구=손법천 지사장



◇5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부산불교지도자 신년하례회.



◇대구 동화사가 5일 프린스호텔에서 주최한 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



◇5일 예천 연방사에서 봉행된 대한불교 본원종 신년하례법회.

목탁소리

중앙신도회의 섭섭함

김 재 경 (취재1부 차장)

현재 출가 수행자의 단체만을 일컫는 말이 된 '승가(僧伽, samgha)'는 초기에는 출가수행자인 비구(比丘) 비구니(比丘尼)뿐만 아니라, 재가 남성신도인 우바새(優婆塞)와 여성신도인 우바이(優婆夷)를 포함한 4부대중(四部大衆)으로 구성되었다. 재가대중은 신도인 동시에, 불교를 외호하는 불교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지난 6일 해인사에서는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의 영결식이 온 국민의 애도속에 종단장으로 엄수되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법회에 '옥의 티'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조계종의 재가대중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이 의전상 적지않은 홀대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백창기 회장의 자리는 말석에 배정되고 정치인들 말미(경북도지사 뒤)에 조사를 했으며, 심지어 이름끝에 붙어야 할 회장 명칭이 생략된 채 '중앙신도회장 백창기'로 호명되었다는 것.

중앙신도회는 조계종과 해인사에 조만간 공문을 보내 유감을 표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해인사측은 중앙신도회장이 종단장의 주인이라는 생각에 손님들에게 상례를 표하려한 것일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오는 6월에는 4대 지방선거가 잇달아 열리고, 12월에는 대선이 있다. 행여나 법회에 참석하는 정치인들을 우대한다는 명분아래 재가대중의 대표를 소홀히 대하는 일은 없어야 겠다. 그것이 불교의 위상과 존엄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재가자를 교단의 일부로 인정하는 스님들의 인식 전환과 재가자들의 주인의식 제고가 이뤄지길 다시한번 기대해 본다.

인도에 한국사찰 '석가세존사' 건립

동명불원, 2005년까지…대웅전·반야원 등

인도 불교가 제 2의 중흥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인도에 한국사찰이 건립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인도 쉬라바스티에 건립되는 석가세존사(주지 선혜)는 한국 불교를 알리는 거점이자 스님들의 수도원과 인도에서 활동하는 현지 스님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된다.

4천여평의 대지에 조성되고 있는 석가세존사는 현재 2백여평 규모의 요사채를 이미 완공하고 스님이 머물고 있으며 2005년까지 160평 규모의 대웅전을 비롯 정진을 위한 반야원, 보현당과 스님 수행당, 선원, 신도들의 수행과 숙박을 위한 공간 등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한 한국 전통 건축양식을 살리되 우기철이 긴 현지의 사정을 고려, 대웅전 사방을 회랑으로 둘러 실용성과 웅장함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인도 4대 불교성지 중 한곳인 쉬라바스티에 조성되는 석가세존사는 한국 불교를 알리고 인도 현지인들의 위한 복지사업을 펼치는 중심지인 동시에 인도 현지를 여행하는 한국 불자들을 위한 숙소 및 수련기관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대규모 불사를 추진하기 위해 석가세존사 창건위원회를 구성한 동명불원 주지 장산스님은 "석가세존사는 스리랑카식, 태국식, 중국식, 한국식 등 다양한 불교가 성행하고 있는 인도에서 인도 풍토에 맞는 한국 불교를 정립하는 중심 도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지인에게 한국 전통 불교를 교육하고 수행하도록 하는 인재 양성 기관으로도 활용할 것"이라며 "한국의 많은 불자들이 석가세존사 건립에 동참해 인도 현지인들에게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3천여평의 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한편, 인도 승려를 한국에 초청, 한국불교교육 기간에서 교육을 받게 한 후 인도로 돌아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도에서 활동할 현지인 스님 양성도 구체화하게 된다. 현재 한국의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300kg을 협찬 받아 간호사 출신 자원봉사자가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는 석가세존사는 앞으로 반야스쿨을 개강, 영어, 힌두어 등을 교육하는 등 사회복지 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福 메주
100% 純우리 콩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깊은 맛을 빚어내는 옛날메주
금강경 독송회에서는 침서리가 내려앉는 음력 10월이면 해년 메주를 만들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갑식아동을 돕기 위해 메주 불사를 합니다
금강경 복에주는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정진하면서 손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정진의 기운과 정성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복에주는 영주에서 재배한 100% 우리콩을 가마솥에 넣어 장작을 때고 삶이 나무틀에 넣은 다음 손으로 다재해어 햇볕과 바람 진흙으로 만든 토목에서 정성껏 말리고 발효시킨 자연발효 옛날 메주입니다
금강경 독송회에서는 복에주로 담근 된장을 13년째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정성으로 만든 된장이 보인 발뜸등에 돌려 우리 옴의 기운을 돋구주 없은 불자님들께서 메주 불사에 동참하시어 무시겁으로 지은 업장심이 사원하게 풀리길 발원합니다
◑ 생산지 : 포항 금강정사
◑ 메주 : 말 55,000원
◑ 참기름과 된장(죽염), 고추장, 국간장, 분말메주도 언제든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메주 주문 연락처 : HP 011-203-6567 · 019-820-5587
포항 (054) 261-2231 서울 02) 742-0172
부산 (051) 514-3566 대구 (053) 425-3063
울산 (052) 245-0337 대전 (042) 862-8638
창원 (055) 299-5419 수원 (031) 253-2677
군산 (063) 452-7852 광주 062) 681-3268
강릉 033) 644-9009 복식품

게시판

▲야생조수 사랑의 먹이주기=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27일 겨울 혹한기를 맞아 '제3차 야생조수 사랑의 먹이주기' 행사를 지리산 구룡계곡에서 갖는다. (02)723-6258

▲찻집 '적수방' 직원 모집=서울 불광산사는 1월중에 찻집 '적수방'에서 일할 직원을 모집한다. 50세 이하의 여성불자로, 중국어 가능자를 우대한다. (02)2276-0993

▲동산불교대학 20기 모집=동산불교대학은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의 2002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불교학과, 불교미술학과, 우리춤학과, 한문학과 등이며 원서접수는 31일까지다. (02)732-1206

▲청소년 겨울 수련법회=영남불교대학은 '단기출가, 세상-수행-나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야사 청소년법회를 16일부터 2박3일간 통도사 설법전에서 갖는다. (053)474-8228

▲청각장애인(수화, 구화)운전 무료교육=광림사 연화복지원은 청각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한 무료운전교육을 실시한다. (02)2202-5831

▲어르신전용문화센터 이용 안내=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60세이상의 어르신 문화전용센터를 이용할 어르신을 모집한다. 컴퓨터 한글교육, 인터넷, 관광영어 초급, 수족침,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02)385-1351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청강 대 진 입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벌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꼭 이런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신어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곱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보시금은 백록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우리 몸의 독소가 만병의 근원
기적의 미라보타 플러스
독소를 제거해 줌으로 나타나는 효과
간질환 간염, 간경변, 지방간 등 간기능 저하 및 급만성 간질환
급만성위장병 급체 위장 장애는 그때마다 복용으로 치유되고, 만성은 1일 3회 정기적 3~12개월이면 신효한 효력 있음
부 인 병 월경복통, 월경불순 2~5주 이상으로 치유
출 혈 협치질, 비출혈은 3~5일 내외로 중지되며 1~3개월이면 원인적 치유됨
만성변비 두약을 조절하여 복용하지만(증합병원 임상 99%) 매우 심한 환자는 1회 3~15캡슐
알콜중독 2제 복용으로 특효. 술로 인한 제반 증상이 치료 또는 호전됩니다.
약물중독 급성약물중독자에 1~2주 복용시 제병상의 치료 및 후유증을 해소시켜 준다
마약중독 경미한 중독자(1~2년) 24시간 OK, 경중한 중독자(2~5년이내)48시간 OK, 5년이상 중독자 72~144시간 OK
식 중 독 식중독 발병 30분 이내에 복용하면 99% 치유되며 24시간이 경과하면 80%까지 저하됨
농약중독 취약에 중독된 개가 죽어갈 때 40캡슐 투약하면 15분이면 소생함.
연탄가스중독 중독시 40캡슐을 물에 혼합하여 복용 후 15분이면 회생하고 후유증 없음.

상기 독소는 누구나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라보타 플러스로 치료해 보세요.
특히, 술로 인한 간질환 환자는 꼭 드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바랍니다.
주문 및 상담전화 : (055)972-4205
미라보타 플러스

"불자들, 복지실천력 부족"

월1회이상 봉사활동 16%뿐

■경상지역 교양대생 1284명 '신행의식' 설문

불교교양대학이나 신행학교에서 불교를 배우고 있는 불자들의 41.8%가 사회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교리 교육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부산불교교육대학 부설 환희복지원 박주천 원장이 부산, 경남, 울산을 비롯 대구, 경주, 전주 등 불교관련 교양대학생 1,2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교신행의식 설문조사의 결과로 전체 응답자의 15.9%만이 복지시설에서 월 1회 봉사활동을 한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또 '봉사할 생각은 있으나 기회가 없었다'는 게 봉사활동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라고 응답해 종단이나 교양대학 차원에서 기회제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불교교리 교육과 관련해서도 불교교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한문으로 되어 있어 어렵다'와 '예불문이나 의식때 한문이나 범어가 많아 어렵다'는 응답이 전체의 51.7%로 가장 많았다. 또 초심자들에게 상세한 설명이 없거나 통일된 교재가 없어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와 관련해 박주천 원장은 "앞으로 한글세대를 위한 역경 사업이 단순히 음역이 아닌 의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교재 통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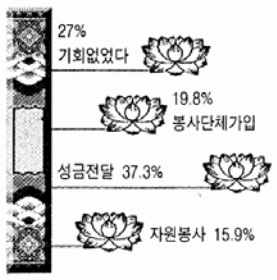
52.2%가 노인대학, 건강관리, 스포츠 댄스 등의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사찰이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해 고령화 시대를 맞아 사찰의 역할을 기대했으며 장례문화에 대해서는 92.1%가 화장을 원하고 71.5%가 화장후 사찰 납골당에 안치되는 것에 찬성했다. 전반적으로 장례문화에 대해서는 불교식 장례문화에 대한 요구가 일반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될 경우 66.2%가 사찰이 철야기도, 법회, 기초교리 강좌, 참선수행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7.4%의 응답자가 가족들이 다함께 1박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길 희망했다. 이같은 결과는 주 5일제 근무에 거는 불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찰의 발빠른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과 부합되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끈다. 청소년 포교를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7.2%가 어린이 놀이 공간을 사찰에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밖에도 청소년 법회나 어린이 주일 학교를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전체 49.5%가 한달에 1권 이상의 불교서적을 읽고 있으며 25%가 전혀 책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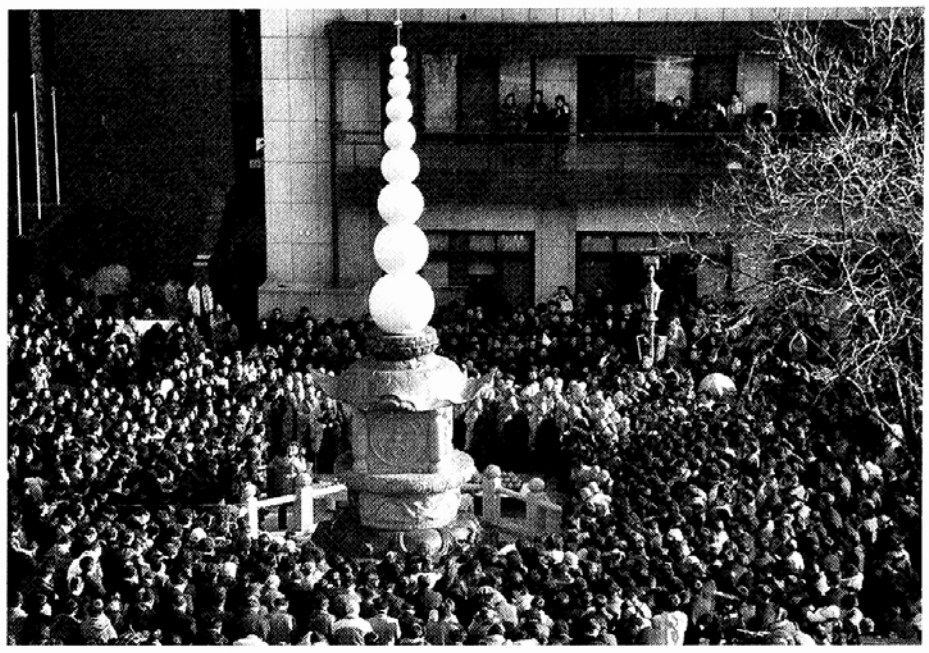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불교가 어려운 이유



◇복지시설에 대한 관심



안양 한마음선원 '도량탑' 제막 경기도 안양 한마음선원(원장 대행스님) 본원에서 6일 오후 3시 '도량탑' 제막식이 열렸다.

한마음 선원 큰법당 뒤뜰에 세워진 높이 9.6m의 도량탑은 8각 기단 위에 백색의 공 모양 9개를 위로 갈수록 작아지게 세워 탑신으로 삼았다. 기단부의 쌍용이 큰법당의 지붕을 장엄하고 있는 우주탑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둘이 아닌 도리"를 담았다.

제막식에는 선원장 대행 스님을 비롯해 전국 각 지원 주지 스님 등 사부대중 3천여 명이 참석해 "우주의 고통받는 온갖 생명들이 더 이상 고해에서 헤매지 않고 공생 · 공심 · 공용 · 공체 · 공식으로 일체가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라"고 발원했다. 권형진 기자

석불·석탑도 중국산 '러시'

국내 석재산업 타격 문화적 혼란도 우려

농산물과 경공업 제품에 이어 석불, 석탑, 석등, 망주석, 등 석물(石物)까지 중국에서 무차별 수입돼 국내 석재산업 타격은 물론 문화적 혼란까지 우려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주지역 10여개 석재공장을 비롯 포항 울산 등 동해안 50여개 석재공장 중 10여개 대형 석재공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석재의 70% 가량이 중국산 수입품이라는 것. 나머지 소규모 공장들도 묘지석은 대형공장의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국내 석공의 하루 노임이 8만~10만원인데 비해 중국서 조각할 경우 인건비가 1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석재 가격도 저렴해 업체들이 수입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3자 오석 상석의 경우 국내 돌은 40만원인데 비해 중국돌은 18만원이며 6자짜리는 국내돌이 80만~100만원, 중국돌이 3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이들 제품은 도면을 제시한 후 그에 맞춰 만들도록 한 주문 생산품도 있지만 상당수는 중국인 석공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감각에 따라 조각한 것들이어서 문화적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종단에 등록이 안된 일부 사찰에서는 값싼 중국산 석물로 경내를 장식하는 예가 많은 실정이다.

경주시 S석재와 김 모 대표는 "대형 석재공장은 대부분 중국 수입품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동국대 장충식 박물관장(불교미술학)은 "불상은 그 시대 민중의 애환을 대변해 주는 가장 이상적인 얼굴을 조각하는 것이므로 한국 사찰에는 우리 불상을 설치해야 한다"며 "우리 정서와 다른 조각품들이 사찰에서까지 사용되는 것은 문화 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재경 기자

범어사 경부고속철 대책위 구성

범어사(주지 성오)가 경부고속전철 금정산 관통과 관련, 대책위를 구성하는 한편, 시민단체와 연계, 노선 변경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범어사는 8일 가진 종무협의회와 운영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경부고속전철과 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환경단체, 시민단체, 금정구민 등과 연계 노선 변경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21일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는 범어사는 "1300년 역사의 호국사찰인 범어사 경내 계곡에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을 헤치면서 고속전철이 관통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노선 변경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총무국장 도관스님은 "공사구간과 불과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진동이나 소음 등이 문화재나 수행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존 대책이 수립되기 전에는 노선 변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선 심리치료사협 발족

선 수행을 심리치료에 이용하는 치료사들 20여명이 모여 한국선심리치료사협회(회장 도각)를 결성했다.

10일 발족식에서 회장 도각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향후 불교학자와 심리학자 등과 꾸준히 접촉, 선심리치료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것"임을 밝혔다.

협회는 10일부터 2개월 과정의 선심리치료사 기본과정을 개설했다. 여기에는 '선과 심리치료', '불교의 심리이론', '참나찾기 선무기공', '선심리치료학개론' 등의 강좌가 마련되며 과정 수료자에게는 3급 선심리치료사 자격증이 수여된다.(016)326-0248

강유신 기자

보원·종고스님 등 4명 고창경찰서 경승위촉

고창경찰서(서장 양승규)는 8일 회의실에서 선운사 보원스님, 종고스님을 비롯해 상원사 도완스님, 용화사 법운스님 등 4명의 신임 경승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고창경찰서 경승에 위촉된 스님들은 위촉장을 전달받고 앞으로 불교에 관심있는 경찰서의 직원 및 전, 의경들을 대상으로 정신교양과 포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김원우 기자

1월20일은 성도절

사찰마다 정진법회

성도절(1월 20일)을 전후해 법회와 공연이 조계사를 비롯해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열린다. 특히 올해 성도절은 임오년 첫 달에 있어, 많은 불자들이 사찰이나 공연장을 찾아 불심을 다지고 부처님처럼 정진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서원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조계사(02-732-2115)는 19일 오후 9시부터 20일 새벽 4시까지 철야정진법회를 봉행한다. 탑돌이, 참선, 1080배 정진 등으로 이어진다. 특히 조계사는 밤 12시를 기해 유미죽 공양시간을 갖고 부처님의 수행과 깨달은 의미를 되새긴다.

김천 직지사(054-436-6174)는 13일부터 20일까지 용맹정진 기간을 정하고 성도절을 맞는다. 순천 송광사(061-755-0107) 역시 14일부터 매일 법회를 열고 연등을 밝혀 부처님의 깨달음을 찬탄하고, 20일 새벽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서울 봉은사(02-511-6070)도 18일부터 3일간 대웅전과 법왕루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기념하는 철야정진법회를 갖는다. 이번 법회는 석가모니불 정근, 참선, 108참회 등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제주 관음사(064-722-2829), 서울 도선사(02-993-3161), 해남 대둔사(061-534-5502), 예산 수덕사(041-337-6565), 보은 법주사(043-543-3615), 대구 동화사(053-985-4404) 등 주요 사찰과 불교회관 등에서도 용맹정진을 통해 신심을 증장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한편 정진법회와 함께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는 곳도 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062-376-3223)는 20일 오후 4시 구동실내체육에서 '청소년 음악 콘서트'를 개최한다. 광주불교사암련은 매년 대규모 법회로만 성도절을 맞아 왔는데, 올해에는 청소년 포교의 날로 하자는 광주지역 스님들의 의견을 모아 간소한 성도절 법회와 음악 콘서트를 마련했다.

수원포교당(031-255-2692)은 19일 오후 2시 42수 관세음보살 봉안식과 오후 7시 '불자들의 작은 음악회'로 성도절 전야제를 마련하고, 20일 오전 10시부터 성도절 법요식을 봉행한다. 이날 1년 동안 신행활동과 포교 봉사에 솔선해온 신도와 신행 단체를 대상으로 포교대상 시상식도 갖는다.

강유신 · 김철우 기자

기차역 게시판 '경쟁'

'자비의 말씀' 설치승인 이후 기독교 선교판 만들기 나서

장항 · 중앙 · 호남 · 동해 · 태백 · 남해선 2백여 철도 역사에서 불교계와 기독교계의 포교 및 선교 경쟁이 일어날 전망이다.

철도청 산하 철도 역사에 '부처님 말씀' 게시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풍경소리(이사장 성운)에 따르면, 역사의 벽면마다 열차시간표, 운임표, 상업광고 등이 부착돼 있어, 게시판을 붙일 공간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풍경소리와 함께 철도 역사 내 선교 게시판 설치 승인을 얻은 기독교계 '지하철 선교회'가 1월을 기점으로 선교 게시판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져, 게시판 설치를 놓고 불교계와 기독교계 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풍경소리는 포교 게시판을 설치하는 것 외에도 게시판의 '부처님 말씀' 포스터를 교체하는 등의 관리를 책임지는 '포교위원'과 설치비용을 후원하는 '협찬 사찰'을 선정한다는 당초 계획을 수정, 게시판만이라도 우선 설치키로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재원 부족으로 여의치 않다. 풍경소리 이용성 사무처장은 "현재 진각종의 후원금 외에는 특별할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외상으로 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겠지만, 설치의 속도는 그만큼 반감될 것이고, '지하철 선교회'와의 경쟁이 시작되면 포교 게시판을 온전히 설치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말하며 교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02)736-5583 오종욱 기자

天藥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20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2201-3333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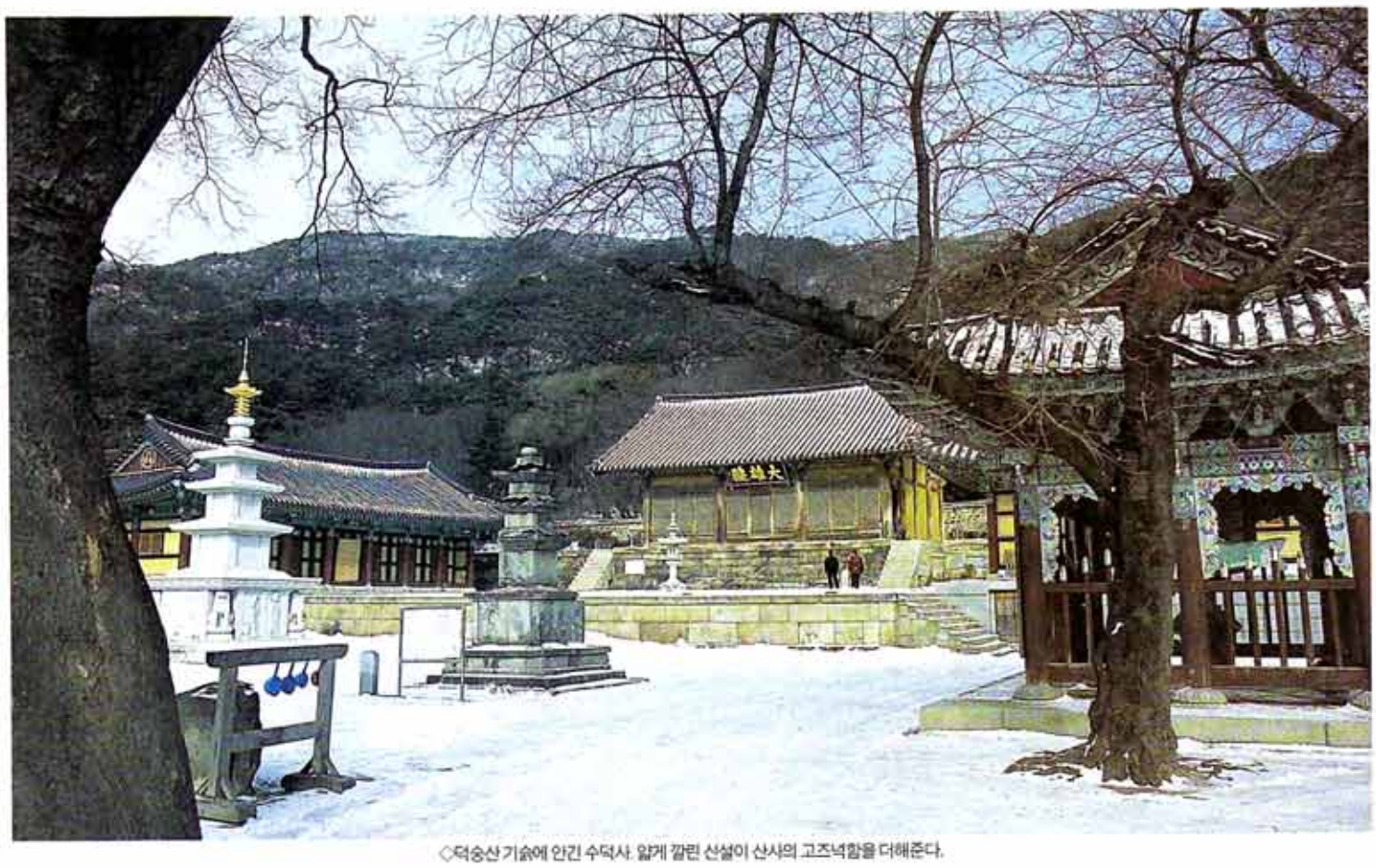
" 영가천도의 중요성 "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德 받드는 산, 보름달 같은 절



◇덕숭산 기슭에 안긴 수덕사. 알게 깔린 산설이 산사의 고즈넉함을 더해준다.

그 절에 가면 덕숭산 수덕사

덕숭산(德崇山) 수덕사(修德寺). '덕을 받드는 산'과 '덕을 닦는 도량'이라는 말이겠습니다. 산과 짝하여 어울리지 않는 절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 산과 이 절만큼 잘 어울리는 경우도 드물 것 같습니다.

태양은 두루 만물을 비추어 우리로 하여금 그 낱낱의 존재를 알게 하지만, 정작 태양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강렬한 탓이겠지요. 하지만 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근하기 때문이겠지요.

수덕사는 달같은 절입니다. 일주문에서 절을 올리고 고개를 들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덕숭산입니다. 그 모습이 꼭찬 달 같습니다. 어디 한 곳 모난 데 없는 등성마루를 펼치며 도량을 감싼 모습은 후덕한 기품의 극치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높이(495m)로 치면 야트막한 산에 불과하지만 결코 그 볼품은 높이에 있지 않습니다. 이슥한 기슭에 있는 듯 없는 듯 가부좌를 틀고앉은 만월당, 전월대, 견성암, 향운각, 정혜사, 환희대와 같은 암자들은 제각기 마음달 하나씩 품고서 가람 전체를 커다란 달이 되게 합니다. 그 달을 보며 어찌 수도 있고 기댈 수도 있습니다. 사찰 건물은 살아 있는 생명체입니다.

수덕사는 백제 위덕왕(554~597) 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후로도 중창을 거듭했지만 그리 큰 절은 아니었습니다. 마곡사의 말사였다가 1962년에서야 조계종 제7교구 본사로 승격했고, 1964년에 총림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절입니다.

오늘날의 수덕사는 만공(滿空, 1871~1946) 월면(月面) 스님이 1905년부터 덕숭산 기슭에 금선대라는 암자를 짓고 정혜사 선방에서 선의 불길을 높이고부터입니다. 선불교의 중흥조로 불리는 경허 스님의 제자들로, 만공 스님과 함께 한국 근세 불교의 '세 달'로 불리는 수월, 혜월도 수덕사와 인연이 깊습니다. 오늘날 덕숭총림을 '禪之宗刹'로 일컫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입니다. 한국 불교에 선도량을 표방하는 절이 한둘이 아니지만, 경허 스님이 되살린 선의 불꽃을 만공 스님이 이곳 수덕사에서 치솟게 한 것입니다. 해암 · 벽초 · 금오 · 전강 스님 등이 모두 만공 스님의 회상에서 불조의 혜명을 이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수덕사를 비구니 도량으로 아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유행가 때문에 생긴 일인데, 아주 틀리지도 않은 것이 흔히 일엽으로 알려진 이화학당 출신의 하엽 스님도 수덕사 견성암에서 선(禪) 수행을 했고 환희대에서 입적했습니다. 우리 나라 최초의 비구니 선방인 견성암에서는 지금도 100여 명의 비구니들이 화두 삼매에 빠져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수덕사의 진정한 보물이 무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른바 만공 가풍, 호방하고도 활달한 선수행의 가풍이 정혜사를 비롯한 산내 암자에서 끊이지 않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보물의 광휘를 맛보고 싶으면 덕숭산을 오르는 돌계단을 밟아야 합니다. 정혜사와 전월사, 소림초당 그리고 만공탑을 몸으로 만나야 합니다.

수덕사에서, 너무 커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대한 달을 봤습니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박보하(사진가)

국보49호 대웅전 고려最古 건물중 하나

禪之宗刹…만공스님 구도의 불꽃 지핀 곳

높이를 따지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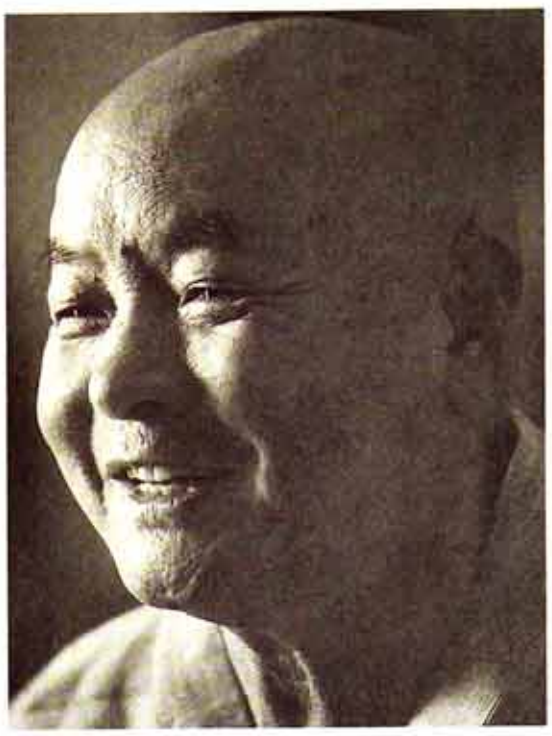
수덕사를 참배하면서는 굳이 미술사적 안목에 기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웅전 말고는 역사적 연원이 깊지 않은데다 대부분의 당우들을 80년대에 이후 고치고 옮기고 새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웅전 만큼은 옛모습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단청 벗겨진 배흘림 기둥의 갈라진 나뭇결에서 700년 세월의 물살을 느껴봅니다.

일주문부터 대웅전까지는 곧게 뻗은 오르막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함께 가더라도 이 길은 홀로 가야 제격일 듯 싶습니다. 기대지도 말고 짐되지도 말고. 스님들도 여럿이 움직일 때는 그렇게 하더군요. 안행(雁行), 기러기 줄지어 나르는 모습을 빗댄 것이겠지요. 일주문에서부터 금강문을 지나 천왕문을 거쳐 황하장루에 이르는 형국이 또한 그러합니다.

수덕사 대웅전은 국보(제49호)라는 사실을 모르더라도 참으로 귀한 집임을 알게 합니다. 소박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만 눈여겨보면 최고의 정성을 들여 지은 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면 세 칸에 측면 네 칸의 맞배지붕 주심포 양식 운운하면 오히려 느낌이 덜 합니다.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지어진 건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려 건물 다섯 동 중 하나라고 합니다. 나라에서 보물로 지정한 것들은 대부분 수장고에 갇혀 있거나 박물관의 진열창 너머로 바라만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절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루만질



◇수덕사 대웅전 안. 군더더기 없는 구조와 화려한 장식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덕숭산의 얼굴 원담스님

天眞佛…1937년 수덕사 출가

천진불(天眞佛). 원담 스님을 문자로 표현하는 데 이보다 더 적절한 말이 또 있을까 싶다. 귀동냥한 바도 그랬지만 실제로 뵌 모습도 그랬다.

1926년에 전북 옥구에서 나셔서 1937년 수덕사로 출가하셨다. 쉼뿌리를 캐어 나누어 먹고 그것도 없으면 솔잎을 갈아먹으며 만공스님을 시봉하셨다.

1986년에 덕숭총림 3대 방장에 추대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는 아침햇살 곱게 내려앉는 염화실에 주석하신다.